

## “글로벌 금융시장 퍼펙트스톰 온다”



양적완화·제로금리로 풀린 유동성, 시장 붕괴의 시한폭탄

### ‘닥터둠’ 루비니 교수 경고

‘닥터둠’ 누리엘 루비니(사진) 뉴욕대 교수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퍼펙트 스톰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루비니 교수는 1일(현지시간) 전문가 칼럼사이트인 프로젝트스핀데이크에 “주요국 중앙은행의 양적완화(QE)와 제로(0)금리 정책으로 풀린 유동성이 시장을 붕괴시키는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거시 유동성은 많지만 시장 유동성은 부족한 ‘역설이 초래했다며 이 역설을 ‘유동성 시한폭탄’이라고 불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예상보다 일찍 기준금리 인상을 추진하게 되면 유가 급등 등의 상황이 연출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면하고자 채권과 주식거래가 한 방향으로 쏠리는 현상이 일

어날 것이라고 루비니 교수는 지적했다. 이어 초단타매매(HTF) 등 컴퓨터를 활용한 자동주문거래시스템이 거래량을 순식간에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자산가격 폭락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루비니 교수는 △2010년 5월 뉴욕증시의 ‘플래시 크래쉬(순간적 폭락)’ △2013년 4월의 ‘테이퍼 탠트럼(긴축발자)’ 등을 예로 들었다.

루비니 교수는 금융위기를 극복하고자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유동성을 공급해 금리를 낮추고 자산시장의 변동성은 축소시켰지만 이는 자산의 거품을 키우는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가격변동 위험을 키워 자산시장을 무너뜨릴 요인으로 작용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동시다발적 현상들로 인해 금융시장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는 이야기다.

정혜인 기자 haein2558@

## 일본에 역전된 ‘수출 한국’

1분기 물량기준 수출 증가율  
韓 2.8% 늘 때 日 3.8% 증가  
아베노믹스 엔저 효과 본격화

물량 기준으로 본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1분기 들어 일본에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한국의 수출이 부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일본은 경기확장 정책인 ‘아베노믹스’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일 한국은행과 산업통상자원부, 일본 재무성의 자료를 종합하면 일본의 1분기 수출물량지수(2010년 100 기준)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8% 증가해 같은 기간 한국의 증가율(2.8%)을 앞섰다.

수출물량지수는 수출금액지수를 해당 기간의 수출물가지수로 나눈 수치로, 국제유가 하락과 같은 수출단가 변화의 효

과를 제외한 실물교역량의 변동 추이를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한국의 수출물량지수 증가율은 2012년 5.6%, 2013년 4.8%, 2014년 4.3%로, 그동안 매년 4%대 이상을 유지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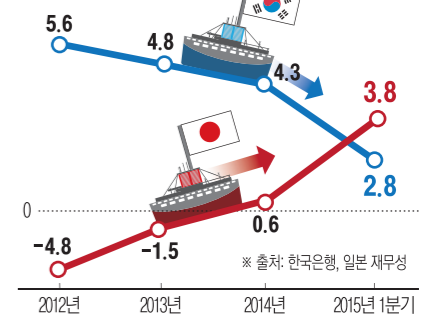
반면 일본의 수출물량지수는 2012년과 2013년 각각 4.8%, 1.5%의 감소세를 기록하다가 지난해 들어서야 비로소 0.6% 증가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올해 1분기 들어 한국의 증가율이 역전된 것이다.

과를 제외한 실물교역량의 변동 추이를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한국의 수출물량지수 증가율은 2012년 5.6%, 2013년 4.8%, 2014년 4.3%로, 그동안 매년 4%대 이상을 유지해 왔다.

반면 일본의 수출물량지수는 2012년과 2013년 각각 4.8%, 1.5%의 감소세를 기록하다가 지난해 들어서야 비로소 0.6% 증가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올해 1분기 들어 한국의 증가율이 역전된 것이다.

### 한국·일본 수출물량지수 증가율



이런 수출물량 증가율 차이는 일본이 아베노믹스를 시행한 이후 ‘엔저 공세’를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진영 기자 mint@

## 6개월째 0%대 소비자물가

유가·도시가스 가격 하락 여파  
담뱃값 빼면 사실상 마이너스  
디플레이션 우려 갈수록 심화

산업생산, 수출에 이어 물가 또한 낮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를 더하고 있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0.5% 오르는 데 그쳐 6개월 연속 0%대를 기록했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는 0.1% 올랐지만 올해부터 갑당 2000원 정도 오른 담뱃값 인상 요인(0.58%포인트)을 제외하면 4개월 연속 물가가 하락한 셈이다.

실제로 작년 같은 달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3년 10월 0.9%를 기록한 이후 13개월 연속 1%대에 머물다가 지난해 12월 0.8%로 떨어진 뒤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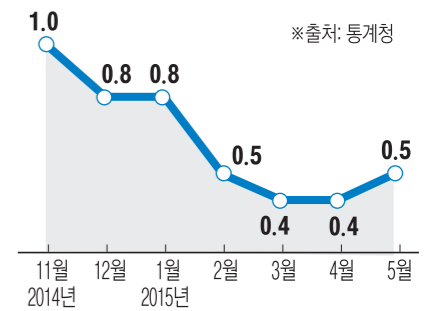
농산물 및 석유류 등 일시적 가격변동이 심한 품목을 제외하고 산출한 근원물가는 1년 전보다 2.1% 올라 5개월 연속

2%대를 이어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에너지제외지수는 1년 전보다 2.2% 상승했다. 전월보다는 0.1% 하락했다.

5월 물가가 0%대 상승을 이어간 것은 국제유가 하락세에 기인한다. 지난달 석유류 가격은 작년 동월 대비 19.3% 하락해 전체 물가상승률을 1.01%포인트 끌어 내리는 역할을 했다.

또한 도시가스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전기·수도·가스 가격이 전체적으로 9.0%

### 소비자물가 추이



내렸다. 공업제품도 작년 같은 달보다 0.3% 떨어졌다.

반면 농축수산물 가격은 2.7% 오르면서 그나마 물가를 지지했다는 평가다.

김희준 기자 h9913@

## ‘중 이마트’ 포기 안한다

정용진 부회장, 구조조정 거쳐 중사업 교두보 활용

정용진(사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적자에 허덕이는 ‘중 이마트’ 사업에서 발을 빼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공격적 구조조정으로 철수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철수하지 않고 중국 사업의 교두보로 활용하기로 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은 연내에 중국에 있는 이마트 중 2~4개 점포의 추가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남은 점포들을 유지하면서 중국 사업 진출의 발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마트는 이 같은 방침을 지난달 19일부터 22일까지 해외 주요 기관 20여 곳을 상대로 개최한 기업 및 투자설명회(NDR)에서 밝히기도 했다.

이마트는 지난 1997년 상하이에 1호점을 오픈한 후 매장을 28개까지 늘렸지만, 적자를 견디지 못해 2011년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영업적자는 2010년 910억원,

2011년 1337억원으로 급증하다가 구조조정 이후인 2012년 613억원, 2013년 530억원으로 줄었다. 작년에도 5개 점포를 폐점하는 등 꾸준히 구조조정을 실시해 현재 9개 점포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올해 1분기 실적은 매출 722억원, 영업손실 111억원을 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은 36.7% 줄고, 영업손실은 37% 늘었다.

고강도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지속되면서 이마트 중국 철수설이 나돌았다. 정 부회장 역시 해외진출 공략 지역을 중국에서 동남아로 선회해 이 같은 전망에 무게가 실렸다.

그러나 이마트 측은 시종일관 “중국 사업의 경영효율을 개선하는 차원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것일 뿐, 중국 사업 철수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선애 기자 lsa@

### 메르스 사망자 2명으로... 긴급 관계장관회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인한 사망자가 2명 발생한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메르스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5면 연합뉴스

## 전남을 ‘스마트 농수산물’ 메카로 GS, 창조경제혁신센터 조성

농식품·관광·바이오 분야  
벤처 육성 등 1400억 지원

GS그룹이 지원하는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전남센터, 센터장 정영준)가 2일 전라남도 여수시에 문을 열었다. 이날 출범식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허창수 GS그룹 회장을 비롯해 이낙연 전라남도 도지사,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김중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

전국에서 12번째로 출범한 전남센터는 총 2978㎡(901평)의 규모로 본관(717평) 외에 숙소(184평)를 갖춘 레지던스형 창업공간을 구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전남센터는 지리적으로 농수산물이 풍부한 전라남도의 지역 특성을 최대한 살리겠다는 전략이 담겨 있다. 전라남도는 친환경 면적이 전국 기준으로 57%, 수산양식 면적은 73%를 차지하는 등 우리나라 최대 농수산물 생산지다.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은 수도권 급식 쌀의 48%, 과채류 51%를 담당하며, 전국 수산

물 총 생산량의 43%를 맡고 있다.

GS그룹과 정부는 전남센터를 스마트 농수산물의 본고장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을 갖고, 전방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석준 미래부 차관은 “세계 인구 증가에 따라 식량 수요와 세계 식품시장 규모는 크게 증가할 전망”이라며 “농업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키워낸 선진국 사례는 우리 농수산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남센터는 친환경 농수산물 기반을 보유한 전남의 강점과 연구기관, 대학·출연(연)의 첨단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농수산물 벤처 창업을 지원하는 거점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정부와 GS그룹은 전남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총 1390억원의 자금을 조성해 지원하기로 했다.

분야별로는 지역 농수산물·관광·바이오 화학 벤처 투자를 위한 펀드 150억원, 바이오화학 특화펀드 150억원, 전국 농식품 벤처 투자 펀드 100억원을 조성해 운영한다. 친환경 농수산물 기업을 위한 펀드도 920억원 지원하고, 창업·중소·벤처기업 융자 보증을 위한 펀드 역시 70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양창규 기자 yangck@

### 알립니다

한·중발효식품정보교류회(베이징김치설명회)

## 한국김치 우수성 중국에 알린다

11일 오후 1시30분 중국 베이징전람관서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와 대한민국김치협회 가 대(對)중국 김치수출 재개의 문을 두드리기 위해 ‘한·중 발효식품 정보교류회(베이징김치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투데이와 중국관광 중국경제망 공동 주관으로 오는 11일 중국 베이징전람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김치협회 주최로 한·중 양국의 발효식품 전문가가 나와 발효식품의 안전성과 김치의 건강 효능 등에 대해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대한민국김치협회는 또 한국김치전시관(한국관 내)을 마련, 한국인의 입맛을 대표하는 다양한 김치를 전시하고 한국의 발효음식 문화를 알릴 예정입니다. 중국 북부 및 서부내륙지역 시장 개척에 관심 있는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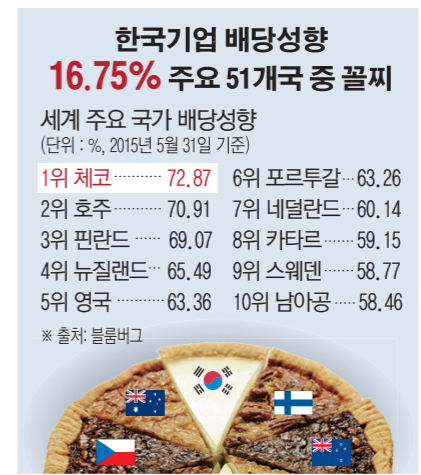
- 일시 : 2015년 6월 11일(목) 오후 1시30분~3시30분
- 장소 : 베이징전람관(시즈먼) 2015중국국제식품안전전람회 내 한국관(4호관) 및 7호관
- 대상 : 파오차이업계·대형마트·유통업체 관계자, 바이어 등
- 주최 : 대한민국김치협회
- 주관 : 이투데이·중국경제망
- 문의 : 02-799-6769, jadong7942@etoday.co.kr

### 데이터 뉴스 Data News

#### 가장 혁신적인 IT기업은 구글

기업 관계자들이 뽑은 가장 혁신적 정보기술(IT) 기업 1위는 구글로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미국 외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10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다. 2일 IT 분야 전문 조사업체 테크프로 리서치가 조사한 ‘IT 인노베이션 리포트 2015’ 결과에 따르면, 구글이 응답자의 83%(복수응답)로부터 혁신적인 IT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아 1위를 차지했다. 애플(78%), 아마존(67%), MS(58%), 삼성전자(47%) 등이 뒤를 이었다.

권태성 기자 tskw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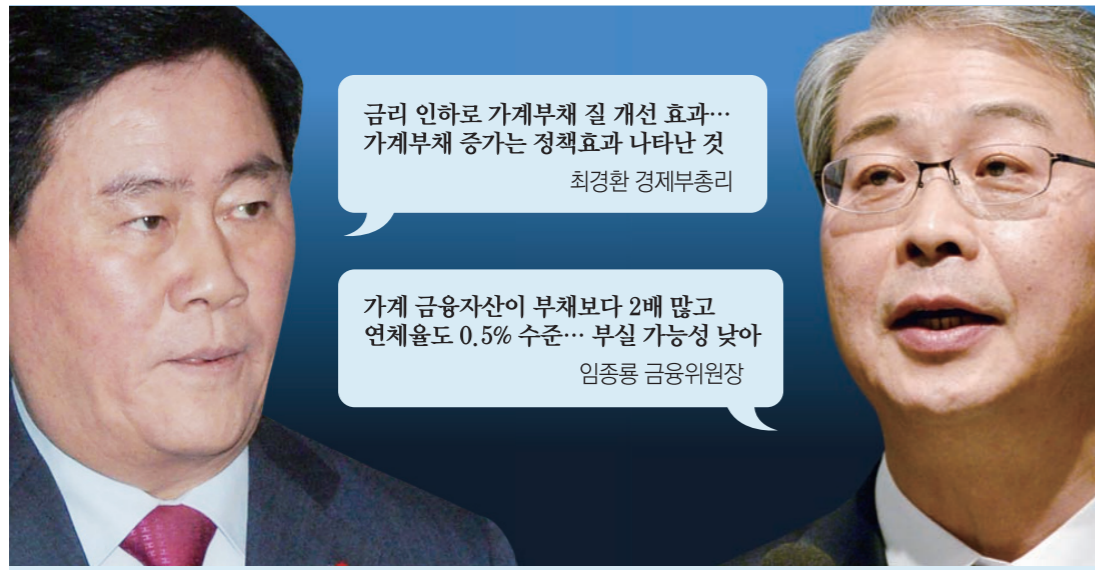
#### 한국 상장사 배당성향 최하위

국내 기업의 배당성향이 아시아와 유럽, 북중미 주요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일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의 배당성향(5월 31일 기준)은 평균 16.75%로 집계됐다. 조사 대상 51개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의 주주환원 정책 강화로 상장기업들의 배당성향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배당성향은 당기 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 총액 비율을 말한다.

김준희 기자 juni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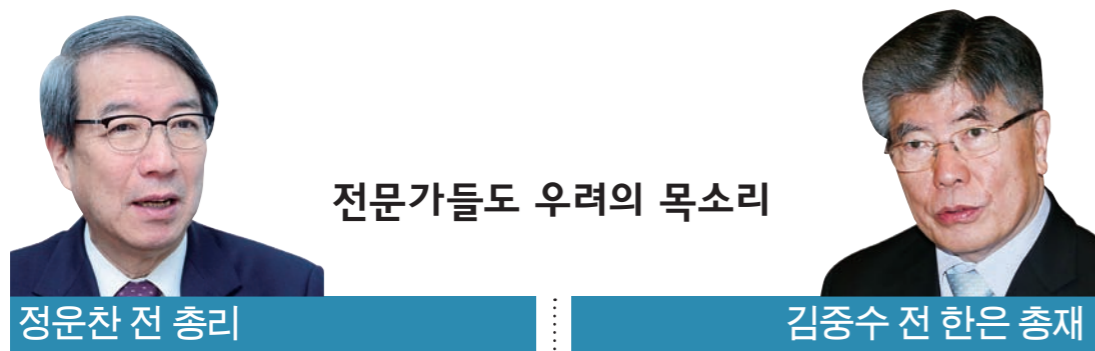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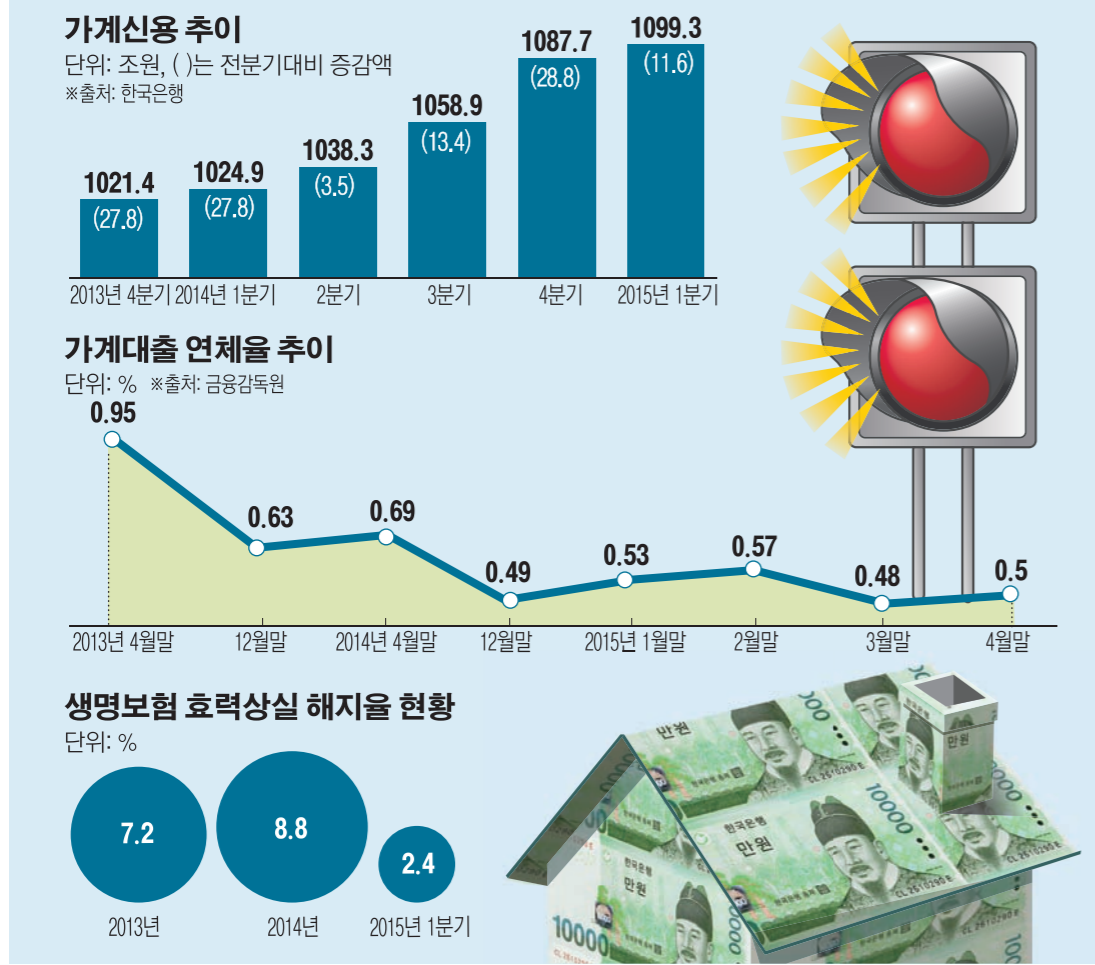


# 곳곳서 가계부채 경고음 울리는데... “괜찮다”는 경제수장들



금리 인하로 가계부채 질 개선 효과... 가계부채 증가는 정책효과 나타난 것  
최경환 경제부총리

가계 금융자산이 부채보다 2배 많고 연체율도 0.5% 수준... 부실 가능성 낮아  
임종룡 금융위원장



전문가들도 우려의 목소리

**정운찬 전 총리**

가계부채 위험수위 넘어  
부동산 부양 너무 집착  
성공해도 단기효과 그쳐

**김중수 전 한은 총재**

미국 금리 오르면  
저소득층 채무부담 커져  
금융 불안정 나타날 것

경기 활성화를 화두로 둔 재정-금융정책 수장들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연장 등 부동산 카드를 다시 꺼내들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기성 부동산 정책 탓에 가계 부채의 급증세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1년 동안 LTV를 70%로, DTI는 60%로 일괄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전에는 LTV(이차 은행·보험권 기준)의 경우 서울·수도권이 50~70%, 그 외 지역이 60~70%를 적용했다. 서울·수도권만 규제하는 DTI는 서울 50%, 경기·인천지역 60%를 적용했었다.

실제로 최 부총리의 이 같은 정책 이후 부동산 시장은 혼동이 불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역대 최대치를 4연속 갱신하고 있고, 건설업계도 올해 10대 건설사를 중심으로 분양 물량을 예정보다 높게 설정했다.

그럼에도 체감경기는 여전히 불황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예초 3.8%에서 3%까지 속속 하락 조정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주 발표한 5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와 경제심리지수(ESI)에 따르면 제조업의 5월 업황BSI는 75로 전달보다 5포인트 떨어지면서 4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내수가 바닥인 가운데 제조업 생산과 수출까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최 부총리는 그나마 선전한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이어가기 위한 방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간 정부의 재정정책에 보폭을 맞춰온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 “부동산 등의 자산시장의 (경기진작 효과 등의) 경로 소비까지 나타나길 기대하고 있다”며 부동산 활성화 정책의

효용성을 시사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31일 한 지상과 방송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다음 말종로 예정인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 완화 조치의 연장을 시사했고 실제로 다음달 금감원은 LTV, DTI 규제 완화를 1년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정책 경기 활성화에 뚜렷한 영향을 보여주지 못한 상황에서 또다시 부동산 카드를 들고나오면 가계부채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은 이에 대해 “가계 부채는 위험수위를 넘어 2014년 말 현재 가계신용은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의 138%인 1089조원에 달했으며 국제적 비교가 가능한 자금순환표상의 가계부채는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의 164.2%인 1295조원으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 정부의 정책은 가계부채가 급증해 경제 전체적인 위험이 높아지고 있지만 부동산 경기부양에 대한 강한 집착을 떨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성공한다 해도 그것은 단기적인 성장률을 높이는 데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중수 전 한국은행 총재 역시 부동산 정책으로 파생된 과도한 가계부채를 우려하고 나섰다. 특히 그는 “선진국 경제 위기와 달리, 한국에선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부채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미국 금리 인상시 저소득층 가구가 가진 채무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금융 불안정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대해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적정 부채가 어느 정도냐를 따지기보다는 리스크의 크기와 부동산 버블의 가능성, 소비 증가로 연결되는지를 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희준 기자 h9913@

## 가계빚 ‘1100조’ 시대

최경환 부총리 “가계부채 총량 늘었지만 리스크는 축소됐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아직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1100조원 가계부채에 대한 두 경제수장의 입장이다. 이미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음이 울렸지만 경기회복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게 그 이유다.

그러나 가계부채 상황은 녹록지 않다. 양(量)은 고사하고 질(質)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대출자들의 빚 상환 능력은 악화되고 있다.

정부는 소비 위축, 수출 감소 등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어렵게 살려 놓은 부동산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자칫 소탕대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금융권 대출도 11조 ‘사상 최대’  
1분기 주담대 증가율 5배 확대  
연체율 증가... 보험 해약도 늘어

당국 “관리 가능” 입장 되풀이  
LTV·DTI 완화 연장 파장 클 듯

◇최경환·임종룡, 초지일관 “총량관리 지양” =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급증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초지일관 미시적 대응만을 고수하고 있다.

1분기 말 기준 금융권 전체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 잔액은 1099조3000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2분기 말 1038조3000억원을 감안하면 불과 9개월 만에 61조원이 나 불어났다. 특히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에 주택담보대출은 1분기 9조7000억원이나 늘었다. 전년 동기(2조원) 대비 5배 폭증했다.

정부는 가계부채에 대해 양보다 질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 부총리는 지난 3월 열린 ‘2015년 경제정책방향’ 조찬 강연에서 “금리 인하가 자산시장 연착륙을 돕고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시켰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금리를 내린 목적이 유동성을 투입해서 경제를 돌아가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는 정책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제2금융권 대출을 제1금융권 대출로 전환해서 금리 부담을 낮추고, 집값 하락이 멈추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 것은 상환 측면에서 좋아졌다”고 말했다.

같은 측면에서 오는 7월로 만료되는 LTV·DTI 등 부동산담보대출 규제 완화에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임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KBS 일요진단에 출

연해 “지나해 완화한 부동산담보대출 규제를 다시 강화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계 금융자산이 부채보다 2배 많고 연체율도 0.5%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 부실 가능성은 낮다”며 “질 개선을 위해 저신용 소비자를 위한 종합서민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해 곧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가계부채 위험 2금융권 이동... 상환 능력 약화 = 두 경제수장은 가계부채 상황이 아직은 괜찮다는 입장이지만 지표를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

우선 부실 위험이 큰 2금융권 가계대출이 크게 늘었다. 지난 3월 말 현재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사상 최대치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6%(2조3381억원)나 불어났다.

무엇보다 2금융권을 이용하는 저소득·저신용 대출자들의 부채상환 능력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돈 갚을 능력이 안되는 사람들은 우선 보증을 해약하면서 이자를 총당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보험 보험 해지율은 8.8%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3년 7.20% 대비 1.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보험해지율은 2개월 이상 할료를 내지 못해 보험계약 효력이 상실되거나 고객이 직접 해지한 보험계약의 비율을 말한다. 통상 경기에 영향을 받는다.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다. 금융시스템 불안을 야기하는 요인이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0.5%로 전년(0.48%)보다 0.02%포인트 올랐다. 박선현 기자 sunhyun@

Sulwhasoo  
MEN

雪花秀  
Sulwhasoo  
MEN  
INNER CHARGING SERUM  
본윤에센스

부드러움 속에 흐르는 강인함,  
독보적인 격을 지나다  
설화수 맨 본윤에센스

나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남자의 피부는 근본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설화수의 안티에이징 정수가 담긴 정양단이 피부 본연의 힘을 길러 주름, 탄력, 칙칙함을 한번에 케어해주는 설화수 맨 본윤에센스가 시간 앞에서 호트러짐 없는 남자의 피부를 완성해줍니다.

• 유령백화점이나 이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www.sulwhasoo.co.kr • https://www.facebook.com/sulwhasoo.kr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료 포함)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제개정 대상 시행령	228건	298건	169건	309건
시행령 지연	18건	8건	7건	3건
지연마련 시, 평균 시행유예기간	83일	103일	196일	153일

## “정부 특하면 시간끌기 금지...제개정 지연 땀 국회보고를” 野 ‘시행령’ 전선 확대 팔걸었다

### 정부입법 통제 강화 법안 발의 예정

야당이 국회의 정부 시행령 수정·변경 권한 강화를 골자로 국회법을 개정할 데 이어 시행령 제·개정 시간 끌기를 못하게 하고, 제·개정 지연 시엔 그 사유를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정 국회법을 놓고 청와대가 위한 가능성을 언급하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시행령 통제 강화를 목표로 전선을 더욱 넓혀겠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2일 법률의 시행일 이전에 반드시 대통령령 등을 제·개정, 또는 폐지토록 정부의 책임을 못박은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또한 부득이하게 대통령령 등의 제·개정 또는 폐지가 늦어질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이유와 향후 제·개정 또는 폐지 예정 일자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개정안을 낸 정부가 때때로 일부러 몽그적대며 시행령 제·개정에 시간을 끌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

다. 김 의원은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정부의 시행령 마련이 법률 시행일보다 늦어진 건수는 총 36건이었다. 법이 공포되자마자 시행돼 시행유예기간이 부족한 경우도 일부 있었지만, 소관부처의 입안 등 입법 절차가 늦어져 시행령 마련도 지연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지난해엔 전기사업법 등과 관련한 시행령 3건이 뒤늦게 마련되면서 법률 시행 후 평균 다섯 달가량 법 시행이 유예됐다. 전년도인 2013년엔 학교체육진흥법 등 관련 7건의 시행령이 건당 평균 200여일 늦게 만들어져 기간 법률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올해의 경우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에 따라 추가 피해자 6010여명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함에도, 정부 예산을 전 기획재정부가 관련 시행령을 바꾸는 데 5개월째 시간을 끌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열리는 의원 워크숍에서 상위법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시행령의 수정 추진 여부와 함께 김현미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도 논의의 테이블에 올릴 예정이다. 김미영 기자 bomnal@

### 국회법 개정안 주요내용

현행	개정안
통제대상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훈령·고시 등은 제출대상에만 포함)	행정입법 전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행정입법)
통제내용 위법여부 등을 검토하여 통보	위법 등의 경우 수정·변경을 요구
처리유지 처리 계획과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	요구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
제도취지 소극적 시정요구권	적극적 시정요구권

## 朴 대통령 “국회법 위헌” 거부권 시사 국회 법제실은 “행정입법권 침해 아냐”

### “제·개정 아닌 수정·변경 요구”

정부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개정 국회법은 ‘위헌’이 아니라는 국회 법제실의 해석이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위헌’ 가능성을 지적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국회법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법제실은 1일 국회법과 관련해 △국회의 행정입법 수정·변경 요구권 위헌 여부 △항후 대통령 관계 △국회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필요사항 △헌법 및 개정안이 한계 등에 대한 법리 검토를 마치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제실은 국회의 원이나 상임위원회가 요청한 법안을 입안 또는 검토하고,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에 대한 분석·평가를 하는 곳이다.

법제실은 우선 국회의 행정입법 수정·변경 요구권과 관련해 “국회가 행정입법을

직접 제·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수정·변경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행정입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행정입법을 통제할 수 있는 입법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법제실의 설명이다.

대법원의 명령·규칙 심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구체적인 소송에서 해당 행정입법의 효력이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사법부가 법률에 따라 행정입법의 효력을 심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소송을 전제하지 않는 국회의 통제권과는 구별된다”고 밝혔다. 법제실은 그러나 개정된 국회법상 통제대상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행정입법으로 규정됨에 따라 개정 규정이 미제출된 경우나 기존 규정은 법률상 명시된 통제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의 시행령 등 수정요구가 강제성을 띠는지를 두고 각을 세우고 있는 여야는 사실상 여론전에 돌입했다. 김의중 기자 zerg@

## ‘한 입으로 두말’ 하는 친박계

### “국회법 문제있다” 주장하면서 표결 땀 상당수 ‘찬성’표 던져 개정안 의견수렴 오늘 긴급모임

국회법 개정안이 정적권을 흔들고 있는 가운데 위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 상당수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벌어진 개정안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친박계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협상을 담당 한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

다. 이런 가운데 개정안으로 비롯된 당청 갈등은 당내 친박계와 비박계의 균열로 이어지는 형국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정안을 성토하고 나선 김무성 대표, 서상기·안홍준·이학재·조원진·홍문표 의원 등 친박계 최고위원들은 대부분 개정안 투표에서 찬성표를 행사해 한 입으로 두말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편 친박계를 중심으로 한 새누리당 의원 모임인 국가경쟁력강화포럼은 2일 모임을 갖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 자리에는 재정부 법제처장이 참석해 ‘국회법 개정안 위헌 논란’을 주제로 발표하며, 의원들의 토론도 진행될 예정이다. 윤필호 기자 beetlebun@

# 빛으로 떠받치는 소비...비상구가 없다

### 6개월째 0%대 소비자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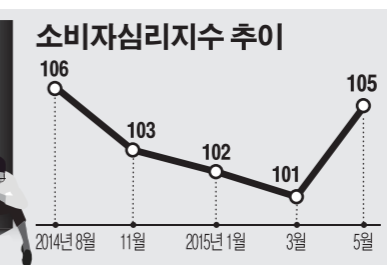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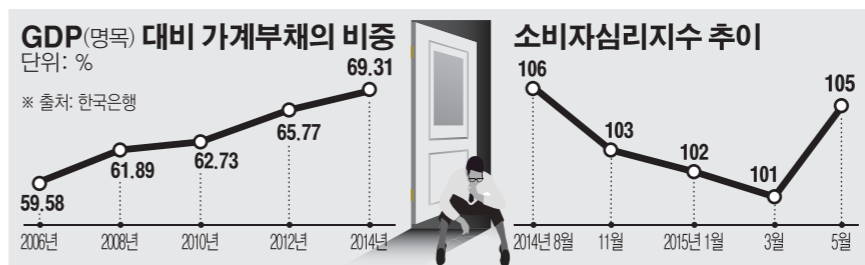
저성장이 구조적으로 고착화하고 있는 가운데 빛을 내 소비를 부추기는 미봉책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론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해 부채에 의해 소비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일 “역설적으로 지금까지는 가계부채가 늘어나 소비가 어느 정도 유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가계부채를 늘려 생계형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말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작년 같은 달에 비해 0.5% 오르는 데 그쳤다. 지난해 12월 0.8%를 기록한 뒤 6개월째 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수출은 둔화되고 있다. 생산과 투자 회복세도 지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소비 개선세가 이어지며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 경기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유통업체들의 매출도 더디지만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거나 금리가 인상된다면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과 실물경제의 부실로 이어져 불황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가계부채를 둘러싼 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했다”면서 “대외여건이 악화할 경우 국가경제에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면 우리나라도 자본 유출을 우려해 결국 금리를 따라 올릴 수밖에 없고 저금리 기조에서 금리 인상은 가계부채의 폭발력을 배가시켜 파장이 심각할 수 있다.

최근 세계경제 불안과 엔저현상으로 수출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소비까지 위축되면서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경업 한국경제연구원 공공연구실장은 “인위적 저금리로 발생하는 자본재에 대한 과잉소비와 과투자의 결과가 대공황”이라며 “가계 부실대출 정리, 공공부문 개혁, 노동시장 개혁, 복지제도의 재구조화 등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때 내수가 살아나고 생산성이 향상되며 일자리가 창출되는 총수요-총공급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엘리 기자 ellee@



### 서울시 지방세 카카오페이로

박원순(앞줄 왼쪽 네번째) 서울시장과 이석우(왼쪽 세번째) 다음카카오 공동대표, 김대훈(왼쪽 두번째) 엘지시어스 대표, 이광구(오른쪽 두번째) 우리은행장이 2일 서울 태평로 서울시청사에서 열린 ‘핀테크(Fin-Tech) 기반 간편결제 세금납부 양해각서(MOU) 체결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ak@

## 38개월 최장기...달감지 않은 경상흑자

### 4월 81억4000만 달러...올 누적 315억9000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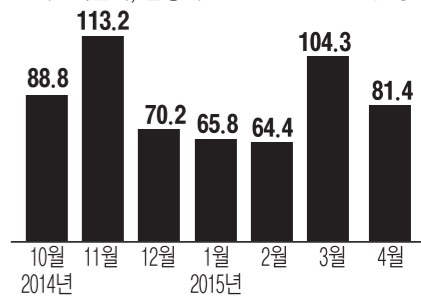
### 불황형 흑자로 달러 쌓여...수출업체에 오히려 타격

지난 4월 경상수지가 38개월째 플러스를 나타내 역대 최장 기간의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그러나 수출보다 수입이 더 늘어드는 ‘불황형 흑자’로 달러가 쌓이면서 오히려 수출업체에 타격을 주는 웃지 못할 추국이 연출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2일 발표한 ‘국제수지(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경상수지 흑자는 81억4000만 달러(약 9조558억 원)로 작년 같은 달보다 13.7% 늘어난 반면, 지난 3월보다는 22% 줄었다. 이로써 올 들어 4월까지의 경상수지 흑자는 315억9000만 달러

에 달했다. 경상수지는 2012년 3월부터 38개월째 흑자를 내고 있다. 1986년 6월부터 ‘3저 호황’에 힘입어 38개월간 이어졌던 최장 흑자 기간과 맞먹는 기록을 달성하게 됐다. 한은은 올해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인 96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는 2013년 811억5000만 달러, 작년의 연간 흑자 규모는 892억2000만 달러로 매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해 왔다. 그러나 문제는 수출과 수입이 동반 추락

### 경상수지 추이



됐다.

실제로 수출 전선엔 짙은 먹구름이 끼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년 동월비 수출액 감소 폭은 1월 0.9%, 2월 3.3%, 3월 4.3%, 4월 8.0%, 5월 10.9%로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세계교역량 감소,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 등도 배경으로 작용했지만 ‘나홀로 원고’가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진영 기자 mint@

## 5월 3.3% ‘뚝’...중수출 4개월째 ‘곤두박질’

### 韓·中 FTA 정식서명 기대 속 국회비준 난관 우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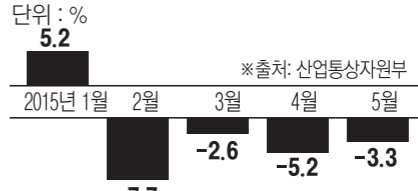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 성적표가 심상치 않다. 중국 경기 둔화, 수출에서 내수 중심으로의 성장전략 변화 등으로 넉 달 연속 내리막을 걷고 있어서다.

한국과 중국이 1일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하면서 중국 내수 시장 선점의 물꼬를 트고 패션, 화장품 등 소비재 수출 증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국회 비준안 통과 지체 우려로 발표 시점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점은 걸림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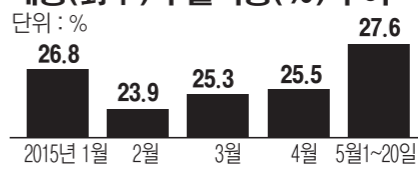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5월 대중(對中) 수출액은 3.3% 줄어 4개월 연속 감소했다. 올해 들어 중국에 대한 수출 증가율은 1월 5.2%를 기록했지만, 2월 7.7% 줄더니 3월 -2.6%, 4월 -5.2%, 5월 -3.3%로 마이너스 성장에 지속되고 있다.

이는 중국 경제가 부진을 거듭하고 있는 데다 성장 전략이 수출에서 ‘내수 중심’의 질적 고도화로 바뀐 영향이 컸다. 중국에서 내수 시장을 강화하고 있는 석유제품(-12%), 철강제품(-10.1%), 무선통신기기

### 대중(對中) 수출증가율 추이



### 대중(對中) 수출비중(%) 추이



(-7.8%) 수출도 작년 5월보다 크게 줄었다. 또 중국의 중간재 수입 비중이 지난 2007년부터 작년까지 7년간 7.8%포인트나 크게 줄며 한국의 대중 원자재 수출은 1분기

에 작년 동기 대비 15.2%나 급감했다. 한국의 총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7.6%로 여전히 가장 크다는 점에서 대중 수출 적신호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악재임은 분명하다.

이에 따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발효가 더욱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중 양국이 지난 3년 만에 ‘FTA협정 정식서명’이라는 결실을 보게 됐지만 정식 발효가 되기까지는 ‘국회 비준’이라는 만만찮은 절차가 남아 있다. 정부는 가급적 이른 시일 내 발효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의 농축산물 개방에 따른 우려가 여전히 커져 공무위원금 등의 현안을 놓고 대립 중이어서 정확한 시점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진민정 기자 pur21@

# 오판·방치한 메르스... 2주만에 2명 사망·3차 감염자 발생

### 첫 사망자, 입원 6일만에 격리치료... 당국 부실대응 도마

#### 감염 6명 늘어 확진자 25명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대한 보건당국의 부실 대응 탓에 결국 바이러스 유행 2주만에 사망자 발생 및 3차 감염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보건당국은 지난달 31일 뒤늦게 민간 합동대책반을 꾸리는데다 처음 메르스 감염으로 사망한 사람도 병원에 온 지 6일 만에 메르스 의심환자인지 알게 되는 등 복지부는 무능한 대처 능력을 여실히 보여줬다.

여기에 앞으로 추가 확진자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면서 보건 수장인 문형표 장관은 물론, 관계자들 역시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2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사망한 메르스 의심환자 S(58·여)씨는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A(68)씨와 지난달 중순 B병원 같은 병동을 사용하다 메르스에 감염된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나머지 2명은 16번째 확진 환자인 P(40)씨와 지난달 말께 D병원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다 3차 감염이 됐고 앞서 P씨는 A씨와 같은 병실이 아닌 같은 병동을 사용했다.

문제는 보건당국이 애당초 지난달 20일 첫 메르스 확진 판정 후 A씨와 같은 병실을 사용한 환자, 보호자, 의료진 등에 대해서만 격리 관찰과 역학조사를 했다는 점이다.

이후 보건당국은 지난달 28일 6번째 확진 환자인 F(71)씨가 A씨와 같은 병실이 아닌 같은 병동에서 입원했던 환자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야 뒤늦게 역학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보건당국이 메르스 발생 초기부터 방역 대응과 관리를 철저하게 했다면 F씨를 신속히 치료하고 3차 감염도 막을 수 있었다.

보건당국은 지난달 31일이 돼서야 민관합동대책반을 만들고 B병원을 중심으로 역학조사를 다시 해 격리 대상자를 불과 이틀 만에 129명에서 682명으로 늘리는 등 능동 대응했다.

특히 사망한 S씨의 경우는 병원에 온 지 6일 만에 메르스 의심환자인지 알게 되는 등 복지부의 무능한 대처능력을 드러냈다.

사망자가 나온 병원의 관계자는 “당시 환자 상태가 워낙 위독한 상태로 병원에 왔지만 메르스와 관련 있다는 사실은 전혀 통보받거나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난달 31일 오후 8시쯤 당국의 통보를 받고 다른 환자나 의료진들을 격리했다. 일주일간 메르스 관련 치료나 격리는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보건당국은 메르스 치사율이 40%에 달할 때도 환자 1명당 0.6명을 감염시켜 전파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했지만 실제로 한국에서는 치사율이 비교적 낮고 감염력이 높은 양상을 보였다. 이것 역시 보건당국이 빗나간 예측을 한 것이다.

보건당국은 이 같은 오판을 이미 인정한 바 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메르스의 전파력에 대한 판단과 최초 환자에 대한 접촉자 그룹의 일부 누락 등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와 불안은 끼쳤다고 사과했다. 김부미 기자 boom@



국내 첫 메르스 환자와 같은 병원에 입원했던 의심환자인 여성A씨가 메르스 확진 이후 경기도 D병원에서 1일 오후 사망했다. 2일 오전 이 병원에 마스크를 쓴 병원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 특정 병원서 감염됐다는데... 정부 입단속에 답답한 민심

#### 비공개 원칙에 국민불안 가중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환자 대부분이 특정 병원서 감염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당 병원 이름을 공개하라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그렇지만 보건 당국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끝까지 이를 함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특정 병원의 중환자실이 폐쇄됐다는 등의 소문이 급속도로 퍼져 2차 피해를 내고 있다.

2일 보건 당국에 따르면 특정 시기를 전후해 그 병원에 있던 사람을 조사 중인 가운데 병원을 공개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와 과도한 걱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해당 병원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또 다른 나라도 국가격리 병상을 제외하곤 구체적으로 병원을 공개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문형표 장관 역시 “첫 번째 환자가 입원해 메르스가 확산된 병원을 휴원 조치한 상황에서 해당 병원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런 가운데 국내 첫 번째 환자(총 A, B, C, D 등 4명 병원에 외래 및 입원)가 입원해 15명에게 바이러스를 옮겨 전파시킨 B병원은 현재 휴업 상태다. 간호사가 확진을 받은 A병원과 의사가 확진을 받

은 C병원은 현재 정상 진료를 진행하고 있다. D병원에 남아있던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거나 시술, 또는 자택에 격리해 모니터링 중이다.

1일 기준으로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인 인원은 682명이다. 전날 보건 당국이 밝혔던 129명보다 훨씬 증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병원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권준국 국장은 “682명은 B병원에만 해당되는 자가격리 대상이다. 응급실 혹은 외래 방문 등 상황을 최대한으로 넓혀 조사하고 있어 이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자가격리자들 간 감염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전했다.

그런 가운데 병원 공개 여부를 두고 전문가들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 2003년 사스사태 당시 해당 병원이 알려지면서 지역주민들의 큰 반발을 산 사례가 있다. 국민성을 고려할 때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설명했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A병원 감염 내과 의사는 “의료진까지 감염된 위험한 상황이 된 만큼 정부가 확보한 메르스 환자와의 밀접 접촉자 명단을 공유해 감염자의 추가 발생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부미 기자 boom@

### 메르스 공포에... ‘쓰고 씻고’



메르스 감염 확진환자가 속출하면서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 위생용품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손세정제 등이 진열돼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 “바람둥이 남친, 내 아이 돌려줘” 3년 재판에 양육권 찾은 미혼모

남자친구가 10년 가까이 다른 여자를 사귀고 있던 사실을 알게 돼 결별을 통보한 미혼모가 3년간의 송사 끝에 아이를 되찾게 됐다.

법원은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도 아이를 키



웠다. A씨는 이듬해 결혼을 원하는 B씨의 집으로 들어가 출산을 준비했고, 20여일 후 아이 C를 낳았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이 기르던 강아지도 인 해 B씨와 심하게 다투게 됐고 A씨는 C를 그대로 두고 집을 나왔다.

B씨가 C를 돌려주지 않자 A씨는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고, B씨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C에 대한 양육권을 누 구에게 줄 것인지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양육권이 A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와 B씨의 모친은 A씨에 대해 아이를 버리고 나간 여자라고 비난하는 등 감정적인 대응을 해 왔다”며 “B씨를 양육자로 지정하게 된다 면 앞으로도 면접 교섭이 원활히 진행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영길 기자 jyg97@

## ‘소액채권금리 담합’ 증권사 6곳 벌금

#### 대우증권·유안타증권 등... 판결확정엔 3년간 신규인가 안돼

소액채권 금리를 담합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대우증권과 유안타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삼성증권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들 6개 증권사들은 ‘차별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결 확정시부터 3년간 신규인가를 받지 못한다. 또 5년간 다른 금융투자업자의 대우주가 될 수 없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박지영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우증권과 유안타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에 각각 벌금 5000만원을, 삼성증권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6개 증권사는 2008년 1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한국거래소에 국민주책

채권과 서울도시철도채권 등의 수익률을 미리 합의한 뒤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11월 소액채권 담합과 관련해 이번호 벌금형을 받은 곳을 포함한 증권사 20곳에 대해 19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6개 증권사들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서울고법과 대법원에서 연이어 패소했다.

최영길 기자 jyg97@

## 강영원 前 석유공사 사장 “최경환 지시 없었다”

#### 檢 ‘자원외교 1조 손실’ 소환조사... 배임 혐의 부인

외국 정유회사를 인수하면서 1조원대 국고를 낭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영원(64)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검찰에서 16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강 전 사장은 2일 오전 1시30분께 검찰 청사를 나서면서 최 부총리의 관여 여부를 묻자 “(최경환 당시 장관이) 지시하신 적은 없다. 보고는 저희가 했다”고 전했다. 또 부실 인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니 까...”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

사)는 전날 오전 10시 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와 정유 부문 자회사인 노스 아틀랜틱라이피닝(NARL) 인수 추진 과정을 자세히 캐물었다.

NARL의 부실한 시장가치를 제대로 평가했는지, 석유공사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인수를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않았는지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NARL 인수는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의 실패작으로 꼽힌다. 강 전 사장은 공기업 기관장 평가에서 2008년 C등급을 받

았지만 이듬해 A등급으로 뛰었다. 석유공사는 당시 하베스트와 회사 규모는 비슷하고 재무구조는 양호한 풀플러비 자원개발업체 ‘피시퍼 투비알레스’ 인수를 대안으로 검토하기도 했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이 NARL의 시장가치와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인수를 결정해 최대 1조3000억원대의 국고 손실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강 전 사장은 이날 조사에서 “정부 정책과 경제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소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수 기자 tearand76@

## “1년 미만 근로 퇴직자 유급휴가 보장 안해도 합당”

#### 현재 재판관 5:4로 합헌결정

근로기준법에서 1년 미만 근로한 중도 퇴직자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T주식회사 퇴사자 최모씨가 “중도 퇴직 전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해 유급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낸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소송에

서 재판관 5(합헌):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는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서 1년간 재직과 출근율 80% 이상을 요건으로 정한 것은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 필요성이 근로의 이행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장미·김창중·안창호·서기석

재판관은 “중도퇴직은 근로자 본인의 사정으로 인할 수도 있지만, 정리해고나 폐업처럼 전적으로 사용자 측의 사정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근로자들 대부분은 사업장을 바꿀 뿐, 계속 근로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차이가 없다”며 입법 미비가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최영길 기자 jyg97@

### 법정 선 박홍석 모뉴엘 대표 “회전거래 불가피했다” 주장

수조원대 허위수출을 통해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홍석(53) 모뉴엘 대표가 추가 사기 혐의에 대해 “자금 돌려막기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한 5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박 대표는 허위 수출 서류를 꾸며 시중은행 10곳으로부터 3조4000억원가량을 불법 대출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추가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모뉴엘의 HTPC 수출입거래는 이른바 ‘회전거래’로 빚으로 빚을 막는 카드 돌려막기와 동일한 구조”라고 밝혔다.

박 대표 측은 회전거래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통단계가 복잡한 해외거래 구조 특성 상 모뉴엘이 수출대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발생할 거래를 이미 이뤄진 것처럼 은행에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박 대표 측은 수출거래에서 물건을 운송하는 시점과 물품대금을 받는 시점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남은 모뉴엘의 해외지사장 등 증인 6명을 불러 심문할 예정이다. 다음 기일은 오는 30일에 열린다. 박은희 기자 silverline@

### 이 주의 주요 재판

####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첫 공판

이번 주에는 회사 돈으로 비자금 조성해 해외 원조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다. 또 수형선수 박태환씨에게 금지약물을 주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6) 병원장에 대한 2차 공판도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오는 3일 오전 10시 20분 425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회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오는 4일 오후 3시 522호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원장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연다. 박은희 기자 silverline@

# 이동식 은행 '포터블 브랜치' 뜬다

# 하나금융, 점포 콜라보로 '시너지'

### '소매+기업금융' '은행+증권' 박차 지남달 강남역지점·기업센터 통합 작년부터 PB→PIB복합금융 확대

하나금융이 소매금융과 기업금융을 통합한 콜라보레이션(협업) 점포 확대에 나섰다. 스마트금융의 발달로 점포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줄자, 점포 효율화 차원에서 소매와 기업금융을 통합한 복합금융점포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달 11일 강남역 지점(소매)과 강남역 기업센터(기업금융)를 강남역 금융센터지점으로 통합했다. 이에 통합지점 지점장도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줄었다. 소매와 기업금융의 협업을 통해 토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것이 하나은행의 계획이다.

앞서 지난 2월 하나은행은 강남대기업센터, 여의도

기업센터, 중앙기업센터내 RM(기업금융 전담역)팀을 인건 영업점으로 이전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기존 중소기업 RM팀은 이미 리테일 영업점에 배속시켜 영업을 하고 있다"며 "올 들어 정리된 기업센터들은 주로 대기업 RM팀 위주로 구성된 센터다. 대기업 RM들도 리테일 영업점에 배속시켜 함께 협업해 영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하나금융은 지난해부터 하나은행의 PB(프라이빗뱅킹) 점포에 하나대투증권의 IB(투자은행) 합류해 'PIB복합금융점포'로 개편, IB(투자은행)업무도 가능하도록 했다. 하나금융의 PIB복합금융점포는 현재 10개로 올해 내 17개를 추가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PIB복합금융점포는 자산가들의 자금을 관리하다가 기업 영업 부서와 연계해 고객 대표로 있는 법인의 자금을 유지 할 수 있다"며 "PIB는 업무간 콜라보레이션과 시너지를 창출하는 미래 새로운 성장동력"이라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kkk@

### 개인용 단말기로 각종업무 처리...지점운영비·인건비 '뚝'

### 전국 지점망 구축 못한 지방은행서 적극 활용 부산·경남銀 각 5대...과출수납창구 운영 대구·광주·전북銀선 소형점포 활발

은행들이 이익 감소, 스마트금융 확산 등에 따라 점포와 인력을 축소하고 있는 가운데, 인력 축소에 따른 업무 공백의 대안으로 '포터블 브랜치'가 떠오르고 있다. 은행들은 휴대용 단말기로 다양한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포터블 브랜치와 찾아가는 차량 이동점포,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되는 소형점포 등을 통해 줄어든 점포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의 포터블 브랜치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포터블 브랜치란 개인용 단말기 하나만으로 각종 은행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지점을 방문할 수 없는 고객들을 위한 방문 점포 서비스다.

많은 인력이 소요되지 않고, 판매관리비(지점 운영비·인건비 등)를 크게 줄일 수 있어 은행의 새로운 영업방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전국적인 지점망을 구축하지 못한 지방은행들이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부산은행은 2013년 3월 포터블 브랜치를 도입해 이동점포 차량 2대와 휴대용 단말기 5대를 운영 중이다. 차량점포의 경우 영업점에서 떨어진 기업이나 아파트 단지에서 요청하면 방문해 업무를 처리해 준다.

지난달 개점한 '경성대 스마트 지점'은 독립부스 형태를 갖추고 있다. 기존 스마트 지점이 영업점과 동일한 공간 내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

되던 것과는 달리 '경성대 스마트 지점'은 완전히 독립된 단독 점포로 운영된다. 지점보다 작은 규모의 영업소는 약 66개로 지점 개설에 비해 운영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

경남은행은 휴대용단말기 5대, 출장소 개념의 과출수납창구 29개를 통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구축했다.

대구은행은 차량점포 1대와 직원 3명을 운영 중이다. 운영 중인 소형점포는 52개로 지역에서도 지점 개설이 마땅치 않은 곳에 설치됐다. 큰 예산 업무가 아니라면 일반 은행의 모든 업무를 담당해 비용 절감과 소비자 만족 면에서 부족함이 없다.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은 새롭게 진출하는 경기지역 개척을 소형점포 형태로 방향을 잡았다. 광주은행의 수도권 지점 11개 중 서울에 6개, 인천 1개가 미니점포 형태로 개점했다.

전북은행은 수도권 19개 지점

중 서울 9개, 인천 5개, 수원 1개 등 총 15개가 미니점포다. 다만 광주·전북은행 모두 별도로 포터블 브랜치를 운영하지 않는다. 전북은행이 신원 확인 전담 인력을 5명 정도 갖추고 있다.

시중은행들 중 포터블 브랜치에 앞서 있는 곳은 우리은행으로 차량점포 2대, 휴대 단말기 5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출장소는 약 114개를 운영 중이다. 농협은행은 출장소 298개에 휴대단말기는 36개를 편성했다.

김우람 기자 hura@



2015 House View

## 시장을 먼저 읽어라

# 달러자산에 투자하라.



달러자산에 투자하세요. 해외투자,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안정적 가치상승이 예상되는 달러자산에 대한 투자를 더 늘려야 합니다. 특히 기술과 혁신의 중심인 미국은 1년이상 장기투자에서 가장 유망합니다.

### 대신증권 달러RP 특별판매

## 달러도 RP투자시대, 연 2.0% 수익률에 가치상승까지 추구한다

(3개월 예치시, 세전, 2015.04.06기준, 달러가치 하락시 손실 발생 가능)

대상: 개인고객(신규/기존)

한도: 개인별 1만\$ ~ 50만\$

수익률: 연2.0% (기본수익률 연0.9% + 추가수익률 연1.1%)

\*3개월 이후, 가입시점의 수시 RP이율 적용

고객 상담센터 1588 - 4488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의 특징, 수수료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고객님은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 후 자신의 책임과 판단 하에 투자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USD RP 인출금액은 달러화 표시 외화증권에 투자되며, 예금보통예금에 따라 예금보통예금이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판매회사 지급불능시 증권예탁결제원에 고객분으로 구분예탁된 유가증권(원금 105% 이상)을 모두 및 처분 가능) \*USD RP는 환율변동에 따라 원화 환산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USD RP 수익률은 일괄 시 당사가 고시하는 약정수익률이 적용되며, 당해 수익률은 시장금리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단, 수익률 변경 0천 배수 고객은 약정기간 종료 전까지 매수시 약정한 수익률을 적용) \*USD RP에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USD RP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대신증권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88-4488)로 문의 바랍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5-02693호 (2015.04.17~2016.04.16)



### 조화로운 숲처럼... 서로를 배려해요



교보생명은 올해 8월 말까지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빌딩과 강남 교보타워 등에 '평화문글판 여름편'이 걸린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여름편은 정화성 시인의 '숲'에서 가져왔다. 정화성 시인은 '저문 강에 삼을 씻고' 등 시대상을 차분한 어조로 표현하는 대표적인 시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글귀는 생김새나 종류가 다른 나무들이 조화를 이뤄 아름다운 숲을 이루듯 각자 개성이나 생각이 다르지만 서로 배려하고 포용하며 함께 나아가자는 뜻을 담았다.

사진제공 교보생명

## 퀵서비스 기사들 "대포통장 의심되면 신고"

### 금융사기범 운송료 5~7배 지불 특징 퀵서비스라이더연합회에 메시지

본의 아니게 직업상 대포통장의 운송책 역할을 해 온 퀵서비스 기사들이 금융당국의 '대포통장과의 전쟁'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대포통장으로 의심되는 수상한 운송을 적극적으로 신고해 대포통장 범죄 예방에 힘을 실겠다는 계획이다.

정호승 전국 퀵서비스라이더연합회 회장은 지난주 회원 1만3000여명에게 대포통장 근절 노력에 동참해 달라는 메시지를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발송한 메시지에에는 대포통장이나 대포폰, 대포차로 의심되는 물건이나 업자를 발견하면 금융감독원이나 퀵서비스 연합회로 신고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보통 금융사기범들은 대포통장 제공자가 나타나면 퀵서비스를 이용해 통장을 전달받는다. 이때 사기범들은 운송료를 5~7배 이상 과다하게 지불하는 등 독특

한 행동 양식이 있어 퀵서비스 기사들의 제보가 대포통장 적결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대포통장 적결을 위해 그 어느때보다 적극적인이다. 금융회사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기도 하고, 경찰청과 공조해 대포통장 근절 가두 캠페인과 합동 선포식 등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번 퀵서비스 기사들의 동참을 이끌어낸 것도 이같은 연선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적결 대책'을 발표하며 대포통장과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 이에 대포통장 유통자를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목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대포통장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해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왔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지난달 대포통장 발생 건수는 일평균 199건에서 139건으로 30.1% 줄었으며, 대포통장 관련 금융사기 피해자 수도 일평균 130명에서 92명으로 29.1% 감소했다.

홍성범 기자 byul0104@

## 저축은행, 1년간 미사용계좌 인출한도 줄인다

### 내달부터 70만원으로 하향조정

저축은행이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자동화기기(ATM·CD)를 1년 이상 거래하지 않은 고객의 현금인출 한도를 70만원으로 축소한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자동화기기 장기 미사용 계좌에 대해 오는 7월부터 인출 한도를 하향조정 한다고 밝혔다. 과거 1년 동안 자동화기기에서 출금·입금·이체거래를 하지 않은 계좌를 대상으로 한다. 현행 계좌별로 1일 600만원까지 인출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계좌별로 1일 70만원으로 한도가 축소된다. 다만, 고객이 직접 저축은행 창구에서 계좌인출 한

도 증액 요청시 종전 한도까지 인출이 가능하다.

자동화기기 장기 미사용 고객의 현금 인출 한도를 축소하는 것은 금융사기로 인한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금융사기의 상당수가 자동화기기 인출을 통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은행들이 제도 개선에 착수한 데 이어 저축은행도 시행에 나선 것이다.

올해 초 금융감독원은 1년간 미사용계좌의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한도를 1일 6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마련, 시중 은행들을 시작으로 증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여타 금융권으로 시행을 확대하고 있다.

이미정 기자 lmj@



# 존재감은 한면으로 충분하다



## 한 눈에 보이는 카드 혁신 **신한카드 B.Big[빅]**

### 한 눈에 빅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번호-결제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한 눈에.

### 한 장으로 빅

버스/지하철은 기본, 택시/KTX까지 모든 대중교통을 한 장으로.



VISA 퀵리드[QUICKREAD] 시스템 온라인 쇼핑에서의 결제 과정을 배려해 세계최초로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등 결제 정보를 카드 앞면에 일괄 배열

신한카드 **Code9** 시리즈 #5  
[신한카드 B.Big]

Mr. Routine + Prima Donna  
3040 직장인을 위한 카드

**대중교통 할인**  
- 버스/지하철 하루 최대 600원 할인  
- 택시/KTX 10% 할인

**영화예매 할인**  
- 인터파크/예스24 온라인 예매 할인  
- CGV 예매 할인

**통합할인 서비스**  
- 쇼핑/편의점/커피/통신비 5~10% 할인

연회비 S& 1만원, Visa 1만3천원, 연체시 연체이율 연 23.0~29.5% 신청 전 상품설명 및 약관을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신한카드 홈페이지 또는 1544-700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카드 남용은 가계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준법감시 심의필 150508-1133-001 [2015.5.19 현재 유효]

시장점유율 1위 카드사

BIG to GREAT  **신한카드**

# ‘농수산벤처·바이오·관광’ 세 옷 입힌다

## GS그룹,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농수산 재도약 글로벌 진출 도모... IoT 접목 신산업 육성  
칼텍스, 화학 인프라 기반 친환경바이오 생태계 구축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농수산 벤처 창업과 친환경바이오 생태계 구축, 웰빙관광 산업을 위한 트리플 엔진을 접목했다.

이석준 미래부 차관은 2일 “전남지역은 상당한 농수산 생산량과 노하우가 집적된 곳”이라며 “전남센터 출범을 계기로 농수산품의 재도약과 글로벌진출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GS그룹에서 유통경쟁력의 노하우를 접목해 판로구축에 도움을 주고, 석유화학에서도 여수산업단지지를 축으로 바이오화학 벤처투자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며 “농수산품에도 IoT(사물인터넷)의 첨단 기술이 도입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남센터는 전남지역의 지역적 특성에 맞게 농수산품을 고도화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이를 위해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센터’를 설치해 원스톱 통합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5명의 농식품 혁신코디네이터가 상주하면서, 유관기관의 창업 지원사업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고, 멘토링과 지원기관 등을 연계하는 방안도 도와준다.

레지던스 창업공간(21실)과 맞춤형 제작시설을 활용해 예비창업자·창년벤처를 대상으로 농수산 창업 분야별로 집중보육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특히 농수산에 IoT 기술 분야를 접목해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미래부와 농림부가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ICT)로 농업을 혁신하기 위해 손잡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는 실리콘밸리 ICT기업과 VC가 살리나스밸리에 농업전문 액셀러레이터인스타인랩 이노베이션 재단을 설립해 센싱기술로 농작물 재배를 지원하는 방식과 같다.

일례로 전국 전일업의 87%(27만톤)을 생산하는 전남의 전일업 생산과정을 자동화하는 작업이나 농작물 방제·방충예찰에 드론을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중 FTA를 계기로 확대될 중국시장 등을 겨냥한 한류 히트 농수산 식품 상품(K-푸드)도 육성할 예정이다.

전남센터의 두 번째 기능은 친환경바이오 생태계 구축이다. 전남 여수의 화학산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2015년 6월 2일 12번째 개소

본부: 전남 여수시 덕충동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총 2,978㎡, 901명)

목적(상업): 전남 목포시 석현로 정보문화산업진흥원 1층(총 132㎡, 40명)

<p><b>농수산 벤처 창업·육성의 거점</b></p> <p>농식품 벤처창업 지원센터 설치, 농수산 창업 특화프로그램 운영, 한류 농수산 수출상품 K-푸드육성</p>	<p><b>청정 자연환경을 활용한 웰빙관광 육성</b></p> <p>웰빙관광 K-투어 개발, 관광·6차산업 품질제고를 위한 교육·멘토링 등 프로그램 운영</p>	<p><b>친환경 바이오화학 생태계 구축</b></p> <p>바이오화학 거점 플랜트 구축, 친환경농약·비료 등을 제조하는 중소화학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육성</p>
--	---	--

농수산·관광·바이오화학 벤처 펀드 1300억원 조성

\* 출처: 미래부

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통해 향후 석유화학산업을 대체할 바이오화학산업을 육성하는 역할이다.

이 역할에는 GS그룹 계열의 GS칼텍스가 조력자다. GS칼텍스는 올해 중으로 바이오화학물질 생산을 위한 거점 플랜트 건설을 착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후방 연관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친환경바이오 상생협력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또 생물자원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친환경 농약과 비료 등을 제조하는 중소화학기업도 50여개를 육성하기로 했다.

전남센터의 마지막 기능은 전남지역에 보유한 전혜의 섬, 친환경 음식, 유무형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국제적인 웰빙 관광지로 육성하는 플랜이다. 앞으로 전남센터는 전남 관광자원을 지속 발굴·DB화하고, 빅

데이터 분석, 문화 콘텐츠 융복합,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히트 관광상품(K-투어)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으로는 섬 분야 대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중국관광객을 겨냥한 맞춤형 관광과 쇼핑 아이템 DB도 구축할 방침이다.

6차 산업으로 업그레이드시켜 질적수준을 제고한다는 목표로 설정했다. 6차 산업인 1차 산업인 농수산업과 2차 산업인 제조업, 그리고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이 복합된 산업을 의미한다.

전남센터는 6차 산업 육성차원에서 여행벤처, 6차산업마물, 숙박·요식업자, 공예가 등의 분야에서 교육·멘토링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남지역 2곳에 생산부터 가공, 판매, 체험, 관광에 이르기까지 결합된 친환경 농식품 드림파크를 조성하기로 했다.

양창균 기자 yangck@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TF 가동

양사 임직원 10여명으로 구성  
주총 거쳐 9월 1일 합병 마무리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이 가동됐다.

2일 삼성에 따르면 제일모직, 삼성물산 임직원 10여명으로 구성된 TF팀은 지난 달 29일 서울 서초동 삼성물산 사옥에서 키오프 회의를 열었다. 이번 TF팀은 양사에서 임원 1명씩 파견되고, 나머지는 실무 직원들로 구성됐다. TF팀은 오는 8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이날 키오프 회의는 양사 임직원의 상견례 형식으로 간단하게 진행됐다. 아울러 기업결합 신고, 양사 시스템과 회계정책의 정리 등 실무적인 내용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제일모직, 삼성물산은 지난달 26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합병을 결의했다. 양사는 7월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9월 1일자 합병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제일모직이 기준주가에 따라 산출된 합병비율인 1대 0.35로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방식이다. 합

병 이후의 사명은 삼성물산이다.

재계는 이번 합병 결정은 삼성그룹의 승계를 가속화하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달 1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문화재단 신임 이사장에 선임되며 승계의 시작을 알렸다. 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은 이를 본격화한 구체적인 ‘액션’이라는 것.

특히 이 부회장은 통합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로서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와 금융 계열 지배구조 정점인 삼성생명에 대한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가 가능하다.

현재 이 부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0.57%에 불과하지만 제일모직, 삼성물산을 합병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이 부회장의 지분은 합병 전 제일모직 23.2%에서 합병 후 통합 삼성물산 16.5%로 바뀐다. 통합 삼성물산의 오너 일가 지분 합계는 30.4%다. 현재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지분 4.06%를 보유하고 있다. 제일모직의 경우 삼성생명 지분 19.33%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또 삼성전자 지분 7.21%를 갖고 있다.

장효진 기자 js62@

## LG휘센 인버터 컴프레서 10년 무상보증



LG전자는 올해 생산한 에어컨과 제습기의 인버터 컴프레서를 국내 업계 최초로 10년 무상 보증한다고 2일 밝혔다. LG전자 모델이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LG전자 서초R&D캠퍼스에서 휘센 듀얼 에어컨 프리미엄 제습기를 소개하고 있다.

## ‘서울면세점’ 대기업 3.5 대 1·중企 14 대 1

### 제주 1곳에는 3개 기업 신청

서울 3곳, 제주 1곳 등 신규 면세점 4곳에 대한 특허신청을 마감한 결과 총 24개 기업(컨소시엄)이 신청했다.

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청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서울지역 2곳에 대한 일반 경쟁입찰에는 호텔신라와 현대산업개발 합작법인인 HDC신라면세점, 롯데면세점, 신세게디에프, 현대DF,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SK네트웍스, 이랜드면세점 등 7곳이

신청했다. 유통업계의 성장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인 관광객(유커)으로 인해 매출 급증세를 보이는 면세점 사업에 대부분의 유통 대기업들이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을 하는 서울지역 1곳 입찰에는 세종면세점, 유진디에프앤씨, 청하고려인삼, 신흥선건설, 파라다이스, 그랜드동대문디에프, 서울면세점, 중원산업, 동대문두티프리, 에스엠면세점, 하이브랜드두티프리, SIMPAC,

두티프리아시아, 동대문24면세점 등 14곳이 참여했다.

역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주 지역 1곳에는 제주관광공사, 엔타스두티프리, 제주면세점 등 3곳이 신청했다.

관세청은 신청 서류를 토대로 입찰 자격 충족 여부와 신청서 내용에 대한 검증, 입지에 대한 현장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관계부처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특허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발의 계획이다. 이선애 기자 isa@

## 하이트진로, 고알코올 맥주 이라크 이어 UAE에 수출

중동지역에 한국 맥주 바람이 거세다. 하이트진로는 중동 지역에 이라크에 이어 6월부터 아랍에미리트에도 맥주를 수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수출하는 제품은 국내에는 출시되지 않은 고알코올 맥주 ‘하이트스트롱(Hite strong, 알코올 6.4%·사진)이다. 하이트스트롱은 수출전용 맥주로 라거맥주 본연의 부드러운 목넘김을 유지하면서도 강하고 풍부한 맛이 특징이다. 높은 도수의 맥주를 선호하는 중동지역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춘 제품이다.

하이트진로는 이번 수출을 위해 아랍에미리트의 ‘할리데이 그룹(Holiday Group)’과 제휴를 맺었다. 할리데이 그룹은 주류 수입, 유통, 무역, 물류, 호텔 및 외식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연간 매출 규모 1조원 이상의 중견기업이다.

올해 수출목표는 6만 상자(20병 기준)로 컨테이너 30대 분량이다. 하이트진로는 2017년까지 연간 20만 상자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인집 하이트진로 해외총괄 사장은 “아랍에미리트는 이라크에 이은 두 번째 중동 전략시장으로 한국 맥주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중동지역에 한국 맥주 붐을 일으킬 수 있도록 현지 기업과의 제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철규 기자 yoonck@

## 대대적 할인에도... 車 판매 부진

지난달 내수 판매 12만1497대  
작년보다 0.2% 증가에 그쳐  
현대차 8.2%↓ 쌍용차 47%↑

국내 완성차업체가 지난달 내수시장에서 대대적인 할인을 실시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5월 판매 실적을 발표한 현대차·기아차·한국지엠·쌍용차·르노삼성 등 5개사의 내수판매 실적을 종합한 결과, 지난 달 판매는 12만1497대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2만1239대에 비해 불과 0.2% 증가한 수치다.

업체별로는 기아차와 쌍용차가 내수시장에서 선전했지만 나머지 업체는 전년 동월 대비 판매량이 줄었다.

기아차는 쏘렌토, 카니발 등 레저용차량(RV)이 선전하면서 5월 내수시 4만1000대를 판매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4% 증가한 수치다. 쌍용차는 티볼리 효과를 이어가면서 지난달 국내시장에서 작년 5월보다 47.1% 증가한 7753대를 판매했다.

현대차는 지난달 쏘나타, 아반떼에 36개월 무이자할부부 사상 처음으로 도입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 회사는 5월 내수시장에서 5만4990대 팔아 전년 동월 대비 8.2% 판매가 줄었다. 같은 기간 르노삼성은 11.6%, 한국지엠은 1.6% 각각 전년 동월 대비 판매가 감소했다.

해외시장은 국내보다 더 어려웠다. 국내 완성차 5개사의 5월 해외판매는 59만5388대로 전년 동기과 견줘 5.0% 감소했다. 현대차는 6.1%, 기아차는 7.0%, 쌍용차는 37.9% 각각 해외판매량이 전년 동월보다 줄었다.

완성차업체 관계자는 “신용시장을 중심으로 한 성장 둔화, 환율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등 어려운 시장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업체간 경쟁도 치열해졌다”고 설명했다.

반면 르노삼성은 نيسان 로그의 생산 효과로 수출이 늘었다. 르노삼성의 5월 수출 실적은 지난해 동기 대비 101.1%가 늘어난 1만2332대다. نيسان 로그는 총 9900대 수출되며 실적을 견인했다. 또한 SM3(수출명 플루인스)의 중국지역 수요가 늘면서 전달보다 67.4% 늘어난 1798대가 선적됐다.

한국지엠도 그동안의 수출 부진에서 벗어났다. 이 회사는 지난달 작년 같은 달보다 5.2% 늘어난 4만2474대를 수출했다. 한국지엠은 창원공장에서 지난 3월부터 GM의 브랜드 중 하나인 오펜의 칼을 생산하면서 수출이 확대되고 있다.

일부 업체의 수출 선전에도 국내 완성차 5개사의 5월 전체 판매는 감소했다. 현대차·기아차·한국지엠·쌍용차·르노삼성은 5월 국내외에서 71만6813대를 판매했다. 이는 지난해 5월과 비교하면 4.2% 줄어든 수치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 중견 선사, 동남아 노선 집중 공략

홍아해운·장금상선 등  
물동량 늘자 서비스 나서

홍아해운, 장금상선 등 국내 중견 선사들이 동남아시아 노선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들어 물동량이 늘어나는 등 동남아 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있어서다.

2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홍아해운은 지난 달 16일부터 한국-대만 노선 서비스를 신설했다. 이번 서비스는 홍아해운이 대만 선사인 TS라인(TS Line)의 한국-대만 서비스 선박량 일부를 공유하는 것으로 주 1항차 운행된다.

장금상선은 동남아시아 네트워크 강화 차원에서 지난해 7월 중단했던 필리핀 마닐라 서비스를 재개기로 했다. 창다오에서 첫 기항을 시작한 이 서비스는 현대상선 선박 일부를 용선하는 것으로 부산-상하

야-마닐라(남)-마닐라(북)-창다오 순으로 돈다.

고려해운은 지난달 인천항만공사, 중국 선사 SITC, 덴마크 선사 MCC와 함께 동남아 인천항과 베트남, 태국 항만을 연결하는 신규 컨테이너 항로(VTX4)를 개설했다.

국내 중견선사들이 이 노선에 대해 더욱 강화 전략을 펼치는 것은 최근 들어 물동량이 급증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인천항에 따르면 지난 4월 컨테이너 물동량이 20만TEU를 넘어섰다.

올해 인천항에서 월별 컨테이너 물동량이 20만TEU를 넘은 것은 4월이 처음으로 전년보다 1.6% 증가한 20만1046TEU를 기록했다. 특히 베트남 등 동남아 수출입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전체 물동량 상승세를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하유미 기자 js508@

## SKT, 자회사 ‘플래닛’ 부실 사업부 털어내나

‘클라우드 스트리밍’ 인적분할  
영업 정상화 한 뒤 매각 예상  
플래닛 IPO 수순 가능성도

SK텔레콤이 SK플래닛의 부실 털어내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장기적으로 SK플래닛의 기업공개(IPO)를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SK텔레콤은 100% 자회사인 SK플래닛의 ‘클라우드 스트리밍 사업부’ 인

적분할을 단행하고 새로운 자회사인 ‘클라우드 스트리밍 주식회사(가칭)’를 1일 출범시켰다. 신설법인인 30명으로 꾸러지고, 자본금은 6억5000만원, 자산 총계는 94억원 가량이다. 신설 사업부문의 최근 매출액은 16억9900만원이다.

스트리밍 사업부는 케이블TV나 IPTV의 셋톱박스를 클라우드로 올려, 셋톱박스 교체나 업그레이드 없이 클라우드를 통해 고도화를 진행하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문제는 이 사업부의 실적이 좋지 않다

는 점이다. 클라우드 스트리밍 방식으로 서비스를 하는 케이블 업체는 CJ헬로비전과 씨앤엠이 전부다. 이 가운데 씨앤엠은 시범사업 중이라 실제 매출로 이어질지도 미지수다. 이에 따라 업체는 SK텔레콤이 SK플래닛의 부실사업 부분을 털어내고, 해당 사업부를 영업정상화 한 뒤 매각하려는 움직임으로 관측하고 있다.

실제 인적분할은 삼성전자와 같이 크고 복잡한 기업이 경영효율화를 위해 단행하

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신설법인의 직원이 30명 내외고 최근 매출액도 16억99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부실 견여내기 보는 것이다. 이번 인적분할은 SK플래닛이 IPO 수순을 밟는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장동현 SK텔레콤 사장이 2018년 안에 SK텔레콤의 기업군을 모두 합해 100조 가치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SK플래닛의 IPO 없이는 공약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업계의 중론이다. 박성재 기자 psj@



## ‘한정판’ 캐릭터의 유혹 키덜트족 지갑 노린다

유통업체가 다양한 ‘한정판 마케팅’으로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피규어·캐릭터상품 수집을 취미로 하는 키덜트족의 소유욕을 자극하는 캐릭터 한정판 제품 출시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가방이나 신발, 화장품 등 패션·뷰티 아이템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한정판이 이제 식품업계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한정판 마케팅(limited edition marketing)은 희소성 있는 물건을 가지고 싶어하는 소비자의 심리를 자극해 구매욕을 불러일으키는 전략 기법이다.

롯데리아는 1일부터 전국 매장에서 ‘헬로키티 티 글로벌 피규어 한정판’을 판매한다. 헬로키티

롯데리아 ‘헬로키티’배스킨라빈스 ‘어벤져스...’ 식품업계 중심 피규어상품 한정판 마케팅 붐을 브랜드 가치·고객 충성도뿐 아니라 매출도 한몫

글로벌 피규어 한정판은 미국·한국·중국·영국 4개국의 국기를 헬로키티 캐릭터 의상으로 입혀 특별함을 더 했다. 또 피규어 전체를 금색으로 표현한 헬로키티 골드 한정 피규어도 함께 출시해 헬로키티 글로벌 피규어 5종으로 운영한다.

5종의 헬로키티 글로벌 피규어는 세트 또는 팩 1개 구매 고객 대상 1개의 피규어 제품에 한해 2000원에 판매된다. 헬로키티 글로벌 피규어 단품 구매는 종별 3000원에 판매한다.

롯데리아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헬로키티 캐릭터를 활용해 롯데리아에서만 즐길 수 있는 기분 좋은 경험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헬로키티 글로벌 피규어 한정판’을 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배스킨라빈스는 최근 ‘어벤져스 헬크·아이언 맨 케이크’ 2종을 한정판으로 선보였다. 케이크 취식 후 해당 캐릭터의 피규어를 소장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어벤져스 아이스크림은 ‘이달의 맛’으로 판매돼 전년 같은 달 이달의 맛 제품에 비해 40% 이상 판매가 늘어나는 등 큰 인기

를 끌었다. 배스킨라빈스는 어벤져스 관련 상품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최근에 15만개 한정판으로 미키마우스 피규어 컬렉션 11종을 판매해 화제를 모았다. 출시하자마자 품귀 현상을 보였고, 중고 거래 사이트에는 11종 세트가 정가의 2배인 11만원에 판매되기도 했다.

카페베네는 메뉴 판매기간을 한정해 주목을 받았다. 카페베네는 봄을 맞아 제철 과일 딸기를 이용한 메뉴 5종을 출시하고, 한 달도 되지 않아 총 15만개를 팔았다. 카페베네 관계자는 “특정 기간 동안 판매하는 메뉴나 시즌 이벤트는 고객의 호기심을 자극할 뿐 아니라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코카콜라도 한정판 마케팅을 잘 활용하는 기업으로 유명하다. 칼 라거펠트, 장 폴 고티에 등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들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스페셜 에디션을 꾸준히 출시해왔다. 이 외에도 월

드컵 에디션, 올림픽 에디션을 비롯해 플라베어 에디션, 크리스마스 에디션 등 다양한 버전의 한정판 제품을 출시하여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최근에는 코카콜라 병 100주년을 맞아 1920년부터 2010년까지 코카콜라의 대표적인 광고 캠페인과 캐릭터를 엄선해 10개의 패키지에 담은 스페셜 한정판인 ‘100년의 헤리티지 에디션’을 출시했다.

한정판 마케팅이 활발히 이뤄지는 것은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고 매출 증대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배스킨라빈스 어벤져스 케이크의 경우 일반 제품보다 판매량이 70%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븐일레븐은 미키마우스 피규어 판매 보틀간 약 10%의 매출 상승 효과를 봤다.

브랜드 가치도 올라간다. 네이버 카페 ‘코카콜라의 아름다운 세상’은 회원 수가 1000여명에 달하고, 코카콜라와 관련된 수집품을 모으는 정기적인 모임은 정보를 교환하면서 코카콜라의 가치를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

이선에 기자 lsa@

## 가보니

## 삼익악기 인도네시아 짙름공장

# 중 수출품 모두 여기서...‘삼익피아노’의 수출 심장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약 30km 떨어진 짙름시에 삼익악기 인도네시아법인과 생산공장이 자리하고 있다. 43만㎡의 부지에 3100명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이 공장은 삼익악기의 ‘수출 심장’으로 통한다. 주요 수출시장인 중국으로 향하는 제품들이 모두 이곳에서 출하된다. 최근엔 중국시장에서의 선전으로 잇단 증설이 계획돼 있는 상태다.

1일 삼익악기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만난 권희정 법인장은 “중국 피아노 시장이 연평균 30%씩 성장하고 있어 생산 용량을 늘리는 증설작업을 한창 진행하고 있다”면서 “올해 공장 2동 증설을 진행하고 있고, 내년엔 그랜드 피아노 증설을, 오는 2017년엔 기타 공장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계 유명 피아노 공장과 비교해도 규모와 첨단화 측면에서 뒤떨어지지 않는다”며 “설비도 최첨단으로 향상시켜 생산성도 높여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피아노 시장은 전 세계 판매량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최대 시장이다. 피아노 보급률도 지난해 기준 약 3%인 만큼, 전 세계 악기업체들의 경쟁도 치열하다. 삼익악기는 지난해 중국에서 45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올해는 540억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출에 주력하고 있는 삼익악기에게 중국시장은 꼭 넘어야 할 산이다.

권 법인장은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중국을 필



삼익악기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현지 직원들이 피아노를 제작하고 있다.

중국시장 5위권...‘빅3’ 목표  
그랜드피아노·기타 등 증설  
인도네시아·인도도 타깃으로

두로 미국, 유럽, 남아 지역을 공급하고 있다”며 “특히 중국시장은 향후 10년간 피아노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큰 시장인 만큼, 지난해 2만대에 이어 올해는 2만5000대를 공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익악기에 따르면 삼익악기는 중국시장에서 펠리버, 아마하, 파슨스, 하이퐁 등에 이어 5위권

에 해당한다. 중국가 시장에선 아마하, 파슨스에 이어 3위다. 이강록 삼익악기 부사장은 “중국에서 우선은 3위 기업이 되는 것이 목표”라며 “중고가 시장에서도 현재 점유율 17%에서 올해는 20% 이상 기록하는 것이 또 하나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삼익악기 인도네시아 공장은 현재 잇단 증설을 통해 가정용 피아노 4만대, 그랜드 피아노 6000대, 어쿠스틱 기타 35만대, 일렉트릭 기타 25만대를 연간 생산하고 있다. 이 같은 공장 증설과 함께 생산 거점인 인도네시아와 인도도 새로운 개척시장으로 꼽고 준비 중이다. 권 법인장은 “GNP 1만 달러 이상으로 성장하게 되면 인도와 인도네시아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자신했다.

짙름(인도네시아)=김정우 기자 thec98@

## ‘허니버터칩’ 품귀현상 끝나나

해태제과·강원도, 원주에 공장 건립 MOU  
240억 투입...내달 착공·내년 4월 완공예정

출시 10개월이 지나도록 계속되고 있는 허니버터칩의 품귀 현상이 내년 상반기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해태제과는 강원도 원주시와 함께 1일 원주시청에서 ‘허니버터칩 신규 공장 증설에 관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신정훈 해태제과 대표이사과 최순순 강원도지사, 원창목 원주시장은 이날 허니버터칩 생산공장을 현 문막공공 인근에 신규로 증설하는 MOU를 체결하고, 오는 7월 착공해 내년 4월 완공할 예정이다.

해태제과는 일본 가루비사와 공동으로 240억원을 투자해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에 허니버터칩 생산 공장을 건립한다. 신규로 증설되는 허니버터칩 생산공장은 부지 약 3만㎡에 건평 약 1만㎡ 규모이다.

해태제과는 신규 공장에 기존 공장의 생산라인 대비 약 2배 이상의 감자칩 생산설비를 도입한다. 공장

이 완공되면 허니버터칩 생산량은 현재 월 75억원 수준에서 최대 150억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강원도와 원주시는 출시 이후 품귀 현상을 빚으며 국민스낵으로 등극한 허니버터칩의 신규 공장 건립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의 신속한 이행은 물론 공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이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강원도와 원주시는 허니버터칩 공장 증설이 도내 약 100여명의 추가적인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세 수입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허니버터칩 증산으로 도내 감자 소비량도 3배가량 증가해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태제과 관계자는 “내년에 신규공장이 완공되면 허니버터칩 품귀 현상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이라며 “이번 MOU 체결을 통해 강원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감자칩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윤철규 기자 yoonck@

동아제약

### 동충하초로 만든 면역 관련 식약처 기능성 인정 건강기능식품 ‘동충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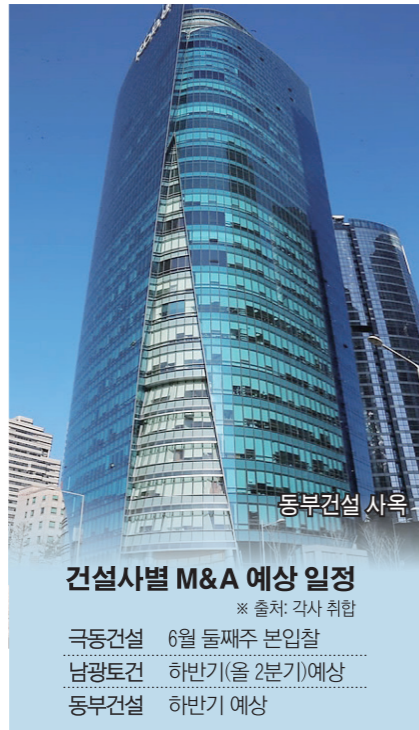
- ☛ 동아제약 자체 개발 및 인체적용시험 완료
- ☛ 국내 최초 동충하초 면역 관련 개별인정형 허가 취득(동충하초 주성추출물 1.5g/일(식약처 제 2013-16호))
- ☛ 스트레스 등으로 약해질 수 있는 면역 기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생리활성기능 2등급)
- ☛ 100% 국내산 발아 현미 동충하초 원료 사용(친환경 재배)

● 고객만족실 080-920-2002

동아제약 건강기능식품

# 부동산 훈풍 타고 건설사 M&A도 고!

주택경기 활기·영업실적 개선  
쌍용·동양 등 성공 '긍정 효과'  
극동, 이달 중순 본입찰 예정  
남광토건 '빛 다이어트' 주목  
동부, 하반기 매출 나올 수도



건설사별 M&A 예상 일정  
\* 출처: 각사 취합

극동건설 6월 둘째주 본입찰  
남광토건 하반기(을 2분기) 예상  
동부건설 하반기 예상

분양훈풍으로 주택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인수·합병(M&A) 시장에 나온 건설사들이 새 주인 찾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일 건설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M&A 시장은 최근 주택분양 호조와 건설사들의 영업실적이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운기가 감돌고 있다. 실제로 지난 1분기에는 쌍용건설을 비롯해 동양건설산업과 건영(옛 LIG건설)이 새 주인 찾기에 성공했다.

이로 인해 올 하반기 인수·합병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설사들도 순조롭게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은 경우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현재 주택시장 등 건설경기도 좋고 몇몇 건설사들의 인수·합병이 성공하면서 향후 M&A에 나서는 건설사들 역시 좋은 영향

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6월로 접어들어 후 M&A 시장의 포문을 여는 첫 번째 주자는 극동건설이다. 이 회사는 이번 달 둘째 주 본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매각 예상 가격은 700억원에서 900억원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본입찰이 실시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 금융업계 입장이다.

1974년에 설립된 극동건설은 시공능력 평가순위 34위의 중견 건설사이지만 외환 위기로 1998년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후 2003년 1700억원에 외국계 투자회사인 론스타에 인수됐다. 4년 후 웅진그룹의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가 론스타로부터 극동건설을 인수해 지배주주가 됐다. 주인이 2번이나 바뀐 극동건설은 2013년 웅진홀딩스로부터 독립을 하면서 지난해 8월 법정관리를 마쳤다.

금융업계는 지난해 극동건설에 대한 인수의향서(LOI)를 접수한 결과, 중견 건설사를 비롯한 외국계 기업 등 6개의 업체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광토건 역시 새 주인 찾기에 나선다. 이 건설사는 인수자들의 부담을 많이 줄이고자 회사의 현금 및(보증금액)을 3943

억원에서 809억원 수준까지 감소시켰다. 경영 정상화에도 박차를 가해 지난달 28일 조달청에서 발주한 장교한 건설공사 수주에 성공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총납당진시 장교한리 일원에 황반 외곽시설 1194m, 점안시설 553m 등을 짓는 공사다. 낙찰가는 약 411억원으로 이 중 남광토건은 80%의 지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주목받고 있는 건설사는 동부건설이다. 이 업체는 아직 M&A시장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오는 7월 3일 관계인 집회 이후 회생계획안이 인가가 되면 올 하반기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건설사 매각 가격에 대한 관심도 높다. 이 회사는 시평 순위 25위인 데다 매출로 나온 다른 건설사들에 비해 우량한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거론되는 극동건설의 매각 예상 금액을 뛰어넘을 것이라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회생계획안이 인가가 되고 그 시점에서 M&A가 진행될려면 적어도 6월 중으로는 매각 주관사가 선정이 돼야 한다"며 "동부건설은 이르면 7월에 시장에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경진 기자 jungkj@

## 서울 도심 vs 수도권 신도시

### 브랜드 상가 분양 '빅매치'



서울 도심 및 신도시에 들어서는 상가

권역	지역	사업명	연면적
도심권	서울시 중구 회현동	베네치아 메가몰	13만㎡
	서울시 마포구	딜라이트 스퀘어	4만5824㎡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강남역 효성 해링턴타워 더 퍼스트	1614㎡
신도시	김포한강신도시	카림에비뉴김포	2만4298㎡
	동탄신도시	동탄역 엘리스빌	2만9152㎡
	광교신도시	아브뉴프랑 광교	8만945㎡
	광교신도시	광교 힐스테이트 레이크	3521㎡
위례신도시	위례 우남역 KCC웰츠타워	3만4635㎡	

\* 자료: 리얼투데이

저금리... 수익형 부동산 각광  
배후수요 vs 희소성 공급 경쟁  
도심은 '마포 딜라이트스퀘어'  
신도시 '카림에비뉴 김포' 주목

또 초기 신도시들은 상가나 오피스텔 등의 비중이 낮아 희소성이 높은 데 반해 유입인구는 꾸준히 늘면서 임대수익 및 자산가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아파트 시장 훈풍과 함께 상가시장도 주목을 받아 건설사들은 상가 투자자들을 불잡기 위해 알다시피 브랜드 상가를 내놓고 있다. 대형건설사들은 자신들만의 브랜드를 앞세운 상가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또한 중견건설사들은 시리즈물을 통해 많이 알려진 브랜드로 수요층을 끌어들이고 있다.

도심권에서 주목할 만한 상가로는 △베네치아메가몰 △마포 딜라이트스퀘어 △'강남역 효성 해링턴타워 더 퍼스트' 등이 있다.

신도시에서는 △카림에비뉴 김포 △동탄역 엘리스빌 △아브뉴프랑 광교 △광교 힐스테이트 레이크 △위례 우남역 KCC웰츠타워 등이 주요 물량으로 꼽힌다.

다만 상가에 투자할 때에는 기존 도심권과 신도시 물량에 대해 서로 다른 시작으로 접근해야 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신도시 물량은 지금 당장 공실 때문에 힘들지 몰라도 아파트 단지 입주 등 주변 개발이 보장돼 장기적으로 매력적이다. 때문에 미리 움직일 경우 선매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기존 상권은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당장의 수익을 따져 보고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진입을 보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태진 기자 tipippo@



## LH, 세종시에 10년 공공임대 1164가구

새롭고 일대...중소형 6개 평형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세종특별자치시 새롭고 일대 2-2생활권 M2블록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1164호를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이 단지는 LH 아파트 건설 50주년을 기념한 디자인 특화단지 LH는 2013년 세종시 2-2M2블록에 디자인 시범사업을 추진해 13개 응모안 중 새로운 주거 패러다임을 제시한 이 작품을 선정했다.

'세종 Tomorrow City' 10년 공공임대주택은 59㎡ 294호, 65㎡ 24호, 72㎡ 64호, 74㎡ 267호, 79㎡ 45호, 84㎡ 470호 등 총 1164호가 공급된다. 특별공급으로 918호, 일반공급으로 246호를 공급하며 특별공급 미신청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된다.

특별공급은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세종시내 철거주택 세입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다자녀 등을 대상으로 공급되고 특히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공급물량의 30%가 배정된다. 일반공급은 지역제한 없이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자산보유기준과 소득기준(전용59㎡)을 충족한 경우 전국 어디서나 청약통장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세종시 2년이상 거주자가 우선 선정된다.

임대조건은 평형별로 다르다. 전용면적 기준 전세 환산시 59㎡는 1억800만원, 74㎡ 1억3300만원, 84㎡ 1억5300만원으로 차이를 등 인근 전세시세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공급일정은 5월 29일 입주자모집공고 후 8일부터 15일까지 청약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구성원 기자 carlove@

## 뜨거운 6월, 5만2천가구 '올 최대 분양'

작년 3배... 수도권 58% 차지

이달 전국에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물량이 올해 들어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인다.

1일 리얼투데이 집계에 따르면 전국 72곳에서 총 5만6852가구(임대,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제외) 중 5만1798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이는 지난해 분양실적 2만6134가구보다 두배 가량 증가한 수치이며 올해 들어 가장 많은 물량이다.

특히 지난해 동월 물량인 1만7209가구와 비교하면 그 수치가 세배 가까이 된다.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청약제도 완화 등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규제 완화정책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지방에 비슷한 물량이 공급된다. 수도권은 2만9913가구로 전체 분양물량의 57.7%를 차지한다. 이 중 서울은 565가구, 경기 2만5204가구, 인천 4144가구, 지방은 2만1885가구로 부산 4441가구, 경남 4229가구, 경북 2565가구, 강원 2213가구 등의 순이다.

이달에는 분양물량이 풍성한 만큼 각 지역별로 알짜배기 아파트들도 분양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물량 분양이 주를 이루는 서울에서는 역세권 단지의 '대치 SK뷰', '공덕더샵' 등이 공급된다. 경기권 역시 전철역을 끼고 있는 '인산 메트로타운', '광교신도시'가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특히 분양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위례신도시에는 '위례 우남역푸르지오'가 분양할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구성원 기자 carlove@

### 6월 수도권 주요 분양 단지

지역	단지명	총가구수	전용면적(㎡)	일반분양
서울	대치 SK뷰	240	59~112	50
	공덕더샵	124	99	86
	e편한세상 옥수	1,976	53~120	137
	위례신도시 보미	131	96	131
경기	위례 우남역푸르지오	620	83	620
	광교 더샵	686	84~91	686
	광교e편한세상 테라스	576	84~110	576
	인산 메트로타운	1,600	59~84	1,600
	푸르지오힐스테이트#	291	84	291
	광교신도시인더파크	291	84	291
	상동스카이뷰자이	405	84	405
	시흥목감신인스빌	576	69~84	576

스마트폰에서 (QR코드)로 확인하세요.

신간  
3년 안에 부자 되는 똑똑한 집테크  
똑똑하게 굴린 집 한 채로 인생 역전에 도전한다!

푸르미미 지음  
| 210쪽 | 13,000원

돈 한 푼 안 들이고  
20평대에서  
50평대로  
같이타기

3년 안에 부자 되는 똑똑한 집테크  
똑똑하게 굴린 집 한 채로 인생 역전에 도전한다!

가계부를 쓰면서 문화생활비, 학원비  
심지어 부모님 용돈을 줄이면 부자가 될 수 있는가?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은 '절약'이 아닌 '투자'다!

- 당신이 속고 있었던 진짜 재테크 이야기
1.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다
  2. 부도난 아파트가 돈이 된다
  3. 부동산 상승기에는 다음에 살 아파트를 미리 사라
  4. 투자의 승패는 사는 순간 결정 난다
  5. 이사하는 횟수만큼 부도 증가한다
  6. 돈은 차곡차곡 모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불려나가는 것이다
  7. 대출은 가능한 한 많이 하는 것이 좋다
  8. 지금 당장 가계부를 짚어라
  9. 분산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
  10. 같은 곳에 투자한다고 리스크가 같은 것은 아니다

# 美 기업, 5월 'M&A 광풍' 270조원 '사상 최대' 기록

2000년 닷컴버블·2007년 경제호황기 넘어  
차터, 타임워너케이블 인수 등 빅딜 잇따라  
초저금리 환경에 새 먹거리 찾기 움직임 분주

미국에 인수·합병(M&A) 광풍이 불고 있다. 미국의 지난 5월 M&A 규모가 2430억 달러(약 270조3375억원)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1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금융정보업체 딜로직의 집계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이전 최대였던 지난 2007년 5월의 2260억 달러와 그 뒤를 이은 2000년 1월의 2130억 달러를 뛰어넘는 규모로 현재 M&A 열기가 닷컴버블과 글로벌 금융위기 전 호황기보다 뜨겁다는 의미라고 FT는 풀이했다.

지난달 미국 기업이 관련된 주요 M&A를 살펴보면 케이블TV업체 차터커뮤니케이션이 경쟁사인 타임워너케이블을 550억 달러에, 브라이트하우스는 104억 달러에 사들였다.

싱가포르 아바코테크놀로지는 370억 달러에 미국 통신반도체업체 브로드컴을 인수해 기술 부문 최대 M&A 기록을 세웠다. 버라이즌커뮤니케이션이 아메리카온라인(AOL)을 44억 달러에, 소매업체 아세나

리테일은 앤(Ann)을 22억 달러에 각각 인수했다.

딜로직에 따르면 산업별로는 통신 부문이 922억 달러로 전체의 38%를 차지하며 가장 비중이 컸다. 기술 부문이 492억 달러, 20%로 그 뒤를 이었고 헬스케어는 338억 달러, 전력과 에너지가 195억 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초저금리 환경에 따른 낮은 자금조달 비용, 새 성장동력을 찾으려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의 의욕 등으로 올해 미국의 전체 M&A 규모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텔이 이날 데이터센터 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알테라를 167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밝힌 가운데 사모펀드인 아폴로글로벌메니지먼트가 배터리와 회로판용 화학제품 생산업체 OM그룹을 10억3000만 달러에 사들인다고 발표하는 등 6월에도 M&A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

JP모건체이스의 크리스 벤트레스카 글로벌 M&A 공동대표는 "그룹 자체 성장

**미국 5월 주요 M&A**

인수기업	피인수기업	규모 (억 달러)
차터커뮤니케이션	타임워너케이블	550
아바코테크놀로지	브로드컴	370
버라이즌커뮤니케이션	AOL	44
아세나리테일	앤(Ann)	22

\*전체 M&A 규모 2430억 달러  
\*출처: 파이낸셜타임스(FT), 딜로직

이 한계에 이르렀을 때 M&A를 통한 사업 확장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 증시는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다만 열기가 과도해져 인수가 급격히 치솟고 있다는 점에는 우려를 표했다. 이에 그는 "기업들이 변질한 조사를 통해 M&A의 근본적 이유가 되는 시너지 효과를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금리가 낮은 수준이어서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수월한 것이 M&A 호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미국의 회사채 평균 금리는 약 3%로, 2007년에 비해 반토막 난 상태다. 지난 4개월간 매출 발행된 회사채 규모는 1000억 달러를 넘었다. 벅코브아메리카메릴린치(BoAML)는 6월에도 발행 규모가 1000억 달러를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배준호 기자 baehj94@

## 중 양쯔강서 450여명 태운 여객선 침몰



중국 후베이성 창강(양쯔강)의 여객선 침몰 현장에 2일(현지시간) 구조대원들이 직접 구조작업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침몰한 '둥팡즈싱'호는 전날 저녁 9시28분경 승객 등 450여 명을 태우고 징수성 난징을 출발해 충칭으로 향하던 도중 사고를 당했다. 리커창 중국 총리가 사고 현장에서 구조작업을 진두지휘하고 있으며 사고 이후 2일 오전까지 약 20명이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창강/중국창강일보

## '여객기 참사' 말레이항공 대규모 구조조정

직원 30% 6000여명 감원  
필러 CEO, 9월 새법인 출범  
사업부문 재편 수익 개선



크리스토프 필러 신임 말레이시아항공(MAS) 최고경영자(CEO). 블룸버그

지난해 여객기 실종과 미사일 피격 등 잇단 사고로 경영 위기를 맞은 말레이시아 국영 항공사인 '말레이시아항공(MAS)'이 전체 직원의 30%를 감원하는 등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나섰다.

1일(현지시간) MAS는 전체 직원 2만여 명에게 근로계약만료 서류를 발송하고 이 가운데 1만4000여 명을 자사의 새 법인에 고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6000여명은 실직자 신세가 된다. 지난 8월 MAS의 대주주인 국부펀드 카자나 나시 오날'가 대규모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크리스토프 필러 신임 MAS 최고경영자(CEO)는 "신생법인의 일자리를 제안받

을 인정받고 있다. 이에 MAS의 첫 외국인 CEO로 영입됐다.

필러 CEO는 오는 9월 MAS는 신생법인을 출범시키고, 운영, 지원, 개발 등 9개로 신생법인의 사업부문을 재편해 수익 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MAS는 성역없는 구조조정으로 저가 경쟁이 지속되는 아시아에서의 경쟁력을 회복해 2018년에는 실적이 흑자로 전환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 영국 BBC는 항공사가 목표 달성을 위해 정보기술(IT) 담당자를 줄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유럽 노선을 축소하며 여객 노선에 더 집중할 것으로 예상했다.

MAS는 지난해 3월 승객과 승무원 239명을 태운 여객기가 남중국해에서 실종되고, 같은해 7월 298명을 태운 여객기가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미사일 피격으로 추락하는 등 대형 참사가 잇따라 발생하며 승객 감소, 보상금 지급 등으로 경영난을 겪어왔다.

정혜인 기자 haein2558@

## "그리스 디폴트 막자" 유로존 3강 비밀회동



왼쪽부터 장 클로드 융커 EU집행위원장-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블룸버그-AP/뉴스

"그리스 살리기"에 유로존 '3강'이 머리를 맞댔다.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놓인 그리스 사태를 논의하고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 장 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독일 베를린에서 1일(현지시간) 비밀 회동을 가졌다. 블룸버그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이 회의에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도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주요 안건은 지난 5개월동안 중지부를 찍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이었으나 비공개 회동이어서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그리스는 지난달까지 IMF, ECB, EU로

구성된 국제채권단과 구제금융 지원을 협상을 마무리짓겠다고 공언했으나 결국 '시한폭탄'과 같은 6월을 맞이했다.

구제금융 분할금 지원을 받지 못한 그리스는 오는 5일까지 IMF에 3억 유로(약 3637억5000만원) 상당의 부채를 갚아야 하고, 이달 중순까지는 12억2500만 유로를 상환해야 할 입장이다. 그리스가 국제채권단에 받아야 할 지원금은 70억 유로. 채권단과 합의가 이뤄진다면 충분히 회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구제금융 협상이 타결을 이루지 못하자 그리스 디폴트 위기가 다시 불거졌고 그리스와 채권단간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최근 프랑스 르몽드와의 인터뷰를 통해

"채권단이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협상불발은 비타협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의 태도 때문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치프라스의 인터뷰 보도 직후 메르켈 총리가 속한 독일 기독교민주당(CDU)의 마이클 후스 원내부총무는 "국제채권단을 비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그리스 경제는 바닥을 향해 치닫하고 있다. 그리스 은행의 예금 잔고가 1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가운데, 그리스 10년물 국제금리는 11.49%까지 급등했다. JP모건체이스는 "그리스의 장기 국채는 매도하는 게 좋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 '대박' 애플워치, 700만대 팔았다 "다리 8개 닦 판다?" KFC, 中매체 고소

4월 사전예약 이후 이달 말까지 750만대 출하 예정  
스포티파이 통한 유료 스트리밍 음악 서비스 출시

애플의 스마트워치 '애플워치'가 출시 이래 700만대 이상 팔리며 대박을 터뜨렸다고 1일(현지시간) 미국 CNN머니가 보도했다.

지난 4월 10일 사전예약을 시행하고, 같은 달 24일부터 본격적으로 판매에 들어간 애플워치는 현재까지 250만대를 출하했고 이달 말까지 500만대 이상을 추가로 출하할 예정이라고 CNN머니가 전했다. 이는 애플리스트들이 당초 전망한 실적의 2배에 가까운 수치다.

CNN머니는 "애플워치를 가진 사람이 매주 최소 15-20명의 사람에게 자신의 애플워치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를 본 사람들 가운데 1명 이상은 애플워치를 구매하고자 예약주문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 크리스마스는 '애플워치 크리스마스' 될 것으로 내다봤다. 1일 애플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0.2% 소폭 상승한 130.53달러에 마감했다.

한편 애플은 이날 유료 스트리밍 음악 서비스를 출시한다며 이를 다음 주에 열리는 '세계개발자회의(WWDC) 2015'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회사는 전 세계 스트리밍 서비스를 선도하는 '스포티파이(Spotify)'와 인터넷 라디오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이며 판도라와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의 요금은 스포티파이와 비슷한 월 10달러에 온디맨드(이용자 요구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할 전망이다. 그러나 스포티파이와는 달리 전체 음악 카탈로그를 무료로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초기에는 무료로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서비스 중인 '아이튠스 라디오'에 디스크자키(DJ)가 선곡과 진행을 맡는 채널을 추가하는 업데이트 작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아이튠스 라디오 무료 버전에는 광고를 삽입할 예정이며, 광고를 보고 싶지 않은 사용자는 연 24.99달러의 '아이튠스 매치'를 사용하면 된다.

정혜인 기자 haein2558@

식품안전 문제로 루머에 민감  
모회사 양브랜드 매출 9% 뚝

양브랜드가 운영하는 패스트푸드 체인 KFC가 중국에서 악성 루머를 유포한 미디어업체 3곳을 고소했다.

KFC가 선전 소재 임천안중공문화커뮤니케이션과 산시성에 있는 웨이루팡 테크놀로지, 링텐테크놀로지 등을 악성 루머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고 1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KFC는 웹사이트 상명을 통해 "이들 업체는 잘못된 정보를 소셜미디어에서 퍼뜨려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이들은 마이크로블로그에 KFC가 다리가 8개 달리고 날개가 6개 있는 닭을 팔고 있다고 주장하는 기사와 합성사진을 내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이들 업체가 사과문과 함께 각각 150만 위안(약 2억 6900만원)을 배상하고 이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 정부는 소셜 미디어 상의 루머를 없애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기업들이 인터넷 상에서 평판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강조했다.

회사는 이들에 어떤 법적 행위를 취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KFC는 식품안전 문제로 곤욕을 치른 데다가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시장점유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악성 루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 '버핏과의 점심' 경매, 하루 새 20배 경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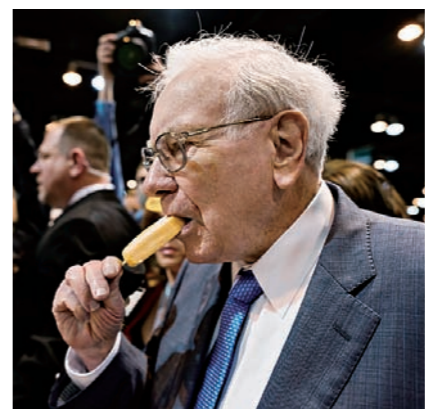
2.5만 달러서 52.5만 달러로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사진) 버크셔셔서웨이 회장의 점심 경매 열기가 시작부터 뜨겁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부터 온라인 경매업체 이베이를 통해 시작된 '버핏과의 점심' 경매가 하루 밤 사이에 20배나 뛰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버핏과의 점심 경매는 2만5000 달러에서 시작됐으나 하루새 52만5000 달러(약 5억8000만원)까지 치솟았다.

올해로 16번째인 버핏과의 점심 경매는 오는 5월에 끝난다. 낙찰자는 버핏 회장과 7시간 동안 점심식사를 함께 하며 다양한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갖게 된다.

버핏 회장은 경매로 거둔 수익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비영리 자선단체인 글라이드재단에 기부한다. 이 기부금은 생활 형편이 어려운 이들에게 음식, 의류, 주택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블룸버그

경매 역사상 가장 '비싼 점심값'을 지불한 이는 지난 2012년 익명의 낙찰자로 전해졌다. 당시 경매 낙찰가는 345만6789달러(약 38억원)였다.

한편, 버핏 회장의 점심 자선 경매는 2004년 고인이 된 그의 첫 번째 아내 수전 아이디어로 2000년부터 시작됐다. 버핏 회장과 글라이드재단과의 인연도 수전을 통해서 이뤄졌다.

서지희 기자 jhsseo@

KFC의 모회사인 양브랜드에서 중국의 매출 비중은 절반에 육박한다. 지난 1분기 양브랜드의 중국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 감소한 12억6000만 달러를 기록해 3분기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중국시장 부진에 그룹 전체 수익도 전년보다 9% 줄어든 3억6200만 달러에 그쳤다.

앞서 중국 언론들은 지난 2012년 11월 KFC가 호르몬과 항생제가 들어간 닭을 썼다고 폭로해 식품안전 문제가 대두됐다. 또 지난해 7월에는 KFC와 맥도날드 등 중국 매장에 식자재를 공급한 미국 OSI그룹의 상하이 자회사인 푸시식품이 유통기한이 지난 육류를 썼다는 사실이 적발돼 파문이 일기도 했다.

중국 인터넷 상에서 비방과 증오모략은 흔하며 법인이 이런 행위를 일삼는 인터넷 마케팅을 처벌하고 있지만 소문 확산 부담 때문 서방기업이 공개적으로 행동을 취하는 것은 드물다.

칸타르미디어의 샘 플레밍 설립자는 "중국 소셜미디어는 브랜드들에 대해 긍정적인 부정적인 소문을 양산하는 미디어업체들로 가득 차 있다"고 지적했다.

배준호 기자 baehj94@



장재진 오리엔트바이오 회장

임철순 칼럼



주필 겸 미래설계연구원장

## 불통 대통령에 먹통 총리?

극적 기독교인이기 때문이다. 그는 특히 종교인 과세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 같다. 2012년에 낸 저서 '교회가 알아야 할 법 이야기'에서 "담임목사가 아닌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 등의 사택에 대해 세금 부과 대상이 된다고 판결한 법원의 견해는 지극히 잘못된 것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했다. 그가 총리가 될 경우 내년부터 시행기로 한 종교인 과세에 변화가 오지 않을까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다.

불교계 시민단체들과 천주교, 원불교 단체들은 '황교안 국무총리 임명 저지를 위한 범종교인 연석회의'를 결성했다. 폐쇄적, 배타적, 공격적인 종교관에 의한 국정 운영이 우려되며 공직자로서 국민회합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황 후보자는 법무장관으로 지명된 이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5일간 근무했다고 1억여 원을 받았다고 한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은 그가 받은 수임료가 당초 알려진 15억 9000만원보다 1억1700여 만원 많은 17억700여 만원이라는 것이다. 차액이 장관에 지명된 이후 추가로 받은 급여와 상여금이라고 한다. 이 돈이 축하금이나 보람금이라는 비판에 대해 황 후보자는 "잘못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게 돈을 준 데는 명분과 이유가 있을 것이고 법적인 문제도 다 검토했을 것이다. 문제는 받는 사람이다. 장관에 지명된 상황이라면 몸가짐이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받을 수 있지만 받지 않으면 더 좋을 것이다.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는 것. 그는 이런 걸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불통 대통령에 먹통 총리가 걱정스러운 것이다.

황 후보자는 지난 4월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애국가 4절까지 완창하지 못한 검사들에게 "헌법 가치 수호의 출발은 애국가"라고 훈계했다고 한다. 장관 축사를 읽던 그는 "헌법 가치 수호는 나라 사랑에서 출발하며 나라 사랑의 출발은 애국가"라며 "기본이 애국가인데 다 잘 부를 수 있어야 한다"고 원고에 없는 말을 했다. 그가 장관으로 부임한 이후 법무부 주관 행사에서는 대부분 애국가 4절까지 부르고 있다.

2010년 7월 제정된 국민예례규정에 따라 정부 행사에서는 반드시 애국가를 불러야 하지만 4절까지 다 부를 필요는 없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2013년 2월 취임 후 첫 31절 기념식에서 4절까지 부른 다음부터 '애국가 스트레스'가 번지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9일 청와대 회의에서 영화 '국제시장'을 언급하며 "부부 싸움을 하다다가 애국가가 퍼지니까 경례를 하더라. 그렇게 해야 나라라는 소중한 공동체가 어떤 역경 속에서도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한 이후 공직자들은 '애국'을 더 의식하게 됐다.

애국가를 4절까지 다 부를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4절에는 '이 기상과 이 맘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라'는 애국가의 핵심적 가사가 나온다. 하지만 4절까지 안 부를 수도 있다. 문제는 강요하거나 강제하는 분위기이며 그러지 않는 이들을 '비애국가'로 보는 것이다.

종교문제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가 전도사로 활동해온 적

클 수 있다.

황 후보자는 지난 4월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애국가 4절까지 완창하지 못한 검사들에게 "헌법 가치 수호의 출발은 애국가"라고 훈계했다고 한다. 장관 축사를 읽던 그는 "헌법 가치 수호는 나라 사랑에서 출발하며 나라 사랑의 출발은 애국가"라며 "기본이 애국가인데 다 잘 부를 수 있어야 한다"고 원고에 없는 말을 했다. 그가 장관으로 부임한 이후 법무부 주관 행사에서는 대부분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고 있다.

2010년 7월 제정된 국민예례규정에 따라 정부 행사에서는 반드시 애국가를 불러야 하지만 4절까지 다 부를 필요는 없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2013년 2월 취임 후 첫 31절 기념식에서 4절까지 부른 다음부터 '애국가 스트레스'가 번지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9일 청와대 회의에서 영화 '국제시장'을 언급하며 "부부 싸움을 하다다가 애국가가 퍼지니까 경례를 하더라. 그렇게 해야 나라라는 소중한 공동체가 어떤 역경 속에서도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한 이후 공직자들은 '애국'을 더 의식하게 됐다.

애국가를 4절까지 다 부를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4절에는 '이 기상과 이 맘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라'는 애국가의 핵심적 가사가 나온다. 하지만 4절까지 안 부를 수도 있다. 문제는 강요하거나 강제하는 분위기이며 그러지 않는 이들을 '비애국가'로 보는 것이다.

종교문제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가 전도사로 활동해온 적

## 소통과 조직 활성화가 담이다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블랙드 피트와 케이트 블란켓이 주연으로 나온 '바벨'이라는 영화를 감명 깊게 본 기억이 있다. 영화를 볼 때 내용이 난해하기도 하고, 상영시간이 140분이 넘어 조금은 지루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득문득 생각나기도 하고 세월이 지나면서 영화의 이야기가 오히려 더 공감됐다. 바벨은 영명칭으로 명가지는 여러 개의 이야기가 옴니버스 식으로 합쳐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소통'이라는 주제가 전체를 관통하고 있고 서로 연결돼 있는 잘 짜인 이야기다.

등장인물들은 소통이 되지 않는 상황에 증폭되지만 하는 위험 속에서 온갖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런 소통의 문제는 비단 영화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기업에서나 정치, 하물며 가정 등 사람이 살아가는 그 어느 곳에서나 발생하기 마련이다.

소통의 사전적 의미는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는 상태'를 일컫는다. 한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다른 사람의 머릿속으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해 없이 잘 통하도록 전달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렇기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조차도 소통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잭 웰치는 "경영은 소통, 소통, 소통"이라고 했고, 휴렛팩커드는 공장 복도에 "Communication! Communication! Communication!"이라고 써 붙이기도 했다.

소통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어느 조직이든 구성원들이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통할수록 더 많은 성과가 나오고 조직의 발전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특히 잭 웰치 성공신화의 방정식을 단순화하면 '일체화라 할 수 있는데, 대화와 토론을 통해 끊임없이 소통했다고 한다. 그리고 결국엔 조직원 모두가 한 방향을 바라보게 됐다.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

히 조직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고, 활성화된 조직은 조직 그 자체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팽팽거리게 된다.

필자가 실험동물 사업을 해 오면서 세계 최고의 실험동물 다국적 기업이자 CRO 기업인 찰스리버, 코반스와 손을 잡게 된 것도 규모 면에서 우리가 비교도 안 되지만, 서로의 뜻을 헤아려 통하는 소통의 결과라 볼 수 있다. 또 국내 시장의 여건이 아직 충분치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품질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임을 입증된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다. 어려운 과정을 함께 극복해 지금에 이르렀기에 우리가 보급하는 여러 실험동물이나 제품들은 어느 기업 제품보다 굵고 진한 탄방울이 여러 스토리를 담고 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를 바탕으로 서로 힘을 합쳐 다음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에서 경영의 신이라 불리는 이나모리 가즈오는 '기업을 성에 비유하면 사람은 돌담'이라고 했다. 큰 돌만 사용해서는 돌담을 만들 수 없다. 큰 돌과 큰 돌 사이에 작은 돌을 채워 넣어야 비로소 견고한 돌담이 만들어져 성을 지킬 수 있다.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고,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 모두가 소중한 재산이다. 또 "지혜가 있는 자는 지혜를 내고, 지혜가 없는 자는 맘을 흘려라"라는 말도 했는데, 이것이 바로 조직이 발전하는 방법이고 그 기저에 소통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루 한 생각 6월 2일 衛正斥邪(위정척사) 바른 것을 지키고 사악을 물리친다

의병을 일으켜 나라를 구한다는 정의구국(正義救國)은 필연적으로 위정척사(衛正斥邪)로 연결된다. 위정척사는 바른 것을 지키고 옳지 못한 것을 물리친다는 말인데, 나와 나의 정신은 옳고 이를 침범하는 외부 세력이나 생각은 사악한 것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 사불범정(邪不犯正), 사악한 것이 어찌 감히 바른 것을 범하겠느냐? 물러가라'는 게 위정척사 세력의 의식이었다.

이 사상은 주자학적 화의의식(華夷意識), 중국 외에는 다 오랑캐라는 생각이 바탕을 둔 것이다. 우리는 소중화(小中華)를 자처할 만큼 존명배정(尊明排清) 의식에 빠져 있었

으니 보수성과 배타성이 강할 수밖에 없었다. 유럽은 이질적 문화를 무조건 비문화(非文化)로 생각해 다른 종교와 사상을 이단이나 사학(邪學)으로 배척하고 개혁에 저항했다. 위정척사 사상은 천주교가 들어온 정조 때 이미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 뒤 서세동점(西勢東漸)이 본격화한 19세기 중반, 서구의 침략이 가시화하자 일종의 '유교적 근본주의' 운동으로 전개됐다고 할 수 있다. 위정척사라는 병인양호(1886) 이후 쇄국정책을 지지했으며, 운양호 사건(1875)을 계기로 문화개방 논의가 본격화될 때 개항에 극력 반대했다. 이들은 전통적 사회 체제, 양반 중심의 신분제를 지키고자 했다.

위정척사론에 민족주의적 성격이 있어 우리의 주요한 근대사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중세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이론이라는 점에서 근대화 과정에서 극복해야 할 사상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 목적이 국권 수호와 체제 유지에 한정돼 있을 뿐 개혁기에 우리 역사가 지향해야 할 국민국가 건설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위정척사를 부르짖은 선비들의 순일(純一)한 지조와 맑고 곧은 충절은 우리 정신사의 소중한 유산이다.

임철순 주필 겸 미래설계연구원장 fusedtree@

오늘의 **배극남** www.baekn.com

### 뮤지컬 '데스노트' 흥광호

배극남닷컴은 1일 뮤지컬 배우 흥광호를 인터뷰했다. 흥광호는 뮤지컬 '데스노트'에서 데스노트를 통해 신세계의 신이 되고자 하는 라이트 역할을 맡는다.

이날 서울 반포 가빛섬에서 열린 쇼케이스에서 흥광호는 "한 국말로 공연을 할 수 있다는 게 이처럼 고마운 일인지 알지 못했다. 고국 관객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에 밤잠도 설치고, 긴장도 됐다. 연습실에서 기분 좋은 긴장감이 흐른다. 느낌이 굉장히 좋다"고 말했다.

최근 웨스트엔드 뮤지컬 '미스 사이공'을 마치고 귀국한 흥광호는 원캐스트(One Cast)로 이번 무대에 선다. 흥광호는 "저희가 사람인지라 5분 후의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른다. 아플 수도 있다. 부담감은 있고 걱정도 된다. 좀 더 완성도 있는 작품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아프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물론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 서울대 1000원짜리 학생 식당, '반값 아침' 좋겠다

서울대 학생회가 1700원인 아침 식사를 1일부터 1000원으로 인하했다. 해마다 2억원 정도의 적자가 날 것으로 예측되지만, 학생복지 기금과 모금 등을 통해 충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네티즌은 "학생들의 건강은 미래 우리나라의 엄청난 자산입니다. 고작 한 끼 식사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 아닙니다. 이런 훈훈한 소식이 들려 다행입니다", "보조금에 면세 혜택을 받는다 쳐도 평균적으로 280명에게

1000원짜리 급식이 된다는 소리구나. 다른 대학들은 자극 좀 받아야 돼", "반값등록금보다 현실적으로 더 와 닿는다", "전남대에서 먼저 시작했지만, 전국으로 조금씩 확산하는 것 같군요. 빨리 벤치마킹해라", "1996년 서울대 아침 식사 1000원이었죠. 그 이후 올라서 한동안 1700원 고정이었었는데, 20년 전 가격으로 다시 돌아갔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송형근 기자 xl2xsado@

## 퍼터는 레이콕이 좋습니다

알에스스포츠 TEL. (02)3280-9607

데스크 칼럼

걸음마도 못 뎀 한국 크루즈산업

바다 위 호텔로 불리는 크루즈 관광산업이 유럽과 미국을 넘어 동북아시아에서도 새로운 블루오션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 중심에는 세계 관광산업의 큰손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 관광객이 있다.

아직 중국 크루즈 관광객 수효는 100만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 전 세계 크루즈 관광객 2000만명의 5%밖에 되지 않는다. 현재 북미와 유럽 크루즈 관광객이 약 87.5%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크루즈요트산업 협회에 따르면 2030년에는 중국 크루즈 관광객이 1000만명으로 급성장해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 크루즈 관광 수요의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미 아시아시장에서는 세계적인 크루즈 선사인 카니발·로열캐리비안·스타크루즈 등 3개 선사가 43척의 크루즈선을 운항하고 있다. 중국도 10년 전부터 크루즈 육성에 힘써 현재 두 개의 국적 크루즈선사를 운영한다.

크루즈 산업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아직 첫걸음도 떼지 못했다.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이 몇 년째 표류하다 올해 초 겨우 통과한 수준이다. 당시 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고 탄식할 정도로 뒤늦은 법안 통과였다.

법안은 통과됐지만 최근 내국인 카지노 출입 허용 문제로 다시 논란이 되면서 크루즈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결국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내국인 카지노 출입 허용 문제와 상관없이 먼저 국적크루즈선이나 한국을 모항으로 하는 크루즈선을 올해 안에 출범시키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만큼 해수부 처지로서는 크루즈 사업의 첫발을 내딛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필자는 지난달 20일 중국 상하이에서 만났던 정웨이항



신 동 민 세종취재본부장

중국 크루즈요트산업협회 회장에 크루즈 사업을 시작하는 우리나라에 어떤 조건을 해줄 수 있는지 물었다. 그는 지체없이 “한국 국적선사가 아니더라도 일단 먼저 시작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정웨이항 협회장은 “공해에 나가면 국제표준의 국적선사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며 “글로벌 국적선사 몇 군데가 시장을 장악한 상황에서 동등한 경쟁 없이는 크루즈 산업을 육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크루즈 산업은 국내 선사 간의 경쟁이 아니라 4-5개의 글로벌 국적선사가 독식하는 시장에서 파이를 나눠 먹어야 한다는 정웨이항 협회장의 말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우스갯소리로 요즘 제주도에선 계란을 구하기 어렵다고 한다. 중간급인 11만톤 크루즈선 하나만 제주에 들어와도 승객과 승무원 등 약 5000명이 넘는 인원이 먹음 계란을 싸출 이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크루즈선은 필요한 물품 대부분을

현지에서 조달하기 때문에 이들이 먹고 마시는 물품만 5톤 트럭으로 5대 분이어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무엇보다 크루즈 관광객이 지난해 제주나 인천 등 기항지에서 쓴 돈이 1인당 평균 117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크루즈 관광객이 100만명이다. 특히 11만톤 크루즈선 한 대의 일자리 창출효과는 승무원만 1800여명이고 관련 일자리를 따지면 이보다 2-3배 더 늘어난다. 해수부가 추산한 크루즈 산업의 규모는 2020년까지 1조원 정도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동북아시아 크루즈 시장에서 아직 걸음마도 떼지 못한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 등 다른 아시아 국가와 경쟁하기에는 힘이 벅다. 내국인 카지노 허용 문제로 다시 크루즈산업이 표류하는 것은 소모적인 정쟁에 불과하다.

크루즈선을 타보면 선상카지노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오픈돼 있다. 배팅 금액도 1-2.5센트에 불과해 실제 1인당 배팅금액은 4백5십 크루즈선을 탔을 때 8만-9만원 수준이다. 무엇보다 선상카지노는 공해상에서만 가능해 실제 운영 시간이 하루 8시간을 넘기 어려운 데다 여행 비용이 최소 70만원에서 보통 100만원을 넘어서 도박을 하고자 크루즈선을 이용하기에는 무언가 맞지 않는다. 굳이 내국인이 아닌 비용을 들여 도박을 하기에는 강원랜드보다 여건이 좋지 않다.

크루즈 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선상카지노 허용 문제 논란에서 벗어나 대승적인 차원에서 산업 육성에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 지금도 크루즈 시장을 놓고 일본이나 중국과 경쟁하기에는 턱없이 늦은 만큼 아까운 골든타임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lawsdm@

조남호의 중구난방

산업국 산업2팀장

새 수장 맞은 석유화학협회

2개월여 동안 공석으로 비어 있던 한국석유화학협회의 신임 협회장에 최근하수영 롯데케미칼 대표이사 사장이 취임했다. 지난 3월 말 신임 협회장 후보로 추대되고 나서 2개월여 장고 끝에 내린 결단이었다.

한국석유화학협회는 우리나라 화학 산업을 대표하는 단체로 협회장은 2년 임기의 비상근 명예직이다. 석유업계에 대해 잘 모르는 이가 있다면 “누구나 원하는 자리일 텐데 왜 공석이이지?”, “업계를 대변하는 협회장에 추대됐는데 왜 결단까지 필요하지?”라고 생각할 법하다.

사실 협회장 인선은 이전에도 수월하게 진행됐던 적이 드물다. 한 화학회사 대표는 협회장에 나섰다가 외국계 합작사라는 이유로 거부됐다. 또 송사에 연루돼 포기한 CEO가 있다가 하면, 어떤 이는 전문경영인이 아니라 오너이기 때문에 협회장에 부적합하다는 평가에 부딪히기도 했다.

이번 18대 회장 인선 역시 마찬가지였다. 협회장을 돌아가면서 맡았던 업계 빅4 대표 중 LG화학 박진수 부회장은 회사 경영에 충실하겠다는 고사했고,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은 금호아시아그룹과의 경영권 분쟁 등으로 협회장을 맡기에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 17대 협회장인 방한홍 한화케미칼 고문은 대표이사에서 물러나면서 사실상 연임이 불가능해 최종적으로 협회장이란 ‘계류’이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에게 넘어갔다.

이렇듯 협회가 출범한 지 40년 만에 사상 초유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위기에 놓였던 이유는 그 누구도 ‘총대’를 메기 싫어했다는 데 있다. 얼핏도 나쁜 데다 시기적으로 업계 대표로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야 하는 자리가 보니 마땅히 나서려는 CEO가 없었던 것이다.

현재 석유화학업계는 탄소배출권 시행을 비롯해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등 정부와 풀어야 할 긴급한 이슈들이 산적해 있다. 석유화학회 회원사 36곳 중 16곳은 지난 2월 정부



의 탄소배출권 할당량이 부당하다면서 서울 행정법원에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지난 1월부터 시행된 화평법과 화관법은 석유화학 업계는 비용 부담 및 정보유출 가능성 등의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화평법과 화관법은 산업계의 화학물질 취급 지침을 담은 법으로, 화평법에는 국내에서 제조·수입되는 모든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의 특정 화학물질을 등록하고 심사·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화관법에는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벌 규정이 포함됐다.

여기에 주요 수출국의 자금을 확대와 공급과잉,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 환율 및 유가 등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경영 환경에 놓이면서 주요 회원사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감소를 경험했고, 이들 회원사의 CEO는 회사 정상화에 주력하고 있다.

협회장 직이 ‘뜨거운 감자’ 취급을 받는 동안 석유화학협회 역시 업계의 외면을 받기에 이르렀다. 업계는 협회를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이익단체로 보지 않고, 정부나 기관의 필요에 의해 정부 기관으로부터 작·간접 지원을 받는 ‘관단체’로 평가절하하고 있다.

허수영 사장의 협회장 취임을 계기로 협회가 ‘한국석유화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석유화학에 관한 정책의 입안 및 수행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는 단체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본다. spdran@

개성 신 현 복 한라 홍보이사
참새

기자수첩 박 상 영 세종취재본부/sypark@
정부부터 간접고용 줄여라

참새는 결코 건지 않는다
아무리 짧은 거리도 부리가 닿지 않으면 반드시 날거나 편다
기와의봉 추녀 틈 참새집을 기억한다
유년의 작은 손으로도 간신히
몇 뺨은 파고들어야 닿을 수 있었다
박이를 물고 동지에 이르기까지
그 거칠고 비좁은 생(生)을 뽐뿌뽐뿌
정수리 알마나 아팠을까?
비닐봉투를 들고 환하게 웃지만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당신을 추억한다
머리 거진 다 빠진 정수리를
가려운 적 극적이며 들어왔다
허공에도 거칠고 비좁은 골목이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 어젠다로 청년 고용 문제를 꺼냈다. 최 부총리는 1일 열린 기재부 확대 간부회의에서 “청년 고용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과감한 지원을 검토하되 그동안 관성적으로 지원하던 대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줄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정부도 최근 구조조정을 기록하고 있는 청년 실업률이 구조적인 요인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 청년 해외취업 촉진 방안 등의 정책을 쏟아냈다. 그러나 청년 실업률은 줄어들기는커녕 4월에 10.2%를 기록하며 4월 기준,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도 “2013년 기준 핵심생산인구(30~54세) 실업률 대비 청년(16~29세) 실업률을 보면 한국이 3.5배로 22개 OECD 조사 회원국 가운데 가장

이투데이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이종재 주필 임철순 편집국장 강혁
는심실 (02)799-2657 온라인뉴스부 (02)799-2640 사진팀 (02)799-2634
정치경제부 (02)799-2650 자본시장부 (02)799-2658 금융시장부 (02)799-2665
산업부 (02)799-2664 미래산업부 (02)799-2663 부동산시장부 (02)799-2661
문화부 (02)799-2669 사회팀 (02)799-2656 국제팀 (02)799-2654
광고접수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신청 배달안내 (02)799-2684
www.etoday.co.kr 2010. 10. 4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156-807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이투데이빌딩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부자의 그릇
부자의 그릇
나는 평생 부자가 되지 못할 줄 알았다!
25만 명의 삶을 기적적으로 변화시킨 최고의 부자수업, 『부자의 그릇』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자신의 그릇만큼 담는다
“나는 왜 부자가 되지 못하는 걸까?” 월급이 적어서? 재테크를 못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모이지 않는 이유를 이런 기술적이거나 방법론적인 문제로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질문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돈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질문을 바꿔보면 보다 근본적인 돈의 본질을 볼 수 있다. 부자가 되려 하기 이전에 돈을 다루는 능력, 즉, 자신의 그릇을 키워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각자 다를 수 있는 돈의 크기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누군가 아무리 많은 돈과 기회를 준다 할지라도 자신의 그릇만큼만
답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젊었을 땐 돈을 버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어보니 돈이 와서 담기는 것이더라”며 이야기를 시작한 부자는 부자의 1, 2단계, 즉 남을 위해 돈을 벌거나, 나를 위해 돈을 버는 단계를 뛰어넘어 3단계인 ‘남이 나를 위해 돈을 벌여주는 단계’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7시간 동안 나는 노인과 이야기를 듣다 보면 선택, 경험, 신용, 리스크 등 부자들이 돈에 대해 생각하는 그릇의 크기를 깨우치고, 피부에 와 닿는 현실적인 조건을 통해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씩 변하는 것을 느낄 것이다.
실제로 일본에도 이러한 ‘돈의 본질과 관점’에 대해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문
화가 없었다. 이러한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저자는 파이낸셜 아카데미의 부자수업을 통해 25만 명이 넘는 수강생들의 돈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켜 세상을 놀라게 했다.
저자는 늘 말한다. “돈이 만능은 아니지만 돈을 다루는 방법을 바꾸면 인생도 바뀔 수 있다”라고. “나는 언제쯤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나는 평생 부자가 될 수 없을 거 같아”라며 걱정과 고민에만 빠져 있다면, 『부자의 그릇』을 통해 돈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뜨고, 돈을 다루는 능력을 키워보길 바란다.
문의 070-7606-7445

# 호암상 시상식에 모습 드러낸 '후계자 이재용'

삼성생명공익재단·문화재단  
이사장 선임 후 첫 대외행사  
홍라희 회장 및 세 남매  
오나가 일가족 모두 참석



1일 서울 중구 서소문로 호암아트홀에서 열린 2015년 호암상 시상식에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이 참석했다. 이 부회장이 손병두 호암재단 이사장과 함께 수상자와 수상자 가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호암재단은 1일 서울 중구 호암아트홀에서 '2015년도 제25회 호암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수상자는 △과학상 천진우 박사(53·연세대 언더우드 특훈교수) △공학상 김창진 박사(57·미 UCLA 교수) △의학상 김성훈 박사(57·서울대 교수) △예술상 김수자 현대미술작가(58) △사회봉사상 백영심 간호사(53)다. 수상자에게는 각 3억원의 상금과 순금 메달이 수여됐다.

천진우 박사는 화학적 나노설계 기술 확립 및 응용을 통해 나노과학을 의학분야로 확장, 융합 연구를 선도한 성과를 인정 받았다.

김창진 박사는 나노 표면처리 및 전기전압을 이용해 미세 유체의 유동 특성을 제어하는 연구를 선도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김성훈 박사는 단백질 합성효소들의 신

기능 및 암 등 질병과의 연관성을 규명, 혁신 신약개발 연구를 선도했으며, 김수자 현대미술작가는 '보따리', '바늘어인', '호흡', '지수화공' 시리즈 등을 통해 독창적인 예술세계를 구축했다.

백영심 간호사는 25년간 아프리카 말라위 오지 의료봉사 및 현지에 병원과 간호대를 설립, 의료기반 구축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수상자들은 국내외 분야별 저명 학자·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면밀한 업적 검토와 해외 석학들의 자문평가 및 현장 실사 등을 거쳐 확정됐다.

특히 올해부터 노벨상 수상자 2명 등 해외 석학 4명이 심사회의에 직접 참여해 후보자 업적을 국제적 차원에서 검증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권숙일 대한민국의학원 회장과 노벨재단을 대표해 참석한 스벤 리던 노벨화학상위원장(스웨덴 룬드대 교수) 등이 참석해 축하했고 사회 각계 인사 550

여명이 자리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시상식 참석은 삼성그룹 승계의 상징적 의미를 지닌 삼성생명공익재단·삼성문화재단 이사장 선임 이후 첫 대외 행사였다.

시상식 이후 삼성가는 2년 만에 호암상 수상자를 축하하는 자리에 모였다. 지난해 오너 일가는 이견회 삼성전자 회장의 갑작스런 입원으로 시상식과 만찬에 참석하지 못했다.

호암재단은 이날 오후 6시 30분 이견회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리움미술관장,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제일모직 패션사업부문 사장 등 오너 일가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서울 잠종동 신라호텔에서 제25회 호암상 수상자를 위한 축하 만찬을 열었다.

이날 이견회 회장이 건강 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했지만 홍 관장과 삼남매는 비교적 차분한 표정으로 행사장을 찾았다. 호암상은 1990년 이견회 회장이 고(故) 이병철 창업주의 호(號)를 따 제정했다. 각별한 의미가 있는 상인 만큼 삼성일가는 특별한 일정이 없는 한 모두 시상식과 축하 행사에 참석해 왔다.

호암재단은 올해 시상식까지 총 127명의 수상자들에게 199억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김지영 기자 gujiy@

# 홍보맨 권오용 '대한혁신민국' 출간

국내 경제 돌파구 '혁신' 제시



우려하는 국민이라면 모두 혁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 고문은 또 한국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온 기념비적인 사건들을 되짚으며, 혁신의 DNA와 잠재력이 우리에게 내재돼 있다고 역설했다. 자신에 대한 기본 자질과 가능성을 믿고 자발적으로 혁신에 나서서 리더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이 미래 가치를 창조하는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 고문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경제적 풍요라는 기반을 닦기 위해 부지런히 달려왔고, 또 목표를 달성했다면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주도하고, 앞서가며 미래를 창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래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혁신이며,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이름이 '대한혁신민국'이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유지만 기자 redpill@

'홍보 분야의 1인자'로 꼽히는 권오용 효성그룹 고문이 국내 경제의 돌파구로 혁신을 제시하는 책 '대한혁신민국'을 펴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출판자회사인 FKI 미디어는 2일 권 고문의 저서 '대한혁신민국'을 출간했다고 밝혔다. 권 고문은 전경련을 비롯해 금호그룹, KTB네트워크, SK 그룹 등에서 일한 홍보 전문가다. SK텔레콤 부사장과 SK(주) 사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사람은 기업을 만들고 기업은 세계를 만든다', '한국병-진단과 처방' 등이 있다.

권 고문은 저서 '대한혁신민국'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국면에 들어선 한국경제에 돌파구가 될 만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기존의 경제구조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혁신'이 필요할 때이며, 저성장 시대의 장기화를

# 윤정희 이어 안재욱도 "결혼했어요"

스타들 잇따른 웨딩마치

'당구여신' 차유람은 20일



1일 서울 중구 잠종동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의 수영장에서 열린 결혼식에서 신랑 안재욱과 신부 최현주가 미소를 짓고 있다. 카마 스튜디오

스타들의 결혼 소식이 쏟아졌다.

배우 윤정희는 5월 30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6살 연상의 회사원과 극비 결혼식을 올렸다. 윤정희의 소속사는 "윤정희가 양가 친인척만 모인 가운데 발리에서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다"며 "조용히 결혼의 의미를 되새기고 싶어 주변에 알리지 않고 해외에서 하게 됐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가을 처음 만나 약 8개월간의 교제 끝에 부부의 연을 맺었다. 윤정희 부부는 신혼여행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날 1일 서울 중구 잠종동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에서는 배우 안재욱과 뮤지컬 배우 최현주의 결혼식이 진행됐다. 이날 안재욱의 결혼식에는 약 700여명의 하객이 참석해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다. 안재욱은 7월 11일 개막하는 뮤지컬 '아리랑' 때문에 신혼여행을 9월로 미루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신집살림을 차렸다.

같은 날 '당구여신'으로 알려진 차유람이 결혼 소식을 알렸다. 차유람의 예비 남

편인 이지성 작가는 자신의 팬카페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바로 그 사람과 만나고 사랑하게 됐다"며 "마침내 인간의 삶에서 가장 신비롭고 아름다운 경험인 결혼에 이르게 됐다. 신부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국가대표 당구선수 차유람입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두 사람은 차유람이 이지성의 저서 '리딩으로 리드하라'를 읽은 후 인문교전 독서 모임에 참가하면서 인연을 맺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차유람과 이지성 작가는 이날 20일 인전의 한 회회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오연민 기자 yerin2837@

# "한투 통합 10주년, 亞 대표 투자은행 도약할 것"

"올해 리테일 영업 혁신 원년  
해외 사업 적극적으로 추진"  
유상호 사장 기념사 통해 강조



한국투자증권 유상호 사장이 1일 통합 10주년 기념식에서 근로직원들을 격려하며 표창하고 있다. 사진제공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이 통합 10주년을 맞아 '아시아 대표 투자은행'을 다짐했다.

한국금융투자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1일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사에서 구 동원증권과 한투증권의 통합 1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05년 6월 1일 주식중개와 기업금융 분야에 강했던 동원증권과 한국 최초의 투자신락 회사로 출발해 자산관리에 강점을 가지고 있던 한투증권이 합병해 출범했다.

합병 이후 10년간 자기자본은 1조1000억원에서 3조2200억원으로 3배 이상, 회사 총자산은 3조9000억원에서 23조6000억원

으로 6배 이상 불어났다. 연매출 규모도 7914억원에서 3조5298억원으로 4배 이상 늘어났고, 고객자산은 50조9000억원에서 105조원대로 2배 이상 증가했다. 2014년 자기자본이익률(ROE) 역시 7.15%로 5대 대형 증권사 중 1위를 기록

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의 합병 성공은 기존 위탁수수료 수익에 의존해 오던 증권회사의 수익구조를 'IB(기업금융)+AM(자산관리)'의 이바(IB-AM) 모델을 기반으로 개편해 안정적 수익기반을 구축한 것이 주요했다

는 설명이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연결기준으로 3092억원의 영업이익과 2261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4년 연속 업계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또한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등 미래 수익원 확보와 투자 영토 확장을 위해 해외시장 공략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0년 인수한 베트남 현지 합작증권사 '키스 베트남(KIS Vietnam)'은 당시 업계 50위에서 지난해 19위로 급성장했고, 지난해 11월에는 인도네시아 진출을 위해 자카르타 현지사무소를 열었다.

유상호 사장은 기념사에서 임직원들의 노고와 그동안의 성과를 치하하는 한편 올해가 리테일 영업 패러다임 변화의 원년임을 상기하며 리테일 사업 부문의 혁신 추구를 강조했다. 또한 해외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2020년 아시아 대표 투자은행으로의 도약을 다짐했다. 설경진 기자 skj7@

# 대한항공, 초등학생 대상 '생활영어' 재능기부

대한항공은 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인천국제공항 인근 용유초등학교에서 1·3학년 20여명을 대상으로 '하늘사랑 영어교실'을 진행한다.

대한항공이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지역 사회공헌 및 재능기부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실시해 온 하늘사랑 영어교실은 방과후 별도의 과외활동이 어려운 인천공항 인근 초등학교의 어린이에게 영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대한항공은 인천공항 근무 직원 중 영

어회화에 능통하고 교육 재능기부 봉사활동에 열정을 가진 직원 6명을 선발해 강사진을 구성했다.

매주 월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두 시간 동안 수업을 진행한다. 특히 이번 수업은 '동물 노래', '담원 노래' 등 간단한 영어 표현을 활용한 '영어 노래 배우기'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한항공은 2009년부터 매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내가 그린 예쁜 비행기' 사생대회를 개최하고, 항공 분야에 관심이 많은



대한항공 인천역객서비스지점 임직원들이 수업에 참여한 초등학생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 대한항공

어린이를 초청해 서울 본사와 부산 테크센터를 견학하는 항공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하유미 기자 jscs08@

# 팀 쿡, 72억원 기부 전 재산 사회 환원 시작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쿡 애플 CEO는 650만 달러(약 72억원)에 달하는 애플 주식 5만주를 자신 사이다 등 미국 주요 IT전문매체들이 보도했다.

쿡은 지난달 29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서류에서 이같이 밝혔다. 자신에게 이름은 명시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 2011년 고(故) 스티브 잡스의 뒤를 이어 CEO에 오르고 나서 자신과 사회적인 이슈에 자신의 목소리를 활발히 냈다. 지난 3월 포춘과의 인터뷰에서는 현재 10살인 조카에 대한 교육 지원을 마친다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신의 고향인 앨라배마 주의 동성애자 권리 보호를 위해 일정 금액을 지원하기도 했다. 쿡의 전 재산은 현재 애플 주식을 포함해 약 8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배준호 기자 baejh94@

# 녹십자, 신입사원과 함께 '나눔가치' 실천

녹십자는 지난달 29일 을 상반기에 채용한 신입직원과 회사 임원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사단법인 '여럿이 함께' 푸드뱅크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푸드뱅크는 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을 기부받아 결식 아동과 독거 노인 등 저소득 취약 계층에게 전달하는 식품 나눔 제도다. 허은철 녹십자 사장, 신입사원을 비롯한

회사 임직원 100여명은 당일 인근 지역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점심 식사 봉사 지원에 나섰다. 취약 계층에 전달할 쿠키와 빵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녹십자는 신입사원 입문교육 프로그램에 봉사활동 시간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사회인으로 첫 발을 내딛는 신입사원들로 하여금 나눔의 가치를 몸소 실천하고, 회사의 핵심가치인 봉사배려-인간존중 등의 녹십자 정신을 함께 나누겠다는 취지



녹십자 상반기 채용 신입직원들이 지난달 29일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사단법인 '여럿이 함께' 푸드뱅크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녹십자

라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강인호 기자 kangih@

## 인사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보임>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 보존과학부장 이용희

◆국가인권위원회 <서기관 승진> △기획재정담당관실 송오영 △인권정책과 김재식 윤재완 △조사총괄과 최낙원

◆국민안전처 <실장급 전보> △안전정책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정종제 <시도 본부장 승진>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장 소방정감 강태석 <과장급 전보> △안전정책실 안전사업조정과장 서기관 이형석 △재난관리실 재난자원관리과장 기술서기관 신상용

◆특허청 <과장급 전보> △청정장비서관 정경훈 △전자부품심사팀장 마정운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국성 △특허심판원 심판관 최대순

◆한국감정원 △홍보실장 성주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전보> △정책협력부장 조성재 <승진> △바이오임상표준센터장 강택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본부장 보임> △사업총괄본부장 한호현 <단장 보임> △전략기획담당관 민병수 △SW진흥담당 이혁재 △클라우드사업담당 조유진 △디지털콘텐츠사업담당 김효근 △IoT·융합사업담당 전준수 △글로벌사업담당 김득중 △전자문서사업담당 강현구 △경영지원담당 박시훈

◆BNP파리바은행 서울지점 △대표 필립 누와로

◆신영증권 <임원 선임> △감사총괄팀원 위성승

◆LG투자증권 <부사장 승진> △투자전략팀

## 강 김유겸

◆현대코리아 <전무 승진> △박종석 △서정민

## 부음

▲송필호(한국신문협회 회장·중앙일보 부회장)씨 모친상 = 1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3일 오전 8시, 02-3410-6919

▲최원식(포항공대 명예회장·전 한국지협회장)씨 별세, 최남호(포항공대 명예회장)·홍(포항공대 명예대표)·현미(명태대 교수)씨 부친상, 김홍범(동국대 교수)씨 장인상 = 30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4일 오전 7시 30분, 02-3410-3151

▲강무근(오성정밀화학 사장)씨 별세 = 1일, 분당 서울대병원, 발인 3일 오전 8시, 031-787-1510

▲안무길(법무법인 푸른 사무국장)·도길(서원조경 대표이사)씨 모친상 = 1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3일 오전 6시, 02-3010-2293

▲조덕진(무등일보 아트플러스 편집장)씨 모친상, 송봉채(작가)씨 장모상 = 1일, 광주 금호장례식장, 발인 3일 오전 8시, 062-227-4382

▲김중욱(아모레퍼시픽 부산공동지점 대표)씨 별세, 김민호(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민정(삼척여중 교사)씨 부친상, 박태주(인스타페이 근무)씨 장인상 = 1일, 부산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 발인 3일 오전 7시, 051-711-4400

▲이영길(새누리당 울산 남갑 당협 조직부장)씨 모친상 = 31일, 경남 웅상중앙병원 장례식장 특3호, 발인 3일 오전 11시 30분, 055-912-4440



# 1 6월 증시 3대 변수

## 중국 A주 MSCI 편입땐 4조 이탈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지수〉

상반기를 마감하고 하반기를 준비하는 6월은 갖가지 경제지표가 쏟아지는 때다. 일부는 확정치를, 나머지는 전망치를 앞세워 확정지표에 점진적으로 접근한다. 지표가 좋고 나쁨을 떠나 전체 결과가 마무리될 때까지 적지않은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이다. 6월 자본시장은 갖가지 대내외 변수에 따른 변화도 예상된다. 올 들어 시장을 견인해온 외국인 투자자의 투심이 오는 9일(현지시간) 중국의 MSCI 지수 편입 여부와 향후 방향성을 결정한다. 여기에 오는 15일부터 국내증시의 가격제한폭이 현재 15%에서 30%로 확대된다. 미국 금리인상 시기를 가능한 6월 FOMC 회의 결과도 오는 21일 발표될 예정이다. 6월 주요 변수에 따라 증시는 어느 쪽이든 터닝포인트를 맞을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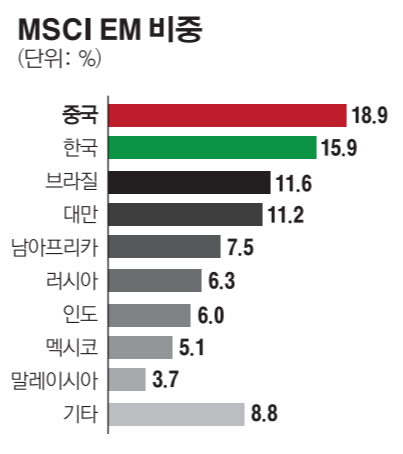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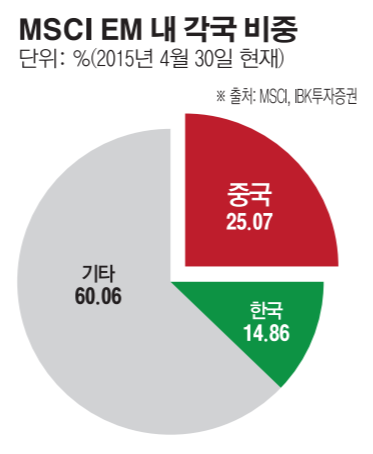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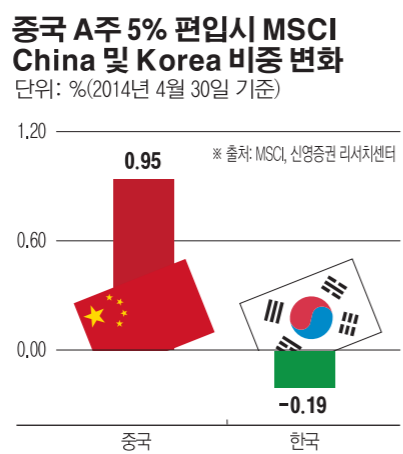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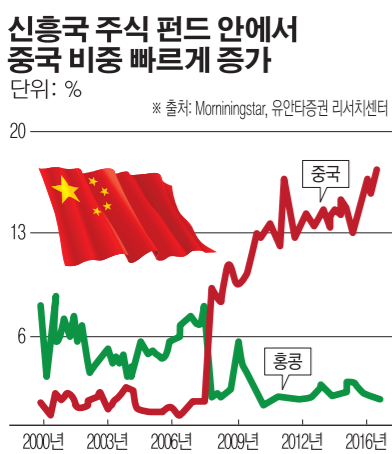
◇글로벌 투자자금 3000조원... 중으로 시선 돌리나? = 4월 급상승을 시작으로 5월 조정국면을 마친 증시는 6월 한 달 외국인 매수세 약화를 예고하고 있다. 여전히 기준 금리가 낮아 유동성이 풍부한 편이지만 올 들어 국내 주식시장을 꾸준히 견인해온 외국인 투자자의 향방이 이달 들어 갖가지 변수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변수는 중국 A주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지수(이하 MSCI 지수) 편입 여부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이하 FOMC) 회의 결과다. 이런 가운데 오는 9일(현지시간·한국시간으로 10일 오전 6시)에 MSCI 편입 여부가 결정된다. 시장에서는 일찌감치 편입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 이를 '6월 약재'로 여기고 있다. 중국 역시 2년 연속 MSCI 가입 조건을 맞추지 못해 탈락했던 과거 사례를 거울삼아 올해는 지수편입에 사활을 걸고 있다.

경 변화 가운데 6월 들어 가장 먼저 불어닥칠 요인이 중국 A지수의 MSCI 편입 여부인 셈이다. 중국으로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그 여파는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단순히 MSCI 지수로 인한 영향보다 이를 기점으로 대대적인 외국인 이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속속 나오고 있다. 안현국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연초부터 8조8000억원을 순매수한 외국인은 5월 들어 그 규모가 둔화되긴 했지만 매수세는 유지하고 있다"며 "향후 달러의 방향과 유동성 자금 행태를 고려하면 둔화될 가능성은 높다"고 말했다. ◇MSCI 편입을 가정한 국내 증시 여파는? = 중국 A주의 MACI 편입은 2년 연속 실패했다. 반면 올해는 사정이 다르다. 중국 정부가 올 들어 외국인 투자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나아

### ‘신흥시장지수 편입’ 가시화... 글로벌 자금 中 주목 ‘韓 증시 버팀목 외국인 떠날까’ 우려 목소리 커져

글로벌 금리인하 여파로 인해 인덱스 자금이 풍부해진 만큼 MSCI지수 편입이 외국인 자금의 향방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MSCI의 신규 편입 리스트는 글로벌 투자자금을 모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사실상 제로 금리 수준인 유럽을 탈출해 아시아 신흥국, 그것도 한국에 몰렸던 외국인 투자금이 자칫 중국으로 방향을 돌릴 수 있다는 우려도 여기에서 나온다. 정도의 차이가 존재할 뿐, 편입이 확정되면 국내 증시는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박스권 탈피 견인한 외국인 투자 = 올 들어 외국인 매수세는 주가를 강하게 밀어 올리는데 밑바탕이 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 강도가 약화되고 있다. 올 들어 스글로벌 금리인하 스글로벌 국제 금리 상승세 둔화 스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주식 때문에 외국인의 관심이 국내 증시에 모아졌다. 이들 요건이 여전히 상승 여력을 갖춘 만큼 '국내 증시의 완만한 상승기조 지속'이라는 분석이 꾸준히 나왔다. 그러나 이 같은 긍정론 뒤에는 항상 우려감도 존재하기 마련이다. 현재 국내 자본시장은 글로벌 유동성 확장에 따른 상승세를 누리고 있지만 거꾸로 이 점에서 발목을 잡힐 수 있다. 자체적인 유동성 확보와 수급 활성화가 아닌, 글로벌 시장 변화에 편승해 주가 상승효과를 누렸다는 주장도 꾸준히 설득력을 얻고 있다. 따라서 본격적인 하반기 풀입 전, 대외 환경이 변할 때 추가적인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이 같은 대외 환

가 상하와 홍콩 증시간 교차매매인 후강통 출범으로 이미 시장의 관심이 뜨거워 상황이다. 여기에 선강통까지 외국인의 투심을 자극하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시장 개방을 추진하는 중국과 국제적으로 MSCI를 추종하는 외국인 자금이 모인다면 여파는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단 MSCI를 추종하는 투자자의 규모가 방대하다. 투자업계에서는 이를 3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00조원에 이르는 자금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물론 이 3조 달러 모두가 중국에 쏟아질 리는 없다. MSCI를 추종하는 자금의 90%는 선진국에 몰려 있고 나머지 10%가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신흥시장, 즉 EM(Emerging Markets)에 몰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좀 더 기준을 완화해도 이 지수에 따라 움직이는 자금은 전체의 40% 수준이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중국 A주의 지수 편입'이라는 약재를 가정한 상태에서 다양한 대응과 분석을 내놓고 있다. 앞서 언급한 두 가지 분석을 바탕으로 적게는 18억 달러, 많게는 120억 달러가 지수편입의 영향을 받아 중국 증시로 흘러들어갈 것으로 분석된다. 정하늘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A주가 이미 MSCI지수에 편입되면 적게는 18억 달러, 많게는 120억 달러가 유입될 것으로 분석된다"며 "한국증시에서는 6억 달러, 많게는 40억 달러가 빠져나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전문가 분석

## “100% 편입은 10년 후... 지나친 우려보다 중장기 전략 세울때”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

중국 A주의 MSCI 편입 여부는 투자 업계에서 전망치가 나뉘고 있다. 결정일(한국시간 10일 오전)이 다가올수록 갖가지 근거가 제시되면서 '편입 가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블룸버그 보도를 보면 중국 당국은 MSCI 편입을 위해 지난 3월부터 미국 주요 펀드매니저들을 만나고 있다. 해외 분위기도 중국 A주의 MSCI 편입에 긍정적인 모습이다. 무엇보다 시장의 관심은 중국 A주가 이 지수에 편입된다면 과연 한국 증시에서 이탈할 수 있는 외국인 자금의 규모가 '얼마큼이나'에 쏠려 있다. 결과적으로 국내 주요 증권사 연구원들은 지수편입이 돼도 "초기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진다. 다만 점진적인 확대 이후 영향은 어느 정도가 될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실제 오는 10일 편입이 결정된다 해도 당장에 전체 지수가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지는 못한다.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6월 실제 효과를 낼 수 있다. 초기 5%만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향후 100% 편입은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해 최소 10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때문에 당장 외국인 자금 이탈을 우려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이 우세하다. 당장의 변화보다 유예기간 1년 뒤인 내년 6월경을 전후로 비중 조정이 나타

날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이다. 과거 대만 지수의 MSCI 편입 때 비중 확대 시점 역시 유예기간 1년을 거친 이후 본격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모건스탠리 측은 역시 신흥시장 지수를 편입할 때 과도한 주가 변화와 수급 불균형 등을 대비해 점진적인 지수 편입제도를 갖추고 있다. 신영증권은 앞서 올해 전망치를 발표하면서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이 그동안 중국 증시에 대한 간접접구 역할을 해왔던 한국증시에 중장기적으로 부담 요인이 된다"며 "한국과 대만지수가 MSCI에 100% 반영되기까지 각각 6년과 9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만큼, 5% 지

수 편입으로 출발한 중국 역시 최소 10년의 시일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정하늘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편입이 발표되어도 약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실질적인 자금의 이동이 원활해 지는 만큼 당장의 수급보다 장기적인 투자 전략의 변화가 예고된다"고 분석했다. 김성환 부국증권 연구원 역시 "편입 여부에 있어 명확하게 결정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에 대한 우려를 선제적으로 반할 가능성이 있다"며 "여러 후론이 가능하지만 MSCI 측이 권고하는 '부분 편입 과정'이 시장의 충격을 감당한 조치라는 점에서 MSCI가 제공하는 로드맵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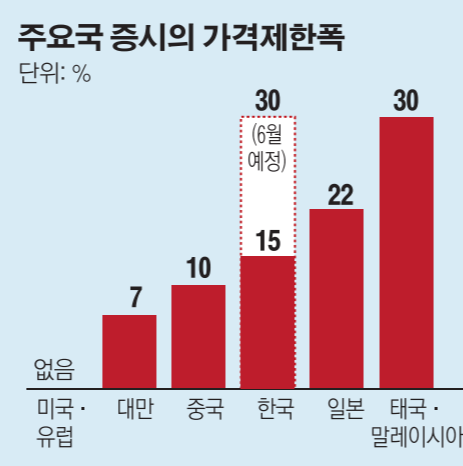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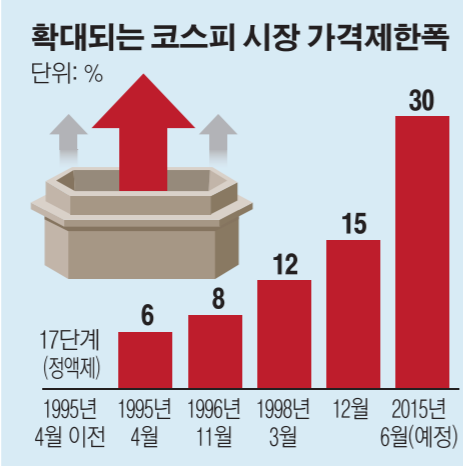
"고 분석했다. 나아가 "부분 편입에 따른 시장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며 "중장기적 시각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전무)은 "아직 구체적으로 편입 여부와 편입 이후 영향에 대해 지금부터 예단하기 어렵다"며 "중국 증시가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비율을 제한하고 있는 만큼, (편입이 확정된다 해도) 비중 확대나 우호적 분석보다 수급 확대 정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김준형 기자 junior@

# 2 가격제한폭 15%→30% 확대... 주가상승 힘 실린다

## 6월 증시 3대 변수

올해 6월 주식시장의 가장 중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는 오는 15일 시행되는 가격제한폭 확대 조치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채권(ETN) 등의 가격제한폭이 현행 ±15%에서 ±30%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는 가격제한폭이 ±12%에서 ±15%로 완화된 이래로 17년 만이다. 오랜 기간 유지돼 온 '게임의 룰'이 변하는 만큼 주식시장이 겪을 변화도 상당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가격제한폭 확대를 통해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을 확보하는 한편 상한가 굳히기, 상한가 따라잡기 등 비이성적·불공정 투자행태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만큼 상대적으로 정보력이 약한 개인투자자들이 더 큰 손실을 입게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투자자보호 < 시장효율성... 증시에 긍정적 역할 기대 = 가격제한폭 제도는 개별주식 종목의 상한가와 하한가를 지정해 주가의 변동성을 제한하는 일종의 규제장치다. 주가급변 요인이 발생했을 때 시장의 과민 반응을 억제하고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반면 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만큼 시장의 효율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결국 가격제한폭을 움직이는 것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 효율성' 중에서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의 문제가 된다. 따라서 이번 제도 개편의 경우 시장의 효율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과 독일, 유럽 등 선진국 증시 대부분이 가격제한폭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도 결국 가격제한폭 제한



### 주요국의 가격안정화장치 현황

구분	가격제한폭제도	변동성안정장치	
유럽	Euronext	-	동적/ 정적장치
	스페인(BME)	폐지(2001년 5월)	동적/ 정적장치
	독일(Deutsche Borse)	-	동적/ 정적장치
미국	영국(LSE)	-	동적/ 정적장치
	NYSE, NASDAQ	-	동적장치
아시아	일본(TSE)	정액제(평균 22%)	동적장치
	대만(TWSE)	전일종가±7%	동적장치
	중국(SSE)	전일종가±10%	-

※출처: KFX

## 가격통제 완화 시장 효율성 확대 '상한가 굳히기' '하한가 풀기' 근절 '작전세력' 불공정행위 줄어든 듯 정보력 약한 개미들 손실 우려도

조치를 완전히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가격제한폭 확대 조치는 이를 위한 초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가격제한폭 확대가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삼성증권의 상한가 도달 빈도 분석은 이 같은 전망에 힘을 보탠다. 2000년 이후 대·중·소형주 모두에서 상한가 도달 빈도가 하한가 도달 빈도를 앞선 것. 가격제한폭 확대 이후 주가하락 요인보다 주가상승 요인이 크게 작용할 것이라는 예기다.

김용구 삼성증권 연구원은 "상한가에 도달한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자 상당수가 추가 상승에 대한 낙관적 기대를 바탕으로 매수 행렬에 가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하한가 종목에 대해서는 바닥 통과에 대한 기대가 있어 추가 매도 수요를 억제해온 한다"고 설명했다. <작전세력> 발붙이기 어려워진다... 비이성적 투자행태 = '상한가 따라잡기', '상한가 굳히기', '하한가 풀기'. 한국에는 있지만 선진국 시장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투자 방식이다. 이 같은 비합리적인 투자 행태를 근절하거나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도 가격제한폭이 늘어남에 따라 기대할 수 있는 또 다른 변화로 꼽힌다. 대표적으로 소위 '작전세력'의 주조작이 어려워진다. 현재는 특정 세력이 어떤 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상한가를 만들기 상대적으로 쉽다. 상한가 근처까지만 가도 개인투자자들이 몰려들어 자동으로 상한가에 붙어버리는 이른바 '자세효

과 때문이다. 이 같은 불공정행위가 비교적 용이하다 보니 시장에서는 '상한가 따라잡기'가 일종의 투자기법으로 취급받기도 했다. 기업가치와 무관하게 유동성이 적고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만 골라 매수하는 기법이다. 웃지 못할 일이지만 현행 15% 가격제한폭 상황에서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꽤나 짝퉁한 수익률을 거두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위적으로 상한가를 만들어 다음날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 다음 주식을 팔아 차익을 남기는 '상한가 굳히기'나 약제가 발생한 종목 주식이 하한가를 기록할 때 확인되지 않은 호재성 사실을 퍼뜨려 보유 주식을 처분하는 이른바 '하한가 풀기' 등의 기법도 현재의 낮은 가격제한폭 제도 하에서 가능한 투자방식이다. 그러나 가격제한폭이 30%까지 올라가면 이 같은 투자행태는 지속되기 어렵게 된다. 김원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본부장은 "작전세력이 상한가를

만들기 위해 훨씬 많은 자금이 필요해지기 때문에 상한가 굳히기 등 시세조종이 어려워져 불공정 거래 행위가 감소할 것"이라며 "기업 가치가 제대로 평가 받는 시장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박>도 '썩박'도 빨라진다... 정보력 약한 개미는 무섭다 = 가격제한폭이 확대되면 하루 주가변동폭이 60%나 된다. 지금은 주가가 반토막이 나는데 5거래일이 걸리지만 상·하한 30%의 변동폭에서는 2거래일이면 된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대박이든 썩박이든 현재보다 빨라진다는 것이다. 시장의 가격결정 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점은 순기능이지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만큼 비이성적 폭등·폭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가격제한폭 확대를 우려하는 쪽은 '두 배로 늘어난 수익 가능성'보다 '두 배로 늘어난 손실 가능성'에 주목한다. 내추럴엔도텍과 같은 사례가 더 빠르고 강하게 재연될 수 있다는 예기다. 외국인·기관에 비해 정보력이 약한 개인투자자들의 원성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최근 내추럴엔도텍 사태로 한 기업에 의해 지수 전체가 떨어지는 코스닥 시장의 취약성을 본 개인투자자들이 단기적으로 증시를 이탈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코스닥 시장 가격제한폭이 확대됐던 지난 2005년 3월의 경우 전·후 1개월간 거래량이 5% 감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간접투자상품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 분석도 있다. 류용성 현대증권 시장전략팀장은 "가격제한폭 확대는 숙련된 기관투자자에게는 그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개인투자자는 종목별 위험관리 측면에서 큰 부담을 느낄 수 있어 간접상품(펀드, 랩, ELS, ETF) 등에 대한 투자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 전문가 분석



박선호 메리츠증권 연구원

## "기업가치 가격에 빠르게 적용 시장활성화에 기여"

"가격제한폭 확대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인위적인 규제 완화가 가능할 것이며 효율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한다." 메리츠증권 박선호 연구원 2일 가격제한폭 확대 정책에 대해 "먼저 주식시장이 왜 활성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를 통해 기업의 본질 가치가 가격에 빠르게 반영, 효율적 시장을 형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 견해다. 박 연구원은 경기정책의 출발점은 유동성 확대임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유동성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한국 가계자산 구성상 부동산 정책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며 "소위 '초이노믹스'를 통해 적극적인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는 이미 이루어졌으며 지금은 정책 시차가 반영이 되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설명했다.

다. 이어 "이후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자본시장 활성화이다"라며 "결국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은 과거처럼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정책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히려 변동성이 커져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 시각에 대해서 박 연구원은 "장기적으로 인위적인 규제를 완화하며 시장원리에 위임하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이라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이나 유럽 등의 국가에 가격제한폭이 없는 근본적인 이유도 이와 같다는 분석이다. 현재 아시아 증시를 제외하면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 시장은 가격제한폭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시장의 경우 직접적인 가격제한폭을 운영하지 않는 대신 종목별 변동성 완화장치(VI)를 통해 장

중 일시적인 주가급변 등을 방지하고 있다. 이어 "다만, 단기적으로 과거 15% 이내로 변동했던 경험 효과로 인해 상대적으로 위험해졌다고 느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투자자들도 적응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증권사의 신용 관련 제도 변경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그는 "현재 담보비율 140%는 15%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반영한 것인데, 증권사들은 가격제한폭 확대 이후에도 현재의 담보비율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증권사들도 이번 정책에 대한 조치로 담보비율 자체를 일괄적으로 높이는 전략은 지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단 종목별 신용공여 제한 여부 및 담보비율 차등적용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할

거래소 정확한 정보 전달 힘써야 재무구조 기반한 투자 계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격제한폭 확대가 주가 하락보다 주가 상승 쪽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 견해도 밝혔다. 박 연구원은 "종목별 실적에 따라 보이던 단기적으로는 주가 상승 쪽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개인투자자 비중이 70%에 육박하는 한국 주식시장 특성상 변동성 확대에 따른 거래량 증가를 수반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박 연구원은 "거래소는 정확한 정보와 판단에 의한 가격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정보의 정확한 전달에 힘써야 할 것"이라며 "개인투자자들의 경우 과거 테마주, '카더라' 식의 문지마 투자 방식은 절대 금물"이라고 조언했다. 이를 통해 재무구조 등 펀더멘털에 기반한 투자 방식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유현 기자 yhns00@

### COVER STORY

## 신중년·꽃중년 나만의 성공 데뷔

"꿈을 이루고 나니 나이드는 것이 즐겁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인생을 제대로 즐기고 있으니까요." 여기 성공적으로 데뷔한 신중년·꽃중년이 충충한 밀도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2인생을 시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교사에게도, 주부에게도, 기업CEO에게도, 고위 공직자에게도, 새롭게 태어나고 싶다는 열망뿐 도전은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인생을 꿈꿔왔던 그들이 마침내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영화감독으로, 소설가로, 마술사학자로, 마술사로, 사회봉사자로, 보디빌더로 데뷔한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 사회봉사 데뷔 7년차 이준웅
- 마술사학자 데뷔 2년차 이상낙
- 소설가 데뷔 10년차 김경동
- 시인 데뷔 1년차 김영배
- 영화감독 데뷔 5년차 윤이병
- 마술사 데뷔 3년차 안재희
- 보디빌더 데뷔 2년차 오영

Special Issue

### 신중년·꽃중년의 은밀한 만남

신중년들이 서로의 지혜를 나누는 그런 이치트를 만드는 게 꿈이다. 이런 이치트가 도시 곳곳, 그리고 동네 곳곳에 생긴다면 은퇴 후의 삶이 그리 힘들지않은 않을 것이다.

- 신중년·꽃중년들만의이치트가 필요한 이유
- 은밀한 공간은 당연한 권리다
- 취미생활을 누리는 이치트가 주류

### 해외투어

#### 이탈리아, 토스카나의 친퀘테레 국립공원은 아름다웠다

은 도시마다 문화유적지의 보고이며 풍치가 빼어나다. 특히 토스카나지방은 이탈리아 여행자의 백미라 할 수 있다. 더불어 빼놓을수 없는 곳이 친퀘테레 국립공원이다.

### 10세 젊어지기

#### 안경이 얼굴이다

노인(老眼) 때문에 안경을 끼다가 노인(老顔)이 되어버린 당신. 패션에 따라 센스 있는 안경만 잘 선택해도 충분히 동안으로 거듭날 수 있다. 신중년 패션의 완성은 안경이다.

### 취업준비생의 하루

#### 취준생, 네 맘 안다

창년 취업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는 말은 이제 귀에 못이 박일 정도로 많이 들었다. 취업 준비하는 아들 녀석에게 말한다. "대기업만 보지 말고 눈 좀 낮추고, 패기 있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라" 말아야. 취업 시장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왜 힘든 것인지 알지 못하는 신중년들이 많다. 왜 취업을 앞둔 자녀들이 힘든 것일까? 취업준비생의 하루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다.

### 우리 세대 이야기

#### 그룹사운드 '겨울나무' 1964년생 말미들의 거침없는 질주

그룹사운드 '겨울나무'가 있다. 아니, 있었다. 밴드를 그룹사운드라, 보컬을 싱어로, 기타리스트를 기타맨으로, 콘서트를 리사이틀로 부르던 시절이었다.

### 건강 119

#### 슬금슬금 새어나오는 요실금

웃을 때마다 피스피시 새어나오는 소변. 여름철 얇게 입은 바지 사이로 흐르는 소변은 겨울의 그들과 차원이 다른 수치심을 느끼게 할 것이다. 신중년들이여 늦게나마 전에 자살감 회복을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해보자.

### 추천 맛집

#### 쉿! 나만 알고 싶은 퓨전 퀴진 레스토랑 '밍글스'

강남의 맛집을 떠나 다녀본 사람일지라도 '밍글스'를 발견하기는 힘들 것이다. 날찍한 학동사거리 인근에 있지만 작정하고 찾아가지 않는다면 그냥 모르고 지나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북적이고 화려한 맛집보다는 조용히 소소한 대화를 나누고 싶을 때 밍글스를 찾게 된다.

### 제2인생의 동반자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2015 6월호 | 제2인생의 동반자

Monthly Magazine

**BRAVO** My Life

신중년·꽃중년 DEBUT 나만의 성공 데뷔

꿈을 이루고 나니 나이드는 것이 즐겁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인생을 제대로 즐기고 있으니까요.

취준생, 네 맘 안다 / 은밀한 만남: 낯선 공간

슬금슬금 스멀스멀 건강119 요실금

자유로운 움직임 위한 '겨울나무' / 원터치 대리운전 앱 '3대리'

정기구독 신청 (02)799-2684 Fax (02)799-6700  
1권: 1만원 / 1년 구독: 10만원

광고문의 (02)799-2698 Fax (02)799-2666

독자의견 접수 및 제보 (02)799-6713-7 / 이메일 bravo@today.co.kr

# 3 美 금리인상 시기는... 18일 '엘런의 입'에 쏠린 눈

<FOMC회의>

## 6월 증시 3대 변수

“올해 안에 연방기금 금리 목표치를 높이기 위한 초기 조치를 취하고 통화정책 정상화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

올해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다. 지난 5월 22일(현지시간) 재닛 엘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위와 같이 밝히자 시장은 6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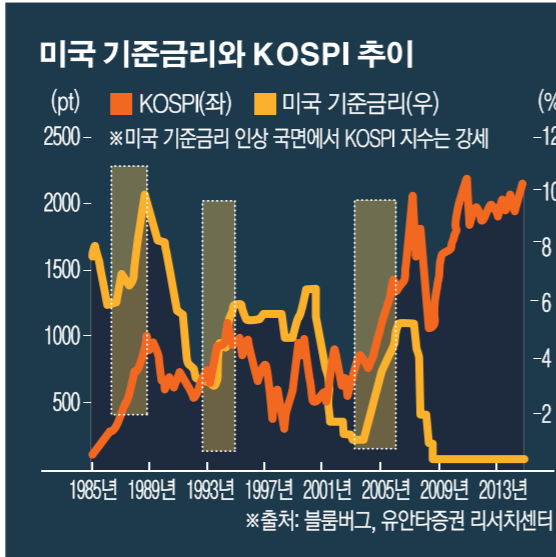
글로벌 자금은 금리 인상에 앞서 미리 이동한다. 따라서 국내 증시도 6월 엘런 의장의 말 한마디에 희비가 갈릴 전망이다. 시장에 대한 전망이 분분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금리 인상 전 국내 증시가 미리 조정을 받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금리 인상은 환율 변동성으로 이어지고, 환율 변동성은 외국인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준의 금리인상은 곧 '미국 경제 회복'을 의미하므로 장기적으로 실적 장세에 대한 기대감도 나온다.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미국의 금리 인상 구간에서는 국내 증시가 함께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달러 강세로 자금 유출 우려 존재...6~9월 조정 예상 = 지난 5월 27일 '버냉키 쇼크'를 떠올리는 데 자부 현상이 나타났다. 엘런 의장이 금리인상 의지를 밝힌 뒤 코스피지수는 뒤늦게 2% 가까이 급락한 것. 코스닥지수 역시 1% 넘게 빠졌다. 연준이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해 밝힌 것만으로 국내 증시가 추축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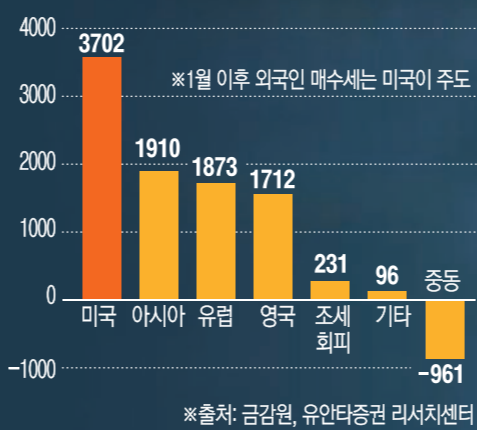
2013년 6월 버냉키 당시 의장의 금리 인상 발언은 시장이 예상치 못했기에 후폭풍이 컸다. 전문가들은 이번 금리인상은 이미 예상 가능한 이슈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충격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국내 증시는 금리인상을 앞두고 조정이 예상된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달러 강세 현상



## 국적별 외국인 순매수

단위: 10억원, 2015년 2-4월



엘런 연준의장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고용'과 '물가'다.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월 대비 0.1% 오르며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근원CPI(식품, 에너지 제외)는 0.3% 뛰며 2013년 1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무엇보다 고용 지표의 뚜렷한 개선세가 눈에 띈다. 미국의 4월 실업률이 금융위기 발생 직전인 2008년 5월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오창섭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4월 실업률은 5.4%까지 떨어져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는데, 이는 연준이 제시한 완전고용(5.0-5.2%) 수준"이라며 "올해 1분기부터 임금이 오르고 있어 고용 회복 추세와 함께 경기도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엘런 의장이 "고용과 물가가 Fed의 목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금리인상) 액션을 미룰 경우 경제를 과열시킬 위험이 있다"고 말한 데는 이유가 있는 셈이다.

이처럼 미국 경제가 회복되면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병규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2008년 이후 미국 CB 경기선행지수와 국내 주식시장에서 미국계 자금은 +0.64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미국의 경제 회복과 함께 외국인 매수세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증시에서 미국계 자금 비중은 43.2%로 가장 높다. 실질적으로 미국계 자금이 국내 증시를 좌우하고, 미국계 자금은 경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금리인상 국면에서는 오히려 호재라는 것이다.

민 연구원은 "향후 미국 경제가 회복되면 미국계 자금이 추가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의 연내 금리인상은 국내 증시에 호재"라고 덧붙였다.

황준주 기자 huj@

## 엘런 의장 '연내 인상' 강한 의지

### FOMC회의서 시점·속도 판가름

### 뺄달러에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

### 전문가들 "6월이후 조정장세" 예상

### 美 고용·물가지표 '회복신호' 뚜렷

### "국내증시에 장기적 호재" 기대도

과 함께 장기 금리가 상승하는데, 이는 미국 등 안전 자산 선호현상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국내 증시를 찾는 외국인들이 금리인상이 본격화되기 전 이탈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민병규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달러가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 환율 측면에서 불리하다"며 "6월 FOMC에서 금리인상 관련 코멘트가 나오면 7-8월에 국내 증시에서 조정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승민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이사 역시 "9월 금리 인상이 확실해질수록 (국내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며 "다만 연준이 금리인상 속도는 완만하게 갈 것이라고 말했다기 때문에 충격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정은 불가피하더라도 한국의 펀더멘털을 고려하면 자금 유출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정의민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우리나라 수출 지

표가 안 좋지만 저유가, 저금리, 환율 상승 등 3저 효과로 수출 물량이 회복되면 환율 방어 가능"이라며 "경상수지도 흑자를 보이고 있어 환율 하방 압력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美 경제 회복 확인하면 장기적으로 호재...외인 매수세 지속될 수 있어 = 다만 금리가 인상되는 구간에서는 오히려 주식 시장에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시장은 실물경제를 반영하므로 실물경기가 개선되면 주식시장도 강세를 보인다. 시장이 금리인상 후 기대감을 보이는 것은 기준금리 인상이 곧 '미국 경제의 회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유승민 삼성증권 이사는 "현재 제로 금리 수준인 미국이 금리를 인상해도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경제가 중요한 이슈"라며 "통상적으로 미국의 금리인상이 시작되면 초기 1년 사이 큰 주시 시장 성과가 나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 전문가 분석

# "금리뿐 아니라 출구전략 전반의 변화에 주목해야"



김승현

대신증권 글로벌마켓전략실 이사

## 만기채 채투자 여부도 주요 변수로 금리인상 전 선제적 위기관리 필요

"금리인상뿐 아니라 출구전략 전반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오는 9월 미국 기준금리 인상의 신호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금리 외 출구전략 전반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승현 대신증권 글로벌마켓전략실 이사는 2일 "미국의 출구전략에는 금리 외에도 다양한 정책들이 있다"며 "6월 FOMC에서 이들 정책의 변화 신호를 두루 고려해야 하반기와 내년도 국내 시장을 읽

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금리 외 대표적 출구전략으로는 만기가 도래한 채권에 대한 채투자 여부, 채권 등 자산 매각이 있다"며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 규모만 2160억 달러 수준인 만큼 달러 유동성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3월 FOMC에서 점진적인 금리인상 계획이 확인된 만큼 금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오히려 9월에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각 은행이 지급준비금으로 과도하게 자금을 창고에 쌓아둔다면 연방준비위원회는 달러를 거둬들이기 위해 채권을 상환할 수밖에 없어 출구전략 전체 방향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만약 연준이 2000억원이 넘는 만기채 채투자를 포기하고 상환에 나설 경우 금리가 급격히 오를 수 있다.

한편 김 이사는 이번 FOMC에서 금리인상의 신호가 나온다고 해도 그것이 미국 경기 개선을 확인시키는 지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시장의 기대보다 금리를 전천후 올리려 한다는 것은 경기가 그만큼 회복되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통화정책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간이래적으로 돈을 풀어왔던 것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미국에는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지만 달러를 계속 조달해야 할 필요성이 큰 신흥국들에게는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아니라 글로벌 성장률이 중요하다"며 "과거와 같이 달러화 상승으로 신흥국에서 위험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선별리 하반기 상승국면을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미국 금리 변화 이후 국내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시

장에 대해서는 "단기간 상승 여력이 있어 코스피지수는 2250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6월에 금리인상 신호만 주는 것이 아니라 출구전략을 함께 제시하면 시장 하강에 대한 불안감이 안도감을 덮치는 임계점이 될 것"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하반기에 주가가 더욱 좋아진다고 할지라도 경기 자체가 개선되는 것이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불투명한 변화는 크게 없다"며 "다만 최근 저유가로 관련 기업 이익이 늘고 원화 약세하에서 수출 관련 업종 실적도 좋아지면서 상승 종목이 확산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6월 FOMC에서 금리인상 신호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미리 위기관리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며 "달러, 채권 등 가장 안전한 자산 위주로 투자 스프레드를 단순화하는 작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다운 기자 gamja@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원료까지 생각한다면 고려은단

당신의비타민C는  
중국산?  
영국산?

자연에서 수확한 옥수수로부터 만든  
영국산 원료만 쓰는  
고려은단 비타민C1000



# 독보적 'PB 하우스' 전략... 1분기 어닝서프라이즈



각 부문 고른 성장 바탕 영업익 1400억  
4월 시총 5조5000억원... 업계 1위로  
홍성국식 '소통의 리더십' 호실적 견인  
'세테크' 인식 연금저축 관리 서비스  
1만2179계좌 개설... 1년새 300% '쑥'



KDB대우증권이 올 1분기 영업이익 1400억원을 돌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연출했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홍성국 사장이 강조한 '독보적 PB 하우스 전략'이 최근 증시 활황과 맞물려 좋은 실적으로 이어졌다. KDB대우증권의 분기 영업이익이 1400억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09년 4분기(1542억원) 이후 5년여 만이다. 시장 추정 영업이익 1123억원도 훌쩍 넘어선 수치로 올 1분기 증권업계 최고의 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각 사업 부문의 실적이 고루 증가했다.

순영업수의 기준으로 주식위탁매매 부문은 780억원의 영업수익을 올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 금융상품 관련 수익은 21% 늘어난 288억원, 투자은행(IB) 부문은 8.4% 성장한 128억원을 기록했다. 유가증권운용수익은 금리 인하 등에 힘입어 172% 늘어난 1345억원을 기록했다.

이러한 실적 덕분에 KDB대우증권은 지난 3월 삼성증권을 제치고 시가총액 선두자리에 등극한 데 이어 4월에는 시가총액 5조5000억원을 돌파했다. KDB대우증권의 이 같은 호실적은 홍성국 사장의 PB 집중 전략과 소통의 리더십에 기반한다. 대우증권 최초의 공채 출신 최고경영자(CEO)인 홍 사장은 취임 이후 임직원들과 활발히 소통하면서 차별화된 카드를 빼들고 변화무쌍한 영업에 나서고 있다.

홍 사장은 취임 후 "최근 3~4년간 증시 침체로 증권사들의 지점영업 부문이 크게 위축되면서 손익구조가 S&T(Sales&Trading, 운용손익) 부문 등으로 편향되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라며 "증권회사가 시장 상황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신시장 개척 등 새로운 수익원 확보 노력과 함께 균형된 손익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독보적 PB 하우스 추진단'을 설치해 상

품 및 서비스 개발, 콘텐츠 공급과 관련된 사업부문 간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또 PIB(Private IB) 점포를 활성화해 지점 영업의 대상을 개인 고객에서 법인 고객으로 확대함으로써 IB부문의 시너지 연계 영업도 강화했다. 전사적 지원체계를 리테일(Retail) 사업에 집중할 것이다.

우선 10년을 준비하는 경영의 첫 단계로 지난 4월 6일 'PB 사관학교'를 오픈했다. 업계 최초로 신입직원을 대상으로 8개월간의 고강도 PB교육을 실시하며, 1% 저금리 시대의 머니 무브 주역으로 성장시켰다는 홍 사장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KDB대우증권은 개인연금사업 역시 강화하고 있다. '연금저축에도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관점을 일반인들에게 심어주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금융상품을 단순히 '세테크'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거나, 가입해 놓고 관리도 잘 안 하면서 방치하고 있는 연금저축을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개인연금의 경우, 2014년 말 4107계좌에서 2015년 3월 말 기준 1만2179계좌로 약 300% 증가했다. 홍 사장은 취임 이후 차별화된 사업 전략을 펼칠 뿐 아니라 조직 문화 확립에도 주력하고 있다.

그는 매일 입버릇처럼 'KDB대우증권에는 캐시



홍성국 사장

(CASH)가 있다'고 말한다. '캐시'란 콘텐츠(Contents)와 마음가짐(Attitude), 전문성(Skill), 기업문화(Habit)를 뜻하는 영어 단어의 앞글자를 딴 말로 독보적 PB하우스가 되기 위한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KDB대우증권은 본사와 지점 간, 부서 간 직원들의 협업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부서별 성과보상을 단기에 하는 등 협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컨트롤해 조직 로열티를 높이고 성과를 향상시킬 방침이다.

특히 홍 사장은 소통을 기반으로 디테일한 영향력과 해결사 능력을 보이고 있다. 최근 사내 인트라넷에 신설한 '직원 제안 게시판'에는 개설 후 600건 이상의 글이 올라왔다. 예전에는 업무도 못 내던 사장과와의 메신저 대화도 홍 사장에게만 열려 있다. 이를 통해 알게 된 직원들의 아이디어와 제안을 회사 전략에 반영하고 있다.

설경진 기자 skj78@



20년 앞선 세계 최고 고반발 장타설계 기술력

Class 가 다른 상위 0.1%를 위한 브랜드 **BIG BANG**

골프가 쉽고 편해진다

# 40yd 더 나가는 아이언

계속되는 진화, 또 하나의 기적

## BIG BANG Longdistance

반발계수 0.925 극초고반발 Hybrid IRON

세계최초

10번 아이언

골프업계 4년연속 매출신장률 1위

주요 - **BING** 벵골프 로고가 틀러거나 사프트에 벵골프코리아의 홀로그래피 없는것은 모조품입니다.

중전의 6번 아이언 거리를 이제 10번으로 쉽고 정확하게 칠 수 있다.

일반적인 아이언 보다

- 40yd 더 나간다.
- 방향성이 훨씬 좋다.
- 세계에서 제일 가볍다. - 스윙 발란스가 10포인트 낮은 B3 도 가능
- 출발 백스핀 1.12배, 착지 백스핀 3.5배 증가
- 스윙이 쉽고 편하다.
- 뒷땅이 없다.
- 엘보우가 없다.
- 벵키 안에서든 페어웨이처럼 어프로치샷을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언 11번

반발계수 0.925 >> 0.930 >> 0.962의 연속적인 세계최고 극초고반발 기술개발 성공으로 비거리가 30~40yd 증가

**벵 Longdistance 470 Driver · Fairway WOOD · Hybrid IRON (Hybrid WOOD)**

골프 해설가 75%, KLPGA 시니어투어 62%, 남자 미드 아마추어 상위랭커 다수, 여자 시니어 아마추어 최강자 93% 사용

**대표전화 : 1544-8070**

Made in Japan or Bang Golf Korea Fitting \* 가격 영원 불변 정책 \*

(주)벵골프코리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람동 537-3 (아법로) 한국골프회관1층 · TEL : (031) 781-2041 · FAX : (031) 781-2031 www.banggolf.co.kr



FTV630 : 5축 머시닝센터

LCV1060 : 머시닝센터

## 프린팅 완료 후 가공 '정밀 절삭 기술' 적용 금속 소재 3D프린터 선두주자

### SMEC 스�멕

부산국제기계대전 첫 참가 바이어 주목  
내달 출시 3D프린터... 中 공략 발판 마련  
유선망 '와이파이 롤링' 북미 진출 추진도



원중범 대표

원중범 대표는 "매년 전시회 참가 마케팅으로 실질적 성과를 거둔다"며 "부산 국제기계대전은 중국, 중동, 동남아 지역 바이어와 실질적 수요를 갖고 있는 국내 업체들의 참여율이 높다는 점이 향후 스�멕의 마케팅 전략과 일치하는 만큼 다음 회에도 참여해 성장의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멕이 올해 공장기계, 로봇, 3D프린터 등 주요 제품을 중심으로 중국 시장을 본격 공략한다.

이 회사는 1999년 삼성테크윈의 기계사업부가 분사돼 설립된 스�멕과 통신통계사업체인 뉴그리드가 2011년 2월에 합병해 탄생했다. 기계사업부는 CNC선반과 머시닝센터, 산업용 로봇과 레이저 장비를 생산하고 있으며, 통신사업부는 네트워크 간 통로 역할을 하는 게이트웨이 전문 개발과 생산을 하고 있다.

2일 스�멕에 따르면 이 회사는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해 지난달 참가한 부산국제기계대전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올렸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제7회 부산국제기계대전이 첫 참가였음에도 각종 주요 바이어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았다"며 "전략적 마케팅 강화 지역이었던 중국과의 거래가 논의된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스멕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새롭게 딜러십 계약을 맺은 중국 딜러로부터 절강성에 로봇 자동화 세트 전시에 대한 제안 및 올해 장비 공급 계획 등 실질적인 문의를 받았다. 회사 관계자는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특히 공장기계와 협업해 자동화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스카라로봇, 원격제어 시스템인 모리콘과 공장기계 중 복합적이고 정밀한 가공을 실현할 수 있는 공정집약형 복합가공기(Multi Axis Turning Center SYD 200T2Y2)도 높은 관심을 받았다.

또 국내 부산·경남 지역의 여러 업체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은 점도 중요한 성과다. 그동안 수출에 집중해 비교적 적었던 내수 비중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기 때문이란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오는 7월에는 금속파우더를 소재로 한 3D프린터도 출시한다. 원중범 대표는 "3D프린터 출시는 7월 정도로 예상하는데, 그때쯤 되면 바로 수주에 들어갈 것"이라며 "국내 3D프린트 제작업체들이 대부분 플라스틱 소재에 집중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프린팅 중 또는 프린팅 완료 후에 가공이 가능하도록 특화 기술은 스�멕의 강점이자 주력 사업 중 하나인 정밀 절삭 기술을 적용했다. 기계 기술과 3D프린터 기술을 결합해 스�멕의 주력 사업을 3D프린터에 접목하고 이를 특허화해 기술 장벽을 보다 강화했다고 할 수 있다.

올해 사상 최대 매출도 경신할 계획이다. 원 사장은 "전방산업의 꾸준한 성장세와 중국 시장의 성장을 바탕으로 올해도 사상 최대의 매출을 경신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스�멕은 지난해 1397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는 이보다 15% 가까이 더 늘어날리겠다는 전망이다. 수익성도 물론 높일 계획이다.

통신사업부의 경우, 해외 시장 확대를 통한 흑자 전환을 이루려겠다는 목표다. 이성재 통신사업부 사장은 "지난해부터는 국내를 벗어나 해외 시장으로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며 "일본, 동남아, 이란 등에서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과 미국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와이파이 롤링 사업에도 뛰어들었다. 와이파이 롤링이란 이통사의 무선망 대신 와이파이 접속을 통한 유선망을 통해 통화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 이성재 사장은 "북미 지역 통신사업자와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송영록 기자 syr@

# 오너가 친인척 35명 지분... 허재철 회장 8.53% 최대주주

(대원강업)



## 108 대원강업그룹 DAEWON

대원강업그룹은 1946년 설립된 대원철강(현 대원강업)을 모태로 출범했다. 1960년대 승용차용 스프링을 개발한 후 대원제강, 대원산업 등을 설립하며 자동차부품 전문그룹으로서의 면모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현재 스프링 제조에 사용하는 편강·형강 가공업 및 철강주조업, 시트부품업 등 자동차 스프링에 관한 국내 유일의 일괄생산 체제를 갖췄으며, 차량용 스프링 국내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 창업주 허주열 명예회장·동생 1세대...현재 3세대까지 경영참여 그룹 상단 '대원강업·산업·총업' 포함 핵심 계열사 9곳 매출 2조 '대원강업' 2007년 이후 고려용접봉과 적대적 M&A 이슈 노출

◇대원총업·대원강업·대원산업의 세 갈래... '한 지붕 세 가족' = 대원강업그룹은 대원강업, 대원총업, 대원산업 3개 계열사를 중심으로 출자구조를 이루고 있는 계열사 집단을 말한다. 이들 3개사는 창업주 고(故) 허주열 명예회장의 친인척들이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사들이다.

먼저 모태회사 대원강업의 창업주는 허주열 명예회장(2002년 작고)과 그의 동생 고(故) 허승열 명예회장(2008년 작고), 그리고 동업자 고(故) 허백 명예회장 등 세 사람이다. 1968년 대원산업을 설립하면서 허주열 명예회장의 동생 허수열 명예회장이 경영에 참여한다. 여기까지가 허씨 오너일가 1세대이다.

허주열 명예회장은 슬하에 5남 3녀를 뒀다. 장남 허재문 전 대원강업 사장은 1991년 일찍 세상을 떠났으며, 현재 그의 장남이자 허주열 명예회장의 장손인 허승호 대원강업 부회장이 3대에 걸쳐 경영을 하고 있다. 허승호 부회장의 동생 허윤호씨는 대원정밀공업 부사장을 맡고 있다. 이와 함께 대원총업 허재무 대표는 허주열 명예회장의 차남이다.

허승열 회장은 부인 남궁송자 여사와의 사이에서 4남 1녀를 뒀다. 현재 대원강업의 최대주주(지분율 8.53%)인 허재철 회장은 허승열 명예회장의 장남으로, 삼원강재 회장, 대원정밀공업 회장직도 겸임하고 있다. 특히 허재철 회장은 슬하에 두 딸(승원·수원)의 사돈 집안으로 각각 현대백화점그룹, 삼부토건그룹과 연을 맺었다. 이와 함께 허승열 명예회장의 차남은 허재웅 대원강업 부사장이다.

올해 만 91세에 이른 허수열 명예회장은 직접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으며, 대원산업(지분율 3.50%), 대진(10.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의 장남 허재건 대원산업 회장이 경영을 하고 있다. 허재건 회장의 장남인 허선호씨도 대원산업에서 경영 수업을 받고 있어 3세 경영체제의 기반을 닦고 있다.

사실상 대원강업은 허주열 명예회장의 조카인 허재철 회장이 실질적인 경영을 이은 셈이다. 이에 허주열

회장 일가와 허승열 회장 일가의 3대에 걸친 오너일가 친인척들이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지난 5월 말 기준 친인척만 35명 이상이 등재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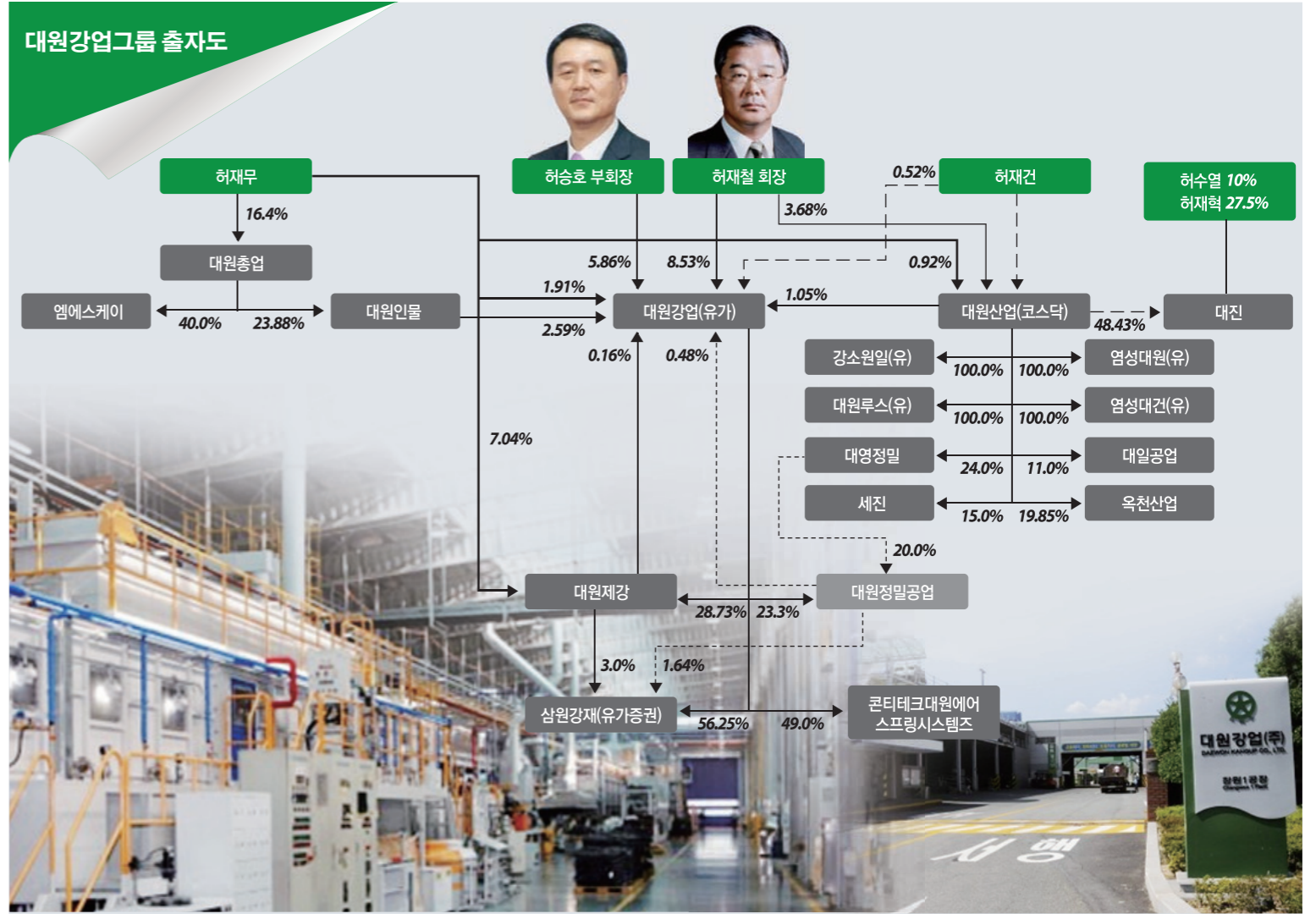
한편, 대원강업은 지난 2007년부터 고려용접봉과의 '적대적 M&A' 이슈에 노출되어 왔다. 허재철 회장 및 특수관계자의 대원강업 지분은 지난 5월 기준 33.95%를 나타내고 있으며, 적대적 M&A 상대방인 흥민철 회장 및 고려용접봉 등은 25.13%를 보유하고 있다. 허재철 회장의 사위집안인 현대백화점그룹 계열사가 총 13.21%(현대홈쇼핑 7.67%, 금강에이앤디 5.54%)의 우호적 주주로 나서고 있다.

◇대원강업그룹 매출 2조100억원 규모... 대원강업 등 상위 3사 실적 저하 = 대원강업그룹의 총 자산 규모는 2014년 기준 1조5200억원에 달하며, 총 매출액은 2조100억원에 이른다. 이는 오너일가와 핵심 계열사 등이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9개 국내 계열사(대원강업, 삼원강재, 대원산업, 대진, 대원제강, 대원정밀공업, 대원총업, 콘티테크대원에어스프링시스템즈, 대원정밀)를 기준으로 한다. 또 9개 계열사 모두 재무구조는 양호하다.

매출액 순으로 살펴보면, 유가증권 상장사인 대원강업이 7768억7300만원으로 대원강업은 스프링 매출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전체 매출의 50% 이상을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를 통해 내고 있다. 다음으로 대원산업(5267억9500만원), 삼원강재(2829억1000만원), 대원정밀공업(1928억4000만원), 대원총업(1727억6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상위 3개 핵심 계열사들이 모두 지난해 이익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원강업은 지난해 영업이익과 순이익 모두 전년과 비교해 절반가량 떨어졌다. 대원산업은 2014년 기준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전년 대비 각각 61.3%, 1.1% 감소해 각각 51억5100만원, 229억4500만원을 기록했다. 삼원강재 또한 지난해 영업이익이 14.7% 떨어졌으며, 순이익은 3.3% 감소했다.

김해진 기자 sinembargo@



## 재벌기업 사위냐 vs 핏줄섞인 조카나 아들없는 허 회장 '대원강업' 누구에게

승원·수원 두딸, 한달새 보유지분 급증 장녀 남편은 정교선 현대백화점 부회장 큰아버지로부터 경영권 승계한 것처럼 '3대장손' 조카 허승호 부회장 가능성도

허재철 대원강업 회장이 슬하에 아들이 없어 향후 대원강업 승계구조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원강업은 지난 5월 말 기준 허재철 대원강업 회장이 지분 8.53%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그를 비롯한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총 33.95%에 이른다. 눈길을 끄는 점은 최근 허재철 회장의 두 딸인 승원·수원씨가 지난 4월부터 두 달 동안 눈에 띄게 주식을 사들인다는 것이다.

장녀인 허승원씨는 지난 2013년부터 2년 동안 대원강업 지분 1.28%(주식수 79만5835주)로 변동이 없었으나, 지난 5월 말 기준 1.30%(80만8327주)로 늘었다. 이번 증가 주식분은 지난 4월 21일부터 지난날 29일까지 총 3거래일에 걸쳐 사들인 1만2492주에 따른 것이다.

차녀인 허수원씨도 마찬가지로 2년 동안 대원강업 지분 1.63%(101만203주)로 변화가 없었으나, 지난 4월 22일부터 지난 5월 말까지 총 6거래일에 걸쳐 1만9668주를 매입, 현재 지분 1.66%(102만9871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같이 딸들의 지분 매입이 주목을 받는 것은 허재철 회장의 만사위인 정교선 현대백화점그룹 부회장의 계

열사들이 대원강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 규모는 현대홈쇼핑 7.67%, 금강에이앤디 5.54% 등 총 13.21%로 최대주주인 허재철 회장보다 많다.

이에 일각에서는 허재철 회장이 보유한 지분을 두 딸에게 물려주면 장녀 허승원씨와 현대백화점그룹 계열사가 특수관계자로서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되며, 결국 이것이 정교선 회장의 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시나리오를 내놓기도 한다.

앞서 현대백화점그룹 계열사들은 대원강업이 지난 2007년 흥민철 고려용접봉 회장과 고려용접봉 등이 대원강업 지분을 사들이면서 적대적 M&A에 노출될 우려가 제기되자 2009년 대원강업의 백기사격으로 지분 매입에 나섰다. 만약 대원강업이 현대백화점그룹 산하로 들어가게 된다면 결국 정교선 회장 대 흥민철 회장의 싸움으로 변질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더불어 단일주주의 지분 보유량으로 보면 흥민철 회장이 대원강업 지분 14.4%로 가장 많다.

반면, 대원강업 승계구조와 관련해 또 다른 시나리오는 허재철 회장이 큰아버지인 고(故) 허주열 명예회장으로부터 경영권 승계를 이어 받았듯이 조카인 허승호 대원강업 부회장에게 경영권을 승계한다는 것이다. 허승호 부회장은 허주열 명예회장의 장남 고(故) 허재문 전 대원강업 사장의 큰아들이다. 즉 창업주의 3대 장손인 셈이다.

아직 대원강업의 승계구조가 이른감이 있지만 허재철 회장의 슬하에 아들이 없어 향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주목된다. 김해진 기자 sinembargo@



날마다 편안한 날이 펼쳐집니다.

## 건강의 시작은 편안함입니다.

날마다 편안하게

이연 보충용 제품

효모아연 + 복합효소(부원료)

건조효모에 정상적인 면역기능과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한 아연을 함유한 제품으로 부원료로 복합효소 300 mg을 담고 있습니다.

날마다 편안하게, 온가족을 위해 선택하세요.

※ 가까운 비타민하우스 가맹약국 건강기능식품 코너에서 만나보세요.



신상품



[BALANCE FIT SHOES 남성용]  
초경량 천연가죽 골프화  
GM,6501-35

# 잔디로 천연가죽 수제 골프화!

## [스파이크리스 골프화]

골프화 겸 일상화로 신어도 편안한 잔디로 스파이크리스 골프화 MG,II 출시!

스파이크리스 골프화는 골프장이 아닌 일상화로 신어도 편안하며, 장시간 발에 힘이 실리는 골프의 특성을 고려해 안정된 접지력과 기능성을 제공합니다.



[남성용/주문화]스파이크리스 골프화 LM,2586-13



[남성용/주문화]스파이크리스 골프화 LM,2582-83



[여성용/주문화]스파이크리스 골프화 LW,7581-26

### 잔디로 신발도매 전시관 오픈!

- 취급품목: 숙녀화, 신사화, 컴포트화, 스니커즈 등
- 판매촉진: 온라인개설, TV, 라디오, 신문광고 지원 프로모션 이벤트 및 각종 PPL협찬 등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6-23 (주)잔디로 2~4층

총판 및 영업사원 모집(전국)

대리점 및 취급점 문의(전국)

**T.02-2694-4949**

[www.jandiro.com](http://www.jandiro.com) | [www.baeksero.com](http://www.baeksero.com) | A/S센터 02)542-2000

제품문의: 02)6909-8834 서울역점: 02)6959-4900 (서울역 1호선 3번출구, 직진 20M 편의점 2층)  
 서울역점 02)6959-4900 강남점 02)562-0009 목동점 02)2608-7400 천호점 02)485-2022 성남점 031)715-9933 산본점 031)393-3258  
 대구점 053)522-2900 대구북구점 053)382-4302 부산점 051)804-8885 광주점 062)351-9000 전주점 063)276-5000 A/S센터 02)542-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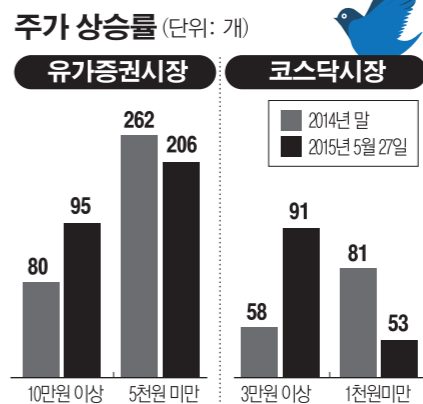
## 증시 활황 효과 '고가주' 늘었다

코스피 10만원 이상 33%·코스닥 3만원 이상 59% ↑  
상장종목 가격 높을수록 평균 주가 상승률도 높아

올해 들어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시장에서 가격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고가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종목의 가격대가 높을수록 평균 주가 상승률도 높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거래소는 코스피·코스닥 상장종목 중 2014년 말 대비 비교가 가능한 1808종목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기간(2014년 말-5월 27일)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가 각각 5.32%, 28.77% 상승함에 따라 고가주 비중이 증가했다. 코스피에서는 가장 높은 '10만원 이상' 종목이 이 기간 80개에서 95개로 15종목 증가했다. 코스닥의 경우 가장 높은 '3만원 이상' 종목이 58개에서 91개로 33종목 늘었다.

반면 가장 낮은 가격대의 비중은 감소했다. 유가증권시장의 '5000원 미만' 종목은 262개에서 206종목으로 감소했고, 코스닥의 '1000원 미만' 종목은 81개에서 53개로 줄었다. 두 시장 모두 상장종목의 가격이 높을수록 평균 주가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 코스피는 '10만원 이상' 종목과 '5만-10



만원' 종목이 각각 33.09%, 38.29%의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5000원 미만' (25.56%), '5000-1만원'(24.28%) 등 낮은 가격대에 속한 종목들은 평균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3만원 이상' 종목의 수익률이 58.92%로 가장 높았고 '1만-3만원' 종목이 57.39%로 뒤를 이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1000원 미만' (8.15%), '1000-3000원'(24.31%) 등 저렴한 종목은 수익률도 저조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 6월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 내역 (단위: 주)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해제일	해제일	보호예수사유	해제주식수	해제일	해제일	보호예수사유	해제주식수
9일 삼성제약	모집(전매제한)		5,202,304	4일 에프앤씨엔터테인먼트	최대주주(코스닥)		8,092,800
11일 키스톤글로벌	자발적보호예수		7,000,000	5일 대창스틸	최대주주(코스닥)		11,111,500
18일 제일모직	최대주주(상장)		84,620,450	8일 에스케이씨오로피아	최대주주(코스닥)		1,339
24일 유안타증권	모집(전매제한)		71,428,571	15일 에스케이씨오로피아	최대주주(코스닥)		2,140
현대상선	모집(전매제한)		6,811,000	비씨월드제약	최대주주(코스닥)		3,437,500
유니켄	모집(전매제한)		3,356,163				
한진해운	모집(전매제한)		74,074,074				
27일 한솔아트원제지	모집(전매제한)		17,253,732				
29일 신우	제3차배정유상증자(상장)		29,000,000				
<b>합계(9개사)</b>			<b>312,496,294</b>	<b>합계(23개사)</b>			<b>69,151,707</b>

### 제일모직 등 32개사 3억8200만주 보호예수 해제

제일모직, 현대상선 등의 보호예수 주식이 이달 해제된다. 2일 한국에탁결제원에 따르면 의무보호예수 주식 총 32개사 3억 8200만주가 6월에 해제될 예정이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9개사의 3억 1200만주가 보호예수에서 벗어난다. 삼성제약(9일, 520만2304주), 제일모직(18일, 9837만 450주), 유안타증권(24일, 7142만8571주), 현대상선(24일, 681만1000주) 등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23개사의 6900만주가 보호예수 해제된다. 에프앤씨엔터테인먼트(4일, 809만2800주), 대창스틸(5일, 1111만 1500주), 비씨월드제약(15일, 343만7500주), 녹십자엠에스(17일, 708만4752주) 등이다. 의무보호예수 해제 주식 수량은 지난달(5억5000만주)에 비해 24.5%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달(7300만주)에 비해서는 423.1% 증가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 고객에 고위험상품 권유 않게 펀드상품군별 동일실적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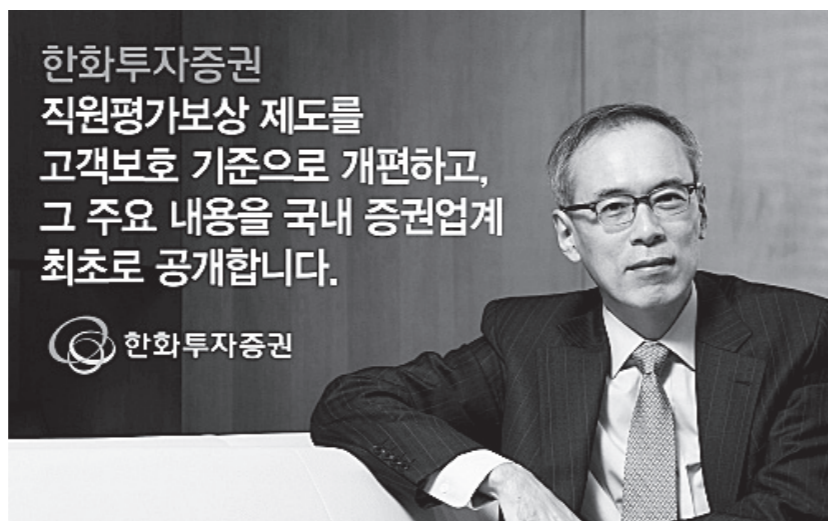
한화증권, 새 직원평가보상  
고객보호 강화 최우선  
과당매매 금지도 강화

한화투자증권이 고객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직원평가보상제도 개편 내용을 업계 최초로 공개했다. 영업직원의 총보상이 산정되는 구조와 고객이 가입한 상품별로 직원들이 인정받는 수익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고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한화투자증권은 2일 고수익 상품을 판매해 이익을 얻기보다는 고객의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신뢰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좀 더 큰 가치를 줄 수 있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원평가보상제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수익 중 직원의 실적으로 인정되는 비율은 금융상품군별로 동일하게 인정된다.

보통 증권사 직원들의 연봉은 자신이 판매한 상품에서 발생한 수익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고객에게 높은 보수가 적용되는 상품을 추천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다. 그러나 한화투자증권은 금융상품군별로 동일한 실적 인정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직원들은 판매 수익에 영



한화투자증권이 1일 고객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직원평가보상제도 개편 내용을 업계 최초로 공개했다. 사진은 주진형 사장. 사진제공 한화투자증권

향을 받지 않고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추천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펀드 1억원 판매 시 모든 펀드를 동일 상품군으로 묶어 1%의 대표 보수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만약 채권형 펀드와 주식형 펀드의 연간 판매 보수가 40만원과 150만원으로 각각 다르다면, 영업직원은 보수적인 투자성향을 가진 고객에게도 리스크가 큰 주식형 펀드를 판매할 가능성이 있다.

회사 관계자는 "회사의 영업 실적 때문에 고객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을 제거했다"며 "영업직원은 고객의 투자성향이나 재산 상태, 재무목표 등을 고려해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펀드를 골라 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화투자증권은 실적 인정 회전을 상한을 연 300%에서 200%로 낮췄다. 또 고객을 보호하는 동시에 고객의 신뢰를 더욱 다지기 위해 과당매매 금지 기준을 한층 강화했다.

권용관 리테일본부 부사장은 "이번 직원평가보상제도 개편은 고객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며 "영업직원은 자신의 실적보다는 고객의 장기적 자산관리 관점에서 보다 적합한 상품을 추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 액면분할→개인투자자 거래 증가→주가상승, 맞네~

아모레퍼시픽·아모레G, 액면분할 결정 후 40% 안팎 올라

아모레퍼시픽과 아모레G의 주가가 액면분할 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액면가가 낮아지면서 개인투자자의 수요가 늘자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증가하며 주가가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다.

2일 한국거래소가 공개한 '초고가주의 액면분할 후 주요 효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 주가는 액면분할 전(3월 2일 기준) 28만4973원에서 변경상장 후(5월 27일) 40만6500원으로 42.6% 상승했다. 아모

레G 역시 같은 기간 12만8900원에서 18만 원으로 39.6% 올랐다.

액면분할 후 접근성이 높아지자 개인투자자의 순매수 규모가 급증하며 일평균 거래량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액면분할 결정 전 아모레퍼시픽의 개인투자자 순매수 규모는 변경상장 후(5월 8-27일) 61만8000주가 늘며 4816.5%나 급등했다. 아모레G의 경우 같은 기간 45만 5000주가 증가해 3763.9%나 뛰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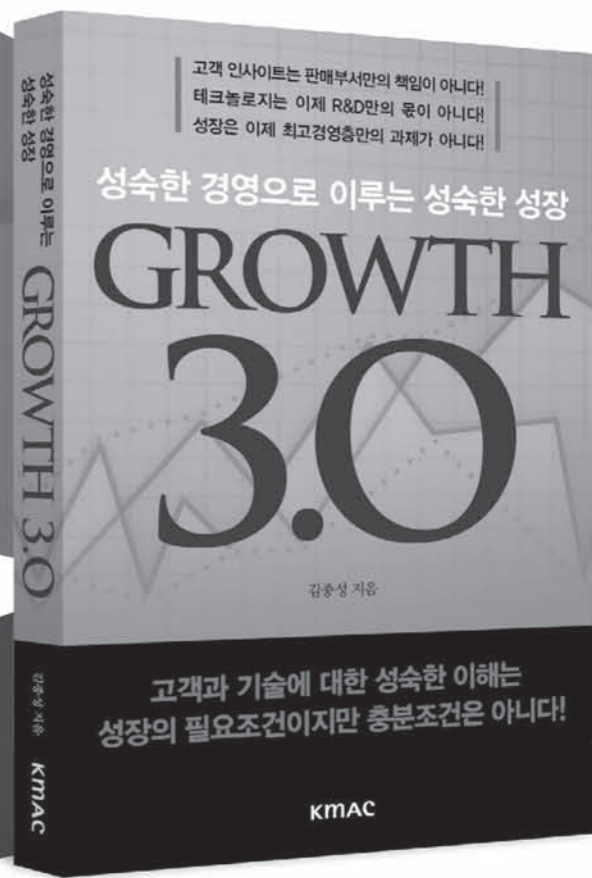
아모레퍼시픽의 일평균 시가총액은 액면분할 결정 전 15조3660억원에서 변경상장 후 23조5650억원으로 53.4% 커졌다. 아모레G는 같은 기간 9조5840억원에서 14조3430억원으로 시총 규모가 49.7% 불어났다.

단일순 거래소 시장서비스팀장은 "액면분할 효과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초고가주 기업의 경우 극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과거 액면분할을 실시했던 제일기획, 현대그린푸드, 녹십자홀딩스 역시 거래량이 큰 폭으로 향상됐고 아모레퍼시픽과 아모레G도 변경상장 후 긍정적 효과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윤주 기자 hyj@

# 고객과 기술에 대한 성숙한 이해는 성장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 성숙한 성장을 위한 기업의 4대 역량!

- 혁신력** :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는 기업들은 성장에 대한 비전과 리더십, 성장에 대한 정책,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인프라가 각 기업의 전통과 사업 무대, 전략 등과 연계되어 갖추어져 있다.
- 예측력** : 시장에 대한 예측력은 성장 기업이 가지는 공통적인 역량이다. 마켓 인사이트에 기반한 예측력과 추진력은 핵심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미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진다.
- 활용력** : 성장에 능한 기업들은 성장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이를 추진할 때 자신들이 가진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한다. 브랜드, 유통망, 고객 관계, 기술, 네트워크 조절점 등 모든 자산을 성장에 활용한다.
- 적응력** : 성장에 능통한 기업들은 서로 다른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들을 결합, 연결, 혹은 분리시킴으로써 성장의 극대화를 실현하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 “퇴직연금 수익 늘리려면 해외 분산·대체투자 필수”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인프라 투자 대안 마련 위해  
호주 퇴직연금협회와 MOU



황영기 한국금융투자협회장(왼쪽 네번째)과 폴린 바모스 호주퇴직연금협회장(왼쪽 세번째) 등이 1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국과 호주 간 퇴직연금 관련 업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한국금융투자협회

황영기(사진)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한국 퇴직연금 시장의 수익 제고를 위해 해외 분산 투자와 해외 대체투자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1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주관 호주대사관과 공동 주최한 ‘한-호주 연금자산 운용전략 포럼’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황 회장은 “호주는 퇴직연금 자산을 국내의 자산에 적극 투자해 높은 수익을 내고 있다”면서 “한국도 국내주식 및 채권 중심에서 벗어나 수익 제고를 위해 해외 인프라투자 등 분산투자와 대체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도 2020년까지 국내 주식형 줄이고, 해외주식형 늘리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연금형 자산도 대체투자와 해외투자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계도 역량을 늘리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

황 회장은 “특히 인프라 투자는 장기 간 대규모 투자가 필수”라며 “이 때문에 호주와 같이 축적된 운용 노하우 보유

한 기관, 금융사와의 공동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투협은 효과적인 인프라 투자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날 오전 호주 퇴직연금협회(ASFA: Association of Superannuation Funds of Australia)와 퇴직연금관련 정보 공유 및 공동사업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황 회장은 “현재 한국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자산이 590조원 달하고 오는 2040년엔 2500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이지만, 대부분 연금 자산들이 주식, 채권 등 국내 자산에만 투자하고 있어 성과가 기대 대비 저조하다”며 “호주의 호주와 같이 축적된 운용 노하우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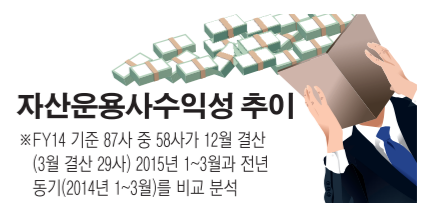
해외 등 대체투자 분야에 적극 투자해 2013년 수익률이 13.7%에 달한다”고 말했다.

빌 패터슨 주한호주대사도 이날 축하사에서 “호주는 민간협력 사업의 글로벌 리더로서, 주요 인프라 사업의 구축과 운영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며 “오늘 포럼을 통해 호주와 한국의 투자기업이 인프라 부문에서 상호협력 기회를 갖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포럼은 우리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및 퇴직연금시장 발전을 위한 자산운용 제도 개선 추진에 따라 향후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한 퇴직연금 자산운용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경아 기자 kakim@

# 운용사 1분기 순이익 893억

0.2% 감소... 작년과 비슷  
수익 늘었지만 판관비도 증가



자산운용사수익성 추이

※FY14 기준 87사 중 58사가 12월 결산(3월 결산 29사) 2015년 1-3월과 전년 동기(2014년 1-3월)를 비교 분석

구분	2015년 1-3월	2014년 1-3월	2015년 1-3월	증감	증감률 (%)
당기순이익 (억원)	357	895	893	△2	△0.2
ROE (% 연환산)	4.1	10	9.4	△0.6	-

※자료: 금융감독원

지난 1분기 자산운용사의 순이익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분기 중 87개사 자산운용사의 순이익은 893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895억원보다 2억원(0.2%) 감소한 수준이다.

자산운용사들의 운용 규모 확대에 운용자산이 18% 증가하면서 수수료 수익은 늘었지만 판관비 등도 증가해 순이익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총 87개 자산운용사 중 61개사가 1290억원의 흑자, 26개사는 397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작년 같은 기간 적자회사가 32개였다는 점에서 자산운용사들의 전반적인 수익성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꾸준한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지만 상위 10개사가 전체 순이익의 67.1%를 차지한 반면 26개사는 적자를 시현하는 등 양극화가 지속됐다.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ROE는 9.4%로 전년 동기(10.0%) 대비 소폭 하락

(0.6%p)였다.

한편 자산운용사들의 운용자산은 3월 말 현재 764조원으로 작년 3월 말 645조원보다 119조원(18.4%) 늘었다. 펀드수탁고는 410조원(공모 223조원, 사모 187조원)으로 작년 3월 말 대비 65조원(18.8%) 증가했고 일일계약고는 354조원으로 작년 3월 말(300조원) 대비 54조원(18.0%)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저금리 기조 지속, 기관투자자의 투자일임 및 사모펀드 투자 확대 등으로 운용자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사모펀드 규제완화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통과를 통과할 경우, 사모펀드 투자 확대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김희진 기자 heejin@

## ‘한국투자 톱텀밸류펀드’ 설정액 1000억원 넘어서

한국투자신탁운용은 ‘한국투자 톱텀밸류펀드(주식)’의 설정액이 1000억원을 돌파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투자 톱텀밸류 펀드는 지난해까지 설정액이 190억원 수준이었지만 지난달 29일 기준 설정액이 1036억원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톱텀밸류펀드는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의 특성과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채권형 펀드의 이점을 접목한 한국운용의 대표 가치주 펀드다. 단기 성과를 추구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꾸준히 시중 금리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달 29일 기준 톱텀밸류펀드의 6개월 수익률은 16.15%, 1년 20.28%, 3년 44.48%로 같은 기간 코스피 성과 6.57%, 4.65%, 15.72%를 크게 웃돈다.

연초 이후 국내 주식형펀드에서 9조 2000억원 이상이 유출된 반면 톱텀밸류펀드로는 846억원가량이 유입됐다.

엄택기 한국투자신탁운용 팀장은 “개별기업의 고유 경쟁력과 펀드멘탈에 집중하면서 회사 내재가치 대비 저평가 종목은 매수하고 고평가 종목은 매도하는 운용 스타일을 지속할 것”이라며 “신규 탐방 종목 선별해 포트폴리오의 신선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펀드의 총 보수는 A클래스 연 1.46%(선취 1.0%이내 별도), C클래스 2.260%이며, 환매수수료는 A, C클래스 90일 미만 이익금의 70%이다.

한국투자증권, KB국민은행, 경남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제주은행, 한국SC은행, 유진증권, 키움증권, 현대증권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정다은 기자 gamja@

## 펀드슈퍼마켓 “앱 다운 1만명에 펀드쿠폰”

2.0버전 출시 이벤트

펀드슈퍼마켓은 모바일 앱 업그레이드 플랫폼인 펀드슈퍼마켓 2.0버전 출시를 기념, 펀드쿠폰 증정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사진).

이번 이벤트는 모바일 앱 다운로드 이벤트, 펀드슈퍼마켓 추천 이벤트, 연금자산증대 이벤트 등 3가지로 오는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진행한다.

우선 펀드슈퍼마켓 모바일 앱을 다운 받은 고객 중 선착순 1만명에게 펀드쿠폰 2000원을 지급한다. 추천인을 통해 웹과 모바일에서 새롭게 가입하는 신규회원과

추천인에게는 각각 5000원, 3000원의 펀드쿠폰도 제공한다.

또한 펀드슈퍼마켓에서 연금계좌를 만들고 연금펀드에 10만원 이상 가입시 1만원의 펀드쿠폰을 제공하며, 3개월 이벤트 기간 동안 연금자산 증가액에 따라 최대 5만원의 펀드쿠폰도 지급한다.

한편 펀드슈퍼마켓은 업그레이드된 펀드슈퍼마켓 2.0을 통해 차별화된 자산관리 톨을 선보였다. 수익률은 올리고 위험은 낮춘다는 의미를 가진 업다운 폴리오를 투자자가 펀드를 선택하면 기대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펀드, 위험을 낮출 수 있는 펀드 정보를 제공하여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도록 지원한다.

‘카트폴리오’는 카트에 담을 수 있는 펀드의 개수를 3개에서 5개로 늘리며 업그레이드 했으며, ‘펀드나무’는 다른 펀드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는 실제 펀드의 수익률 정보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궁금증이나 문제 해결에 대한 방법을 고객 상호간 댓글을 통해 공유함으로써 자산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김경아 기자 kakim@

## 예탁결제원, 부산·중 청다오와 경제통상·금융 교류협력 MOU

금융특구 육성 세미나 개최

미나를 개최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1일 청다오에서 부산광역시·중국 청다오시(청도)와 경제통상과 금융분야 교류협력 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3개 기관(예탁결제원, 부산시, 청다오시)이 호혜평등의 원칙 하에 부산·청다오 간 경제통상과 금융분야 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공동의 목적을 갖고 체결한 것이다.

예탁결제원은 ‘협력기관’으로서 부산과 청다오의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자본시장 교류 상호협력 △양국 자본시장 진출 관련 △양국 자산시장 연계·육성 등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예탁결제원은 MOU 체결 이후 부산·청다오의 금융특구 육성 전략을 주제로 양국의 관계자 및 전문가를 초청해 세

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예탁결제원 주관 하에 부산 및 청다오 간 금융특구 전략 방안 등에 대한 상호 정보교류 및 양 도시 간 실질적인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는 부산시의 금융 중심지 추진전략 및 청다오시의 특구 추진 현황에 대한 정보 공유뿐만 아니라, 한·중 지방정부의 경제협력 필요성 및 예탁결제원을 활용한 자본시장 연계모델 등 구체적 실행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병행해 관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종합 증권서비스 기업으로서 양시의 경제협력 및 금융시장 연계 등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등 부산이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더 이상의 자기계발서는 필요없다! 자기계발 결정판!

삶은, 인생은, 사람은 원래 힘들고 어려운 것이 정상

# 행복 7가지 인간 사용설명서



김현경 지음 | 280쪽  
M&K | 값 13,500원

최신 자기계발서 베스트셀러 50여종 완벽해부

‘새로고침’이라는 부제목에서 엿볼 수 있듯 이 책은 새로운 각오로 삶에 긍정에너지 발산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인생 & 행복 가이드북’이다. 그동안 자기계발서의 주요 키워드였던 ‘꿈’, ‘돈’, ‘마음’, ‘의지’, ‘몸(건강)’, ‘인간관계’, ‘입(화법, 화술)’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인간 자체’를 분석한다. 여타의 자기계발서와의 큰 차이점은 갈릴기식의 자침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자침이 담긴 사용설명서’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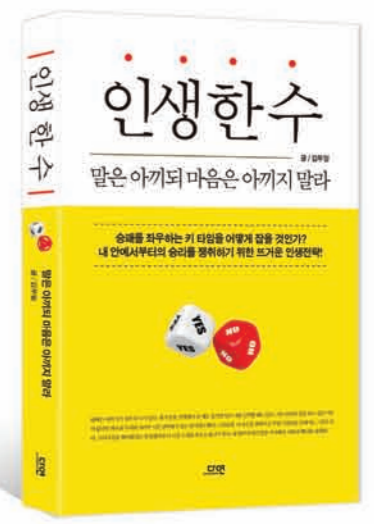
문의: 02-323-4610

승패를 좌우하는 키 타이밍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내 안에서부터의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뜨거운 인생전략!

# 인생한수

말은 아끼되 마음은 아끼지 말라



김무일 지음 | 316쪽  
다연 | 값 15,000원

성공한 선배에게 듣는 아주 특별한 인생 한수!

산업 현장을 비롯한 우리나라 각 분야의 직장인 여러분! 흔들림 없이 잘들 살아가고 계십니까? 《인생 한수》는 흔들리는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물론 이 책이 직장인들의 모든 근심과 걱정거리를 없애주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도 ‘나의 말과 나의 직장’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볼 기회는 될 것입니다. 또한 유능한 직장인으로 변신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예상해봅니다.

전국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문의: 070-8700-8767



# 매출 급증 아비코전자... 증권사들 선호주 꼽아



## NFC 확산에 DDR4용 칩저항기 부품 수요 늘어 부국·대우증권 6월 리포트서 "성장동력 확보" 호평

아비코 전자가 2분기부터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을 이룰 전망이다. 기존 제품 매출 확대 및 신규 매출 창출에 따른 것이다. 이에 증권사들의 호평도 잇따르고 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아비코전자는 2분기 이후 수익성 개선폭이 대폭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시그널인덱터 및 DDR4용 집저항기 매출 확대가 주 요인이다.

최근 IT 시장에서는 NFC 확산, DDR4 전

환에 따른 수동소자 부품 수요 급증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아비코전자 역시 이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 아비코전자 관계자는 "2분기 이후 매출 및 수익성에서 분명한 개선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증권사 호평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부국증권과 대우증권은 이번달 월간리포트에서 두 회사를 선호 종목으로 꼽았다. 지난 1일 KDB대우증권은 'Monthly Insight' 6월

호를 통해 아비코전자를 최선호주로 선정했다.

KDB대우증권은 이 회사의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각각 176억 원, 28억 원으로 추정했다. 전년 대비 18%, 11% 증가한 수치다.

대우증권은 "일본 업체들이 선점하던 인덱터, 저항기 시장에서 국산화 성공하며 시장점유율 빠르게 확대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가전제품용으로만 적용되던 파워인덱터가 지난 1분기부터 스마트폰에도 적용 시작, 하반기부터 본격화 되는 점도 긍정적이라 분석했다.

부국증권 역시 '6월 BookKook Monthly'를 통해 아비코전자를 소개하고 제품 다변

화에 따른 중장기적 성장동력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임태웅 부국증권 연구원은 "1분기부터 이미 매출 확대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집저항기부문은 기존 가전기기 중심의 저마진 저항기 매출에서 벗어나 DDR4용 고마진 초소형 집 저항기 교체수요 확대에 매출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임 연구원은 이어 "아직까지 DDR4의 집투율이 매우 미미한 수준(2014년 2%→2015년 16%→2016년 33%)인 만큼 동사 집 저항기의 중장기적 매출성장이 기대된다"고 했다.

송영록 기자 sy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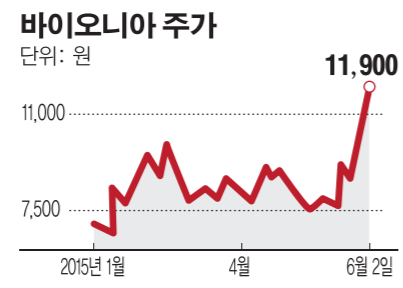
## 바이오니아, 메르스 검출키트 생산 시작

### 첫 개발 '듀얼핫스타트' 적용 3시간 만에 바이러스 검출

바이오니아는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고감도 메르스검출키트 생산을 6월부터 시작한다.

특히 바이오니아는 본격적으로 키트 생산을 시작해 방역당국의 요청 시 긴급한 협조를 통해 메르스 완전차단 시까지 관련 의료기관에 공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일 바이오니아에 따르면 고감도 메르스 검출키트는 바이오니아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특허기술인 '듀얼핫스타트(Dual-hotstart™)' 기술이 적용된 키트로서 '듀얼핫스타트' 기술은 RNA 바이러스를 검출하는 최고의 검출한계를 가지는 기술이다.

본 키트는 신종플루 대유행 이후 전국의료기관에 보급된 바이오니아의 ExiStation™ 분자진단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키트로서, 이 시스템 사용시 실험자의 감염위험을 최소화하면서 핵산추출부터 자동으로 수행하여 3시간에 메르스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있다.

박한오 바이오니아 대표는 "Dual-hotstart 특허가 적용된 최고의 검출민감도를 가지는 분자진단키트를 신속하게 개발공급 함으로써, 감염자의 조기검출을 통해 초기에 확산을 방지하는 데 기여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 에이프릴어학원 '카스' 오픈... 영어 공부법 공유

### 자녀 양육 정보도 나눠

교육기업 청담러닝의 초등전문 에이프릴어학원(April어학원)이 학부모와 교육에 관심이 높은 카진(카카오톡 친구)들을 위한 공식 카카오톡채널을 오픈하고 소통 채널을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에이프릴어학원은 자체 커리큘럼 콘텐츠

를 활용하게 쉽게 익힐 수 있는 영어 표현과 다양한 배경지식 등의 유용한 학습 정보뿐만 아니라 접근성이 좋고 공감도 높은 자녀 양육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이미, '10년 후 자녀에게 한마디', '아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비결', '자녀와 함께하는 푸드 테라피' 등 다양한 콘텐츠들이 공감을 얻으며 주목받고 있다.

또 오는 14일까지 오픈 기념 이벤트가

진행되며, '소식방' 클릭 후 오픈 축하 댓글을 작성하면 추첨을 통해 총 100명에게 경품을 증정한다.

지난 27일 여름학기 강좌를 시작한 에이프릴어학원은 표현력과 창의력 향상에 초점을 둔 다독과 체험의 독서활동 프로그램 CR1000(Creative Reading 1000)을 운영 중이다.

송영록 기자 syr@

## 쌍방울, 中 타오바오 이어 티몰글로벌도 입점

### 전자상거래 시장 점유율 1위 온라인 유통채널 공략 박차

쌍방울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점유율 1위 티몰글로벌에서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간다.

2일 쌍방울에 따르면 중국 아동복시장 진출에 이어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기업 알리바바 그룹 산하 B2C 오픈 마켓인 '티몰글로벌'에서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한다.

현재 중국의 온라인몰 시장은 연간 40% 이상의 고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성장세가 높아 국내기업들의 중국 온라인쇼핑몰 입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일반인도 오픈할 수 있는 C2C 온

라인쇼핑몰과는 달리 기업인증과 정품인증을 받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만든 B2C 온라인쇼핑몰이 작년부터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쌍방울은 지난 2월부터 중국 전자상거래 B2C 온라인쇼핑몰 중 매출액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징둥닷컴(JD.com)'과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는 '타오바오'에서 물품판매를 시작, 중국 전역의 소비자들에게 고 품질의 내의를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이는 동시에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상화 쌍방울 중국유통사업본부 본부장은 "우선 중국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30여개 품목부터 판매를 시작했고 중국에서 인기가 좋은 제품군을 위주로 1차 목표인 약 150여개에 달하는 품목을 판매

하게 됐다"며 "경쟁력 있는 알리바바그룹의 물류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중국 내수시장 진출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중국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온라인 유통채널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중국의 온라인채널을 통한 구매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쌍방울이런정향 중국 아동복브랜드 '리틀탈리'가 가을시즌 수주회에 참석 한 중국대리상들을 통해 디자인, 제품 및 품질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업계에 전해지면서, 6월부터 진행될 겨울시즌 수주회에서는 계획했던 매출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설경진 기자 skj78@

## 한미반도체 '세계 10대 반도체 장비업체' 선정

한미반도체가 세계 10대 반도체 장비업체로 선정되면서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반도체 장비 전문업체인 한미반도체는 최근 미국의 반도체 조사 전문가인 VLSI 리서치가 선정하는 '2015년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세

계 10대 반도체 장비업체로 선정 됐다고 2일 밝혔다. 한미반도체는 전세계 반도체 장비업체를 대상으로 선정하는 '10 베스트 어워드(Best Award)'와 반도체 공정 분야별로 선정하는 'THE 베스트 어워드' 조립 장비부문 각각 2개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선정돼 평

상실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장비업체로서 고객만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올해 27회째를 맞은 VLSI 리서치 어워드는 전세계 반도체 장비업체를 대상으로 반도체 제조 기업과 관련 기관에 장비의 품질, 효율성, 사후서비스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벌이고 매년 5월에 그 결과를 발표하는 세계 반도체 장비업체 대표 평가 지표로 알려져 있다.

김유진 기자 eugene@

## 항공안전종합통제시스템 구축 휴니드, 58억 공공입찰 첫 수주

### 위기 발생때 컨트롤타워 역할 항공시스템 진출 교두보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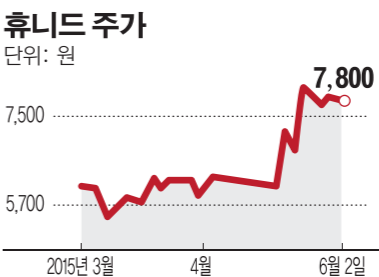
휴니드테크놀러지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항공안전종합통제시스템(ATFMS) 구축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돼 58억원 규모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제는 휴니드의 전년도 매출액 대비 약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항공시스템 통합사업 관련해 공공입찰 첫 수주라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이번 사업의 총 규모는 176억원으로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센터(ACC), 군중양방공통제센터(MCRC), 항공기상청, 주요항공사 등 항공교통관련 유관기관 연계를 통해 항공기 교통상황 모니터링 및 위기상황 발생 시 국가 항공안전의 전반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형 항공안전종합통제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휴니드는 금번 사업에 팜투스회사, 중앙하이텔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자로 선정됐으며, ATFMS 종합통제센터구축을 담당하게 된다.

휴니드는 이번 사업 수주를 통해 향후 항공시스템 통합 사업분야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



했다.

휴니드는 지난 2007년부터 다수의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감시시스템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지난 해 인천 송도국제도시 U-City 구축 1단계 사업에 참여하는 등 회사의 주력 사업분야인 방산사업 이외에 민수사업 분야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신중석 휴니드 대표이사는 "민수시장의 사업영역 확장을 위해 올해 초부터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한 결과 연이은 성과를 거두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항공시스템통합분야 사업확대 및 현재 사업자로 선정됐으며, ATFMS 종합통제센터구축을 담당하게 된다."

휴니드는 이번 사업 수주를 통해 향후 항공시스템 통합 사업분야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

송영록 기자 syr@



## 에머슨퍼시픽 '아난티 박스 하우스' 부산 해운대에 오픈

### 컨테이너로 만든 펜트하우스

부산 가장 동부산관광단지 해변가에 위치한 '아난티 펜트하우스 해운대'와 '힐튼 부산' 공사현장에 컨테이너 15개를 쌓아 올려 만든 아난티 펜트하우스의 콘셉트 라운지 '아난티 박스 하우스(Ananti Box House)'가 1일 오픈했다.

아난티 펜트하우스 해운대를 둘러싼 천혜의 자연환경과 콘셉트를 경험할 수 있는 이 공간에는 아름다운 바다와 내려다 보이는 야외 라운지와 바, '힐튼 부산'의 전체 단지 모형이 전시된 실내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문을 연 '아난티 박스 하우스'는 세계 5위 무극장, 부산에 가장 많은 것 중 하나인 컨테이너를 활용한 업사 이클립 건축물로서 아난티 펜트하우스의 건축가 겸 컨셉터인 디자인했다. 힐튼 부산과 아난티 펜트하우스 해운대 오픈 후에도 이동 설치해 접객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만규 에머슨퍼시픽 대표이사는 "아난티 브랜드는 자연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됐다"며 "아난티 펜트하우스 경우 건축 설계 때에도 자연 훼손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친환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환경설비도 세계 최고 친환경설비업체와 함께 작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업사이클링 건축물인 아난티 박스 하우스도 이러한 아난티 펜트하우스의 철학을 근간으로 기획됐기에 고객들이 아난티 펜트하우스 주변 자연환경 콘셉트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난티 펜트하우스는 전체 객실이 353㎡(107평)의 최고급 펜트하우스로만 구성돼 있다. 모든 객실은 계단식으로 이루어져 넓은 야외 테라스에서 바다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구조다.

국내 최초로 테라스에 프라이빗 풀을 배치해 이국적인 분위기와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는 계획이다. 객실 내부나 테라스에 온천탕을 배치하거나 파고라를 뒤 객실 안에서 최대한 바다와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했다.

김혜진 기자 sinembargo@

## 사업확대 하나마이크론... 시너지 노린다

### KT와 IoT 플랫폼 공급계약 플렉서블 PKG 시장선점 나서

"브라질 PKH, IOT 등 사업 다각화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다."

지난달 28일 찾은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하나마이크론 공장은 제 1라인에서 제 3라인까지 바쁘게 돌아가는 모습이었다. 최근 완공한 제 4라인(범람)도 고객사의 수요 요청을 기다리며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반도체 패키징 전문기업 하나마이크론은 최근 모바일 LPDDR4 채용이 본격화되면서 수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LPDDR4 등 최신 모바일 D램을 포함한 고부가가치 메모리 패키지 수주확대되고 있다.

하나마이크론은 경영관리 전무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고사양화로 모바일 D램 시장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하나마이크론의 경우 경쟁사 대비 신기술(플렉서블 메모리, Fan-out 웨이퍼 레벨 패키징 PoP) 대응이 빨라 시장에서 좋은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하나마이크론이 지난 2009년 브라질 현지기업인 PARIT와 50대 50 지분으로 설립한 브라질 현지 합작사 HT 마이크로닉의 실적 개선도 기대되고 있다.

지난해 환율 영향으로 다소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던 HT 마이크로닉은 올해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실적 역시 개선세를 보일 것이라 전망이다.

특히 브라질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향후 전망이 밝다고 하나마이크론 측은 설명하고 있다. 또한 하나마이크론은 KT와 IoT(사물인터넷) 사업 관련 플랫폼과 디바이스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IOT 영역으로의 사업 확대 역시 추진하고 있다.

신 전무는 "비콘을 기반으로 IOT영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향후 SIP 기반 사물인터넷 제품 개발 등, 지속 성장을 위해 다양한 기술 개발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플렉서블 PKG 제품 상용화를 기반으로 시장을 선점해 나갈 것"이라며 "하나마이크론의 플렉서블 PKG기술은 웨어러블 디바이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메디컬 디바이스, 지능형 자동차 등 광범위한 분야에 상용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문선영 기자 moon@



# 농수산 벤처창업 · 웰빙관광 · 친환경 바이오화학 전남이 대한민국 창조경제를 희망의 내일로 띄우겠습니다

농수산 벤처, 바이오 화학산업 생태계 조성,  
청정 자연환경을 활용한 웰빙 관광지 육성까지  
대한민국 창조경제의 더 큰 미래를 위해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GS**가 함께 하겠습니다

### 농수산 벤처 창업·육성의 1번지

- 농식품 벤처 창업지원 원스톱 서비스 제공
- 농수산 특화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한류 히트 농수산 상품(K-푸드) 육성

### 청정 자연환경을 활용한 웰빙관광지 육성

- 세계적 히트 관광상품(K-투어) 개발
- 관광상품 홍보 및 판로지원
- 여행벤처, 6차산업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 친환경 바이오화학 산업 생태계 조성

- 바이오화학 거점 플랜트 등 기반 구축
- 바이오화학 전후방산업 협력생태계 구축
- 바이오추출물 분야 강소기업 육성